

「2020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및 특강 지원사업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2021. 1.



(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조사분석진

조사분석책임	• 김학성 /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 상임대표
공동조사분석	• 민병기 / 한밭대학교 교수
공동조사분석	• 이재현 /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교수
조사분석보조	• 채병주 외 3인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차 례>

1장 사업 개요	24
1. 대학생 통일 강좌 및 특강 사업 개요	24
1) 사업 목적	24
2) 사업 목표	26
2. 설문조사 개요	28
1) 조사 목적	28
2) 조사 개요	28
3) 조사 내용	28
4) 분석 내용	29
2장 1학기 설문조사 분석 결과	32
1. 1학기 통일 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32
1) 일반 분석	32
2) 성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39
3) 학년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45
4)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51
2. 1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57
1) 일반 분석	57
2) 성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62
3) 학년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68
4) 1학기 통일 강좌 사전/사후 설문조사 비교	74
3. 1학기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77
1) 일반 분석	77
2) 성별 통일 특강 설문 분석 결과	84
3) 학년별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89
4. 1학기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95
1) 일반 분석	95
2) 성별 현장체험학습 설문 분석 결과	101
3)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104

3장 2학기 설문조사 분석 결과	110
1. 2학기 통일 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10
1) 일반 분석	110
2) 성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17
3) 학년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3
4)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9
2. 2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35
1) 일반 분석	135
2) 성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0
3) 학년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146
4) 2학기 통일 강좌 사전/사후 설문조사 비교	152
3. 2학기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155
1) 일반 분석	155
2) 성별 통일 특강 설문 분석 결과	162
3) 학년별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167
4. 2학기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173
1) 일반 분석	173
2) 성별 현장체험학습 설문 분석 결과	179
3)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182
4장 결론	187
1. 대학생 통일강좌 및 통일특강 사업 설문분석 결과 요약	187
1) 통일 강좌 사업	187
2) 통일 특강 사업	189
3) 현장체험학습 사업	190
2.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92
부록 1. 설문지	194
부록 2. 대학별 설문조사 참여자 수	203

<표 차례>

[표 1-1] 한국인의 세대별 통일의식 (2015년~2019년)	25
[표 1-2] 사업성과 측정지표	27
[표 1-3] 조사설계 개요	29
[표 2-1] 응답자의 성별	32
[표 2-2] 응답자의 거주지역	32
[표 2-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33
[표 2-4] 응답자의 학년	33
[표 2-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34
[표 2-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34
[표 2-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
[표 2-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35
[표 2-9] 북한에 대한 이미지	36
[표 2-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37
[표 2-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38
[표 2-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38
[표 2-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39
[표 2-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40
[표 2-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0
[표 2-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41
[표 2-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42
[표 2-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42
[표 2-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43
[표 2-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44
[표 2-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45
[표 2-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46
[표 2-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6
[표 2-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47
[표 2-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48

[표 2-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49
[표 2-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49	
[표 2-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50
[표 2-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51
[표 2-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2
[표 2-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52
[표 2-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53
[표 2-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54
[표 2-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55	
[표 2-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55
[표 2-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57
[표 2-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58
[표 2-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58
[표 2-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59
[표 2-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60
[표 2-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60
[표 2-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61
[표 2-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62
[표 2-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63
[표 2-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63
[표 2-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64
[표 2-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65
[표 2-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66	
[표 2-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66
[표 2-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68
[표 2-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69
[표 2-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69
[표 2-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70

[표 2-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71
[표 2-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72	
[표 2-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72
[표 2-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74
[표 2-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75
[표 2-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75
[표 2-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76
[표 2-61]	응답자의 성별	77
[표 2-62]	응답자의 거주지역	77
[표 2-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78
[표 2-64]	응답자의 학년	78
[표 2-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79
[표 2-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80
[표 2-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80
[표 2-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81
[표 2-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81
[표 2-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82
[표 2-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83
[표 2-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84
[표 2-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85
[표 2-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85
[표 2-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86
[표 2-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87
[표 2-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87
[표 2-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88
[표 2-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89
[표 2-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90
[표 2-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90
[표 2-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91

[표 2-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92
[표 2-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93
[표 2-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93
[표 2-86]	응답자의 성별	95
[표 2-87]	응답자의 거주지역	95
[표 2-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96
[표 2-89]	응답자의 학년	96
[표 2-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97
[표 2-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97
[표 2-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98
[표 2-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99
[표 2-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99
[표 2-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0
[표 2-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01
[표 2-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2
[표 2-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02
[표 2-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3
[표 2-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04
[표 2-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5
[표 2-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05
[표 2-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6
[표 3-1]	응답자의 성별	110
[표 3-2]	응답자의 거주지역	110
[표 3-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11
[표 3-4]	응답자의 학년	111
[표 3-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112
[표 3-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12
[표 3-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3
[표 3-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13
[표 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114

[표 3-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15
[표 3-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116
[표 3-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16
[표 3-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117
[표 3-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18
[표 3-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8
[표 3-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19
[표 3-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20
[표 3-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20
[표 3-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21
[표 3-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22
[표 3-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123
[표 3-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24
[표 3-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4
[표 3-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25
[표 3-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26
[표 3-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27
[표 3-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27
[표 3-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28
[표 3-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29
[표 3-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표 3-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30
[표 3-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31
[표 3-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32
[표 3-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33
[표 3-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33
[표 3-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35
[표 3-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36

[표 3-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36
[표 3-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137
[표 3-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38
[표 3-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138
[표 3-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139
[표 3-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40
[표 3-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41
[표 3-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41
[표 3-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2
[표 3-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43
[표 3-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44	
[표 3-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44
[표 3-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46
[표 3-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47
[표 3-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47
[표 3-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8
[표 3-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49
[표 3-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50	
[표 3-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50
[표 3-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152
[표 3-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153
[표 3-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153
[표 3-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154
[표 3-61] 응답자의 성별	155
[표 3-62] 응답자의 거주지역	155
[표 3-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56
[표 3-64] 응답자의 학년	156
[표 3-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57
[표 3-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158

[표 3-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58
[표 3-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59
[표 3-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59
[표 3-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60
[표 3-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61
[표 3-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62
[표 3-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63
[표 3-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163
[표 3-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64
[표 3-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65
[표 3-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65
[표 3-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66
[표 3-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67
[표 3-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68
[표 3-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168
[표 3-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69
[표 3-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70
[표 3-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71
[표 3-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71
[표 3-86]	응답자의 성별	173
[표 3-87]	응답자의 거주지역	173
[표 3-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74
[표 3-89]	응답자의 학년	174
[표 3-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175
[표 3-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175
[표 3-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176
[표 3-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177
[표 3-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77
[표 3-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78
[표 3-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79

[표 3-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80
[표 3-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80
[표 3-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81
[표 3-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82
[표 3-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83
[표 3-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83
[표 3-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84

<그림 차례>

[그림 1-1] 통일교육을 통한 의식 흐름도	26
[그림 2-1] 응답자의 성별	32
[그림 2-2] 응답자의 거주지역	32
[그림 2-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33
[그림 2-4] 응답자의 학년	33
[그림 2-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34
[그림 2-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34
[그림 2-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5
[그림 2-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36
[그림 2-9] 북한에 대한 이미지	36
[그림 2-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37
[그림 2-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38
[그림 2-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38
[그림 2-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39
[그림 2-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40
[그림 2-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0
[그림 2-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41
[그림 2-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42
[그림 2-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43
[그림 2-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43	
[그림 2-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44

[그림 2-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45
[그림 2-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46
[그림 2-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7
[그림 2-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47
[그림 2-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48
[그림 2-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49
[그림 2-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50	
[그림 2-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50
[그림 2-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51
[그림 2-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52
[그림 2-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53
[그림 2-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53
[그림 2-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54
[그림 2-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55	
[그림 2-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56
[그림 2-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57
[그림 2-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58
[그림 2-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59
[그림 2-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59
[그림 2-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60
[그림 2-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60
[그림 2-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61
[그림 2-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62
[그림 2-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63
[그림 2-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64
[그림 2-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65
[그림 2-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65
[그림 2-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그림 2-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67
[그림 2-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68
[그림 2-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69
[그림 2-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70
[그림 2-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70
[그림 2-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71
[그림 2-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72	
[그림 2-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73
[그림 2-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74
[그림 2-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75
[그림 2-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	76
[그림 2-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76
[그림 3-61] 응답자의 성별	77
[그림 2-62] 응답자의 거주지역	77
[그림 2-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78
[그림 2-64] 응답자의 학년	78
[그림 2-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79
[그림 2-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80
[그림 2-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80
[그림 2-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81
[그림 2-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82
[그림 2-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82
[그림 2-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83
[그림 2-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84
[그림 2-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85
[그림 2-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86
[그림 2-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86
[그림 2-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87
[그림 2-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88

[그림 2-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88
[그림 2-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89
[그림 2-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90
[그림 2-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91
[그림 2-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91
[그림 2-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92
[그림 2-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93
[그림 2-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94
[그림 2-86] 응답자의 성별	95
[그림 2-87] 응답자의 거주지역	95
[그림 2-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96
[그림 2-89] 응답자의 학년	96
[그림 2-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97
[그림 2-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98
[그림 2-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98
[그림 2-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99
[그림 2-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99
[그림 2-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0
[그림 2-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01
[그림 2-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2
[그림 2-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02
[그림 2-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3
[그림 2-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04
[그림 2-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05
[그림 2-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06
[그림 2-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06
[그림 3-1] 응답자의 성별	110
[그림 3-2] 응답자의 거주지역	110
[그림 3-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11
[그림 3-4] 응답자의 학년	111

[그림 3-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112
[그림 3-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12
[그림 3-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3
[그림 3-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14
[그림 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114
[그림 3-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15
[그림 3-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116
[그림 3-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16
[그림 3-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117
[그림 3-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18
[그림 3-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8
[그림 3-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19
[그림 3-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20
[그림 3-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21
[그림 3-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21
[그림 3-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22
[그림 3-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123
[그림 3-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24
[그림 3-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5
[그림 3-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25
[그림 3-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26
[그림 3-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27
[그림 3-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28
[그림 3-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28
[그림 3-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129
[그림 3-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0
[그림 3-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31
[그림 3-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31
[그림 3-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32

[그림 3-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33	
[그림 3-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34
[그림 3-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35
[그림 3-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36
[그림 3-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37
[그림 3-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137
[그림 3-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38
[그림 3-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138
[그림 3-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139
[그림 3-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40
[그림 3-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41
[그림 3-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42
[그림 3-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3
[그림 3-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43
[그림 3-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44	
[그림 3-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45
[그림 3-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46
[그림 3-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47
[그림 3-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48
[그림 3-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48
[그림 3-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149
[그림 3-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150	
[그림 3-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51
[그림 3-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152
[그림 3-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153
[그림 3-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	154
[그림 3-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154
[그림 3-61] 응답자의 성별	155

[그림 3-62] 응답자의 거주지역	155
[그림 3-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56
[그림 3-64] 응답자의 학년	156
[그림 3-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57
[그림 3-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158
[그림 3-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58
[그림 3-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59
[그림 3-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60
[그림 3-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60
[그림 3-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61
[그림 3-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62
[그림 3-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63
[그림 3-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164
[그림 3-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64
[그림 3-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65
[그림 3-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66
[그림 3-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66
[그림 3-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67
[그림 3-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168
[그림 3-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169
[그림 3-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169
[그림 3-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170
[그림 3-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171
[그림 3-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172
[그림 3-86] 응답자의 성별	173
[그림 3-87] 응답자의 거주지역	173
[그림 3-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174
[그림 3-89] 응답자의 학년	174
[그림 3-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175
[그림 3-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176

[그림 3-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176
[그림 3-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177
[그림 3-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78
[그림 3-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78
[그림 3-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79
[그림 3-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80
[그림 3-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80
[그림 3-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81
[그림 3-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182
[그림 3-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83
[그림 3-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184
[그림 3-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184

1장 사업 개요

1. 대학생 통일 강좌 및 특강 사업 개요
2. 설문조사 개요

1장 사업 개요

1. 대학생 통일 강좌 및 특강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대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통일·평화 의식의 제고

-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통일교육 기반 확충
- 대학생들의 올바른 평화 및 통일관 확립

□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오랫동안 통일교육이 피교육자에 대한 일방향식의 교육 방식으로 일관되어온 탓에 소기의 교육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음
- 지난 4년간 통일 및 통일·북한 강의지원 사업으로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이 진전되고 있는 바, 각 대학에 통일교육 지원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대학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체계화 및 제도화된 교육기반 구축을 유도

□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2019. 12)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의 통일의식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이후 매년 조사한 “통일의 필요성” 설문에 대해 ‘약간 필요’와 ‘매우 필요’라고 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낮음

[표 1-1] 한국인의 세대별 통일의식 (2015년~2019년)

(단위: %)

구 분	2015년	2016년	2107년	2018년	2019년
20대	56.5	41.6	38.8	55.5	54.3
30대	65.8	51.9	51.7	59.7	62.4
40대	70.3	62.8	56.5	73.2	63.8
50대	72.0	72.2	65.3	77.7	68.8
60대 이상	75.4	77.0	70.9	81.0	74.0

□ 이처럼 낮은 수준의 20대의 통일의식을 염두에 두면, 대학에서 더욱 체계화되고 제도화된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일차적으로 북한 및 분단현실에 관한 객관적 정보 및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대학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지난 4년간 대학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덕분에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대학생들의 통일교육(강의) 참여 기회 및 통일·북한 관련 정보 획득이 제한적인 상황.

- 통일교육협회의 「2019년 대학생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65.2%가 “통일교육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고 응답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86.5%의 대학생들이 “대학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필요하다고 응답(매우 필요 36.9%, 대체로 필요 49.6%)
- 요컨대 통일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각 대학에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대학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단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경험 많은 강사진의 확보가 필요

-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우수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풀(pool)을 구성하여 각 대학에 제공
- 이를 통해 분단현실(남북관계, 남남갈등, 북한이해, 동북아국제환경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정확한 지식과 비판적 시각을 형성시킴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통일의식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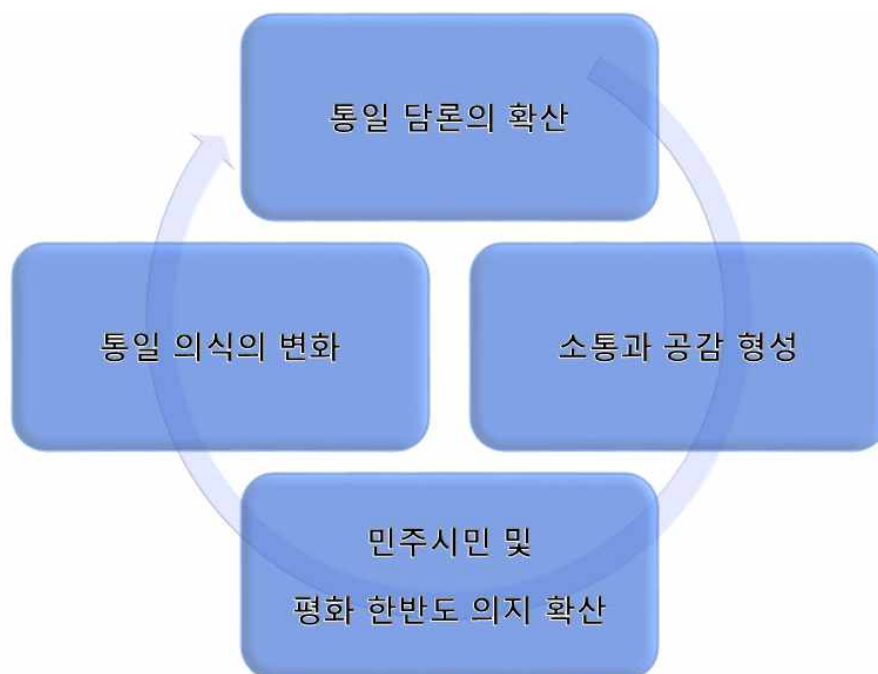
2) 사업 목표

□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회의 「대학생을 위한 통일 강좌 및 특강 지원사업」의 기본목표는 통일부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별 대학교 사이에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 역할을 하는 것에 있음

- 통일교육의 제공에 있어 통일부와 개별 학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동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통일교육 현장의 문제의식이나 아이디어가 통일부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대학과 대학생들의 능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참여형 통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유도

- 학교 간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해 창의적이며 효과있는 통일교육의 추진 및 확산에 기여
-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예체능 계열 등 대학교육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양성 및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융복합적 통일 교과목의 개발에 기여
- 이를 통해 통일담론을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평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제고



[그림 1-1] 통일교육을 통한 의식 흐름도

□ 사업성과 측정지표: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아래의 다섯 가지 지표를 제시

[표 1-2] 사업성과 측정지표

목표	측정지표	내용
사업단과 개별 대학 간 네트워킹	주간보고 달성도	주간보고가 실제 달성된 정도를 측정
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개별 대학 강좌 수 및 강좌 간 특성화 정도	신규강좌 수 및 커리큘럼 특성화 정도
통일교육 기회 확장	강좌, 수업 및 현장 학습 개최 및 참여 학생 수	통일, 정규 강의 및 현장학습 참여 학생 수
통일의식 향상	참여 학생 ‘통일·평화 관심도’ 변화	강의 참여 전후 비교
	참여 학생 ‘북한 이해도’ 변화	

2.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대학 통일교육의 효과 측정
 - 둘째, 대학통일교육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자료 구축
 - 셋째, 참여자의 의결 수렴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프로그램 개발

2) 조사 개요

- 「대학생을 위한 통일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 분석대상은 통일 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 통일 강좌 및 특강은 공통 사전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사후설문은 두 사업의 특성에 맞는 설문지를 각각 사용함
 - 현장체험은 사업종료 후 별도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후설문만 진행함
- 통일강좌 사업은 1학기 13개교, 사전 1,054명 사후 996명이 참여했으며, 2학기 19개교 사전 1,312명, 사후 1,109명이 설문에 참여함. 특강 사업은 1학기 9개교, 1,704명, 2학기 19개교 1,058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체험 학습은 1학기 5개교, 101명, 2학기 9개교 25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함(표 1-3 참고). 각 대학별 세부 참여자 수는 부록 1~3참고

3) 조사 내용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통일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학습 사업 만족도

□ 북한에 대한 인식

□ 향후 희망하는 통일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학습 내용

4) 분석 내용

□ 1학기, 2학기 통일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학습 빈도 분석

□ 통일강좌 사업 사전/사후 교차분석

□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북한에 대한 인식, 사업 참여 만족도, 향후 희망하는 통일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 학습 내용

[표 1-3] 조사설계 개요

항목			내용
조사 대상			통일 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 사업 참여 학생
표본 수	1학기	통일강좌	13개교, 사전 1,054명/사후 996명
		통일특강	9개교, 1,704
		현장체험학습	5개교, 101명
	2학기	통일강좌	19개교, 사전 1,312명/사후 1,109명
		통일특강	12개교, 1,058명
		현장체험학습	9개교, 259명
조사방법			대학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통일 강좌 및 특강 사업 참여학생 전수조사
조사기간			2020년 3월 ~ 12월

2장 1학기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1학기 통일 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결과
2. 1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결과
3. 1학기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결과
4. 1학기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결과

2장 1학기 설문조사 분석결과

1. 1학기 통일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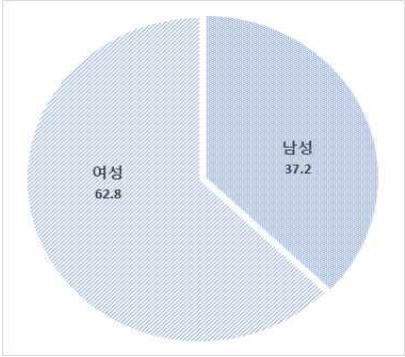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7.2%, 여성이 62.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이는 조사 대학 중 여대가 포함되어 있고, 인문대, 사회과학대, 경상대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

[표 2-1]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392	37.2
여성	662	62.8
전체	10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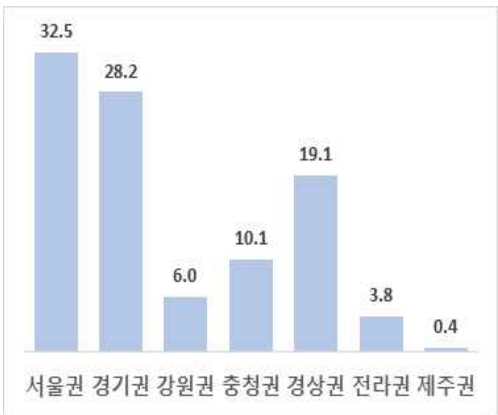


[그림 2-1]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권이 3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권 28.2%, 경상권 19.1%, 충청권 10.1%, 강원권 6.0%, 전라권 3.8%, 제주권 0.4% 순임. 이는 설문조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표 2-2]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343	32.5
경기권	297	28.2
강원권	63	6.0
충청권	106	10.1
경상권	201	19.1
전라권	40	3.8
제주권	4	0.4
전체	1054	100.0



[그림 2-2]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공과대학이 1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대 15.3%, 인문대 15.2%, 사회과학대학 14.3%, 예술대 13.2%, 사범대 8.1%, 자연대 6.3% 순임

[표 2-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160	15.2
사회과학대	151	14.3
경상대	161	15.3
자연대	66	6.3
공과대	190	18.0
농과대	10	0.9
예술대	139	13.2
의약간호대	19	1.8
사범대	85	8.1
법과대	30	2.8
생활과학대	43	4.1
전체	1054	100.0



[그림 2-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2학년이 30.2%로 가장 높았고, 이어 1학년 25.3%, 3학년 24.9%, 4학년 18.4%, 대학원 1.2%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5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4]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267	25.3
2학년	318	30.2
3학년	262	24.9
4학년	194	18.4
대학원	13	1.2
전체	10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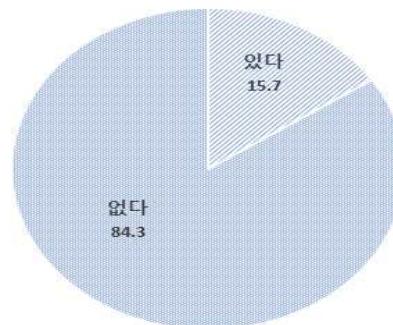
[그림 2-4]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귀하는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참여(수강)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15.7%, ‘없다’ 84.3%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음

[표 2-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빈도(명)	%
있다	165	15.7
없다	889	84.3
전체	1054	100.0



[그림 2-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③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귀하는 평소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심 있다’가 47.6%로 가장 높은 가운데, ‘관심(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의 비율이 57.8%로 ‘무관심(관심 없다 + 매우 관심 없다)’ 비율 42.1%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2-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	1,054 (100.0)	52 (4.9)	392 (37.2)	502 (47.6)	108 (10.2)	444 (42.1)	610 (57.8)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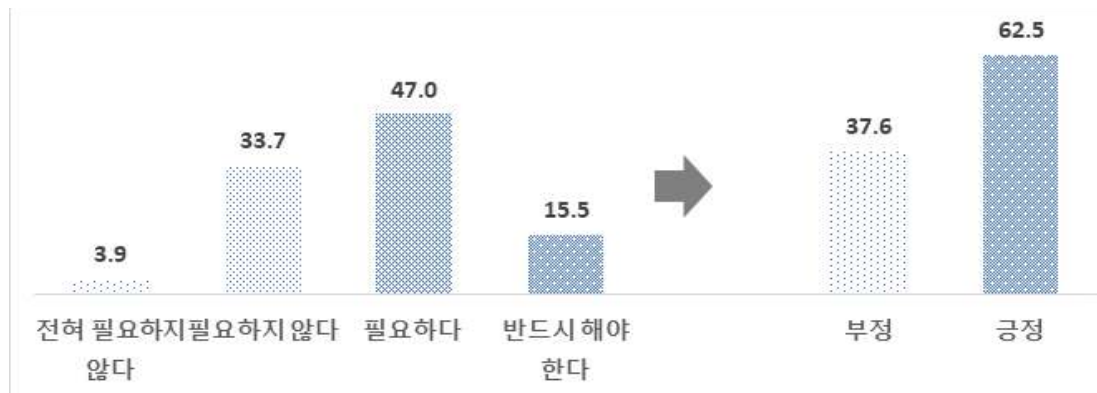


[그림 2-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귀하는 평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가 47.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해야 한다)’이 62.4%로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37.6%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2-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054 (100.0)	41 (3.9)	355 (33.7)	495 (47.0)	163 (15.5)		396 (37.6)	658 (62.5)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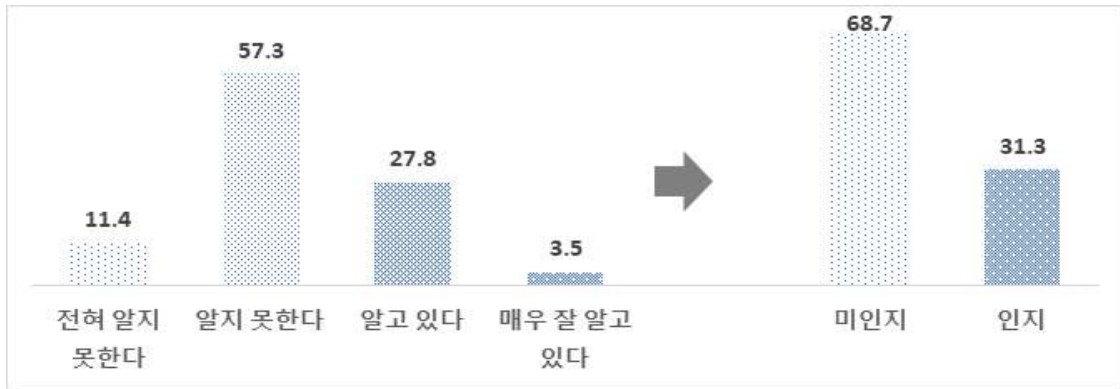


[그림 2-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귀하는 평소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지 못한다’가 57.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미인지(알지 못한다 + 전혀 알지 못한다)’의 비율이 68.7%로 ‘인지(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의 비율 31.3% 보다 더 높음. 즉,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표 2-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미인지	인지	평균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054 (100.0)	120 (11.4)	604 (57.3)	293 (27.8)	37 (3.5)		724 (68.7)	330 (31.3)	2.23



[그림 2-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④ 북한에 대한 이미지

-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가 3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28.7%,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7.4%,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4.6%,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8.4% 순임.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나, 통일 대상으로서의 인식 또한 높은 편임

[표 2-9]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89	8.4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83	17.4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326	30.9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54	14.6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302	28.7
전체	10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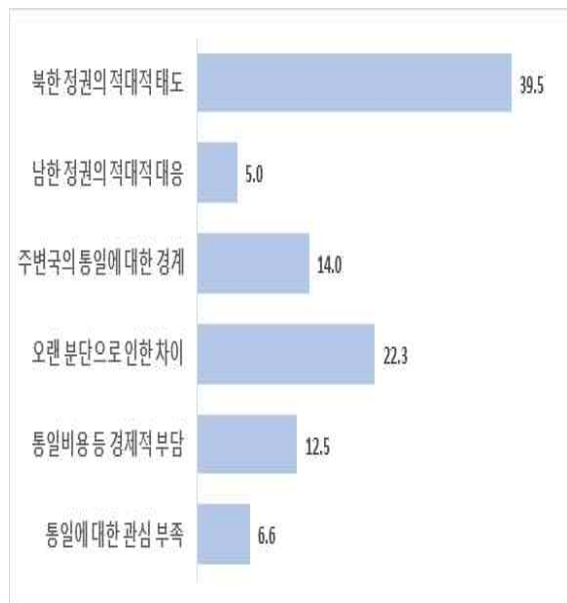
[그림 2-9]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⑤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귀하는 평소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2.3%,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4.0%,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2.5%,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6.6%,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0% 순임

[표 2-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416	39.5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3	5.0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48	14.0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35	22.3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32	12.5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70	6.6
전체	1054	100.0



[그림 2-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⑥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귀하는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변화’가 59.8%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 38.8%, ‘통일에 대한 관심’ 22.0%, ‘통일 비용에 준비’ 20.7%, ‘튼튼한 안보 구축’ 19.7%, ‘주변국지지’ 16.3% 순임

[표 2-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 변화	630	59.8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73	6.9
지속적인 남북 대화	409	38.8
주변국 지지	172	16.3
튼튼한 안보 구축	208	19.7
민간 교류 협력	113	10.7
통일에 대한 관심	232	22.0
통일 비용 준비	218	20.7



[그림 2-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⑦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 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37.5%로 가장 높음. 이어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 35.1%, ‘통일 한국의 미래’ 34.2%,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9%, ‘한반도 주변국 외교’ 26.2% 순임

[표 2-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73	25.9
북한의 사회와 문화	395	37.5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73	16.4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70	35.1
한반도 주변국 외교	276	26.2
북핵 등 군사안보	210	19.9
통일 한국의 미래	360	34.2



[그림 2-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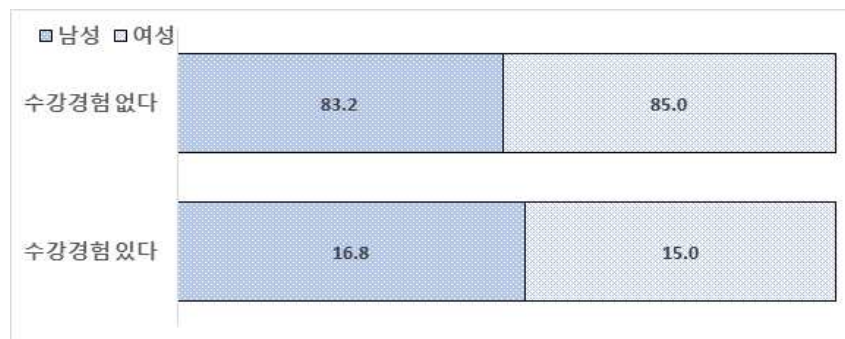
2) 성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은 ‘수강 경험 있음’이 16.8%, ‘수강 경험 없음’이 83.2%였으며, 여성은 ‘수강 경험 있음’이 15.0%, ‘수강 경험 없음’이 85.0%임. 즉, 성별과 관계없이 수강생 대부분이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수강 경험이 적음

[표 2-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전체	수강 경험 있음	수강 경험 없음
남성	100.0	16.8	83.2
여성	100.0	15.0	85.0



[그림 2-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② 성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관심 있다’가 49.0%, 46.8%로 가장 높음. 남성의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은 64.3%로 여성의 ‘관심 비율’ 54.1% 보다 높음.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그리고 4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는 남성이 2.75점으로 여성 2.56점 보다 높음

[표 2-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	무관심	관심	평균
남성	100.0	4.8	30.9	49.0	15.3		35.7	64.3	2.75
여성	100.0	5.0	40.9	46.8	7.3		45.9	54.1	2.56



[그림 2-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가 42.1%, 49.8%로 가장 높음. 남성과 여성의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해야 한다)’과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긍정비율이 부정 비율에 비해 매우 높음. 그리고 4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는 여성이 2.74점, 남성 2.73점으로 비슷함

[표 2-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5.4	34.2	42.1	18.4		39.5	60.5	2.73
여성	100.0	3.0	33.4	49.8	13.7		36.4	63.6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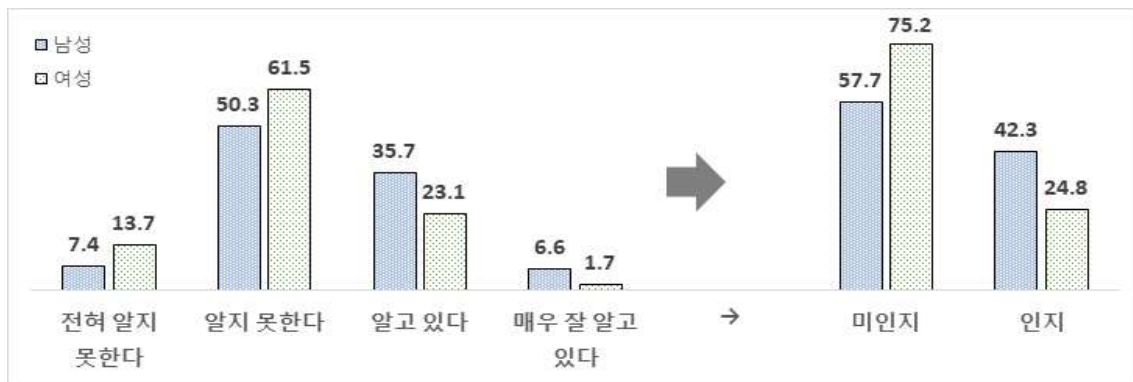


[그림 2-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알지 못한다’가 50.3%, 61.5%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인 것에 반해, 여성은 13.7%로 비교적 높음. 남성의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은 42.3%로 여성의 ‘인지 비율’ 24.8%보다 매우 높음.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평균점수도 남성이 2.42점으로 여성 2.13점 보다 높음

[표 2-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미인지	인지	평균
남성	100.0	7.4	50.3	35.7	6.6		57.7	42.3	2.42
여성	100.0	13.7	61.5	23.1	1.7		75.2	24.8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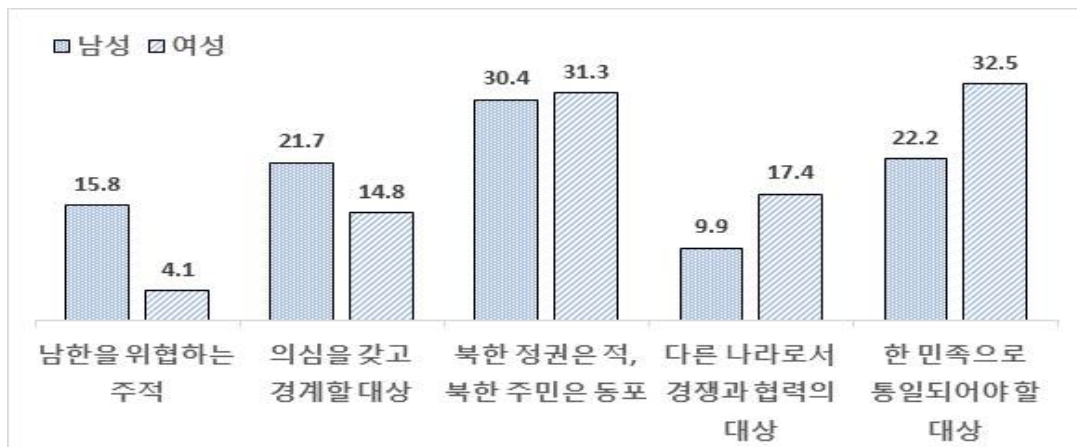
[그림 2-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③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가 30.4%, 31.3%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이 21.7%,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 15.8%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에 비해 높음.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17.4%,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32.5%로 북한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표 2-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15.8	21.7	30.4	9.9	22.2
여성	100.0	4.1	14.8	31.3	17.4	32.5



[그림 2-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41.6%, 38.2%로 가장 높음. 이어 남성과 여성 모두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통일 등 경제적 부담’ 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41.6	5.1	12.5	22.4	12.0	6.4
여성	100.0	38.2	5.0	15.0	22.2	12.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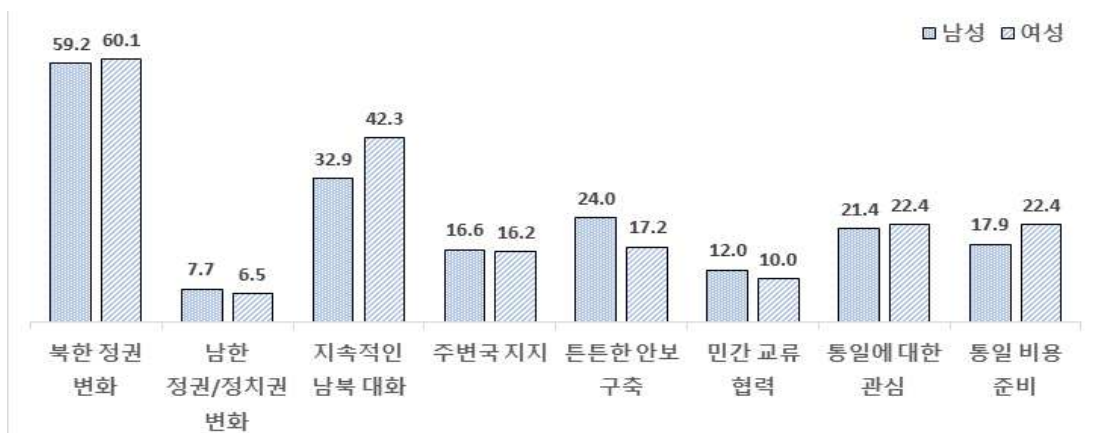


[그림 2-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⑤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 변화’가 59.2%, 60.1%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남성 32.9%, 여성 42.3%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음

[표 2-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남성	59.2	7.7	32.9	16.6	24.0	12.0	21.4	17.9
여성	60.1	6.5	42.3	16.2	17.2	10.0	22.4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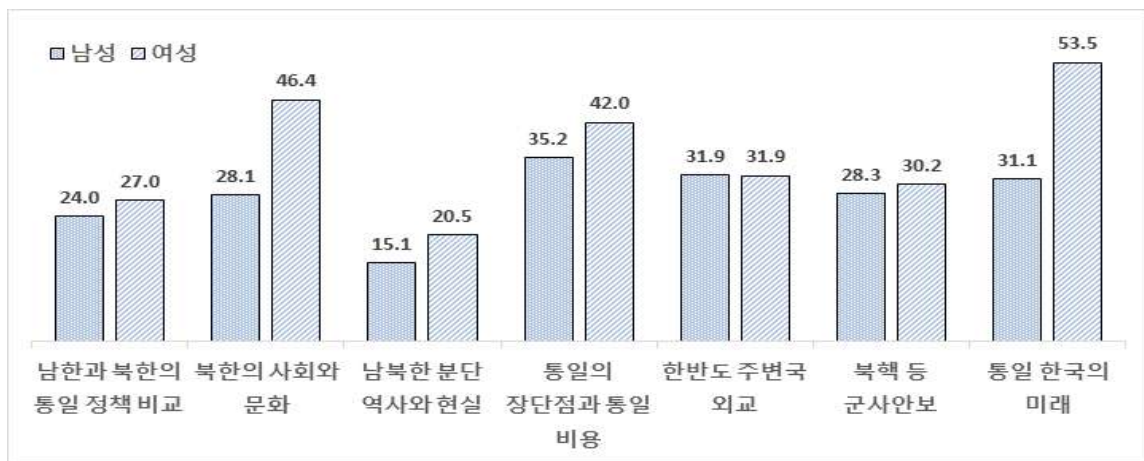
[그림 2-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⑥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5.2%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반도 주변국 외교’ 31.9%, ‘통일 한국의 미래’ 31.1% 순임. 반면, 여성은 ‘통일 한국의 미래’가 53.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사회와 문화’ 46.4%,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42.0% 순임. 남성과 여성이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는 차이가 있음을

[표 2-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24.0	28.1	15.1	35.2	31.9	28.3	31.1
여성	27.0	46.4	20.5	42.0	31.9	30.2	53.5



[그림 2-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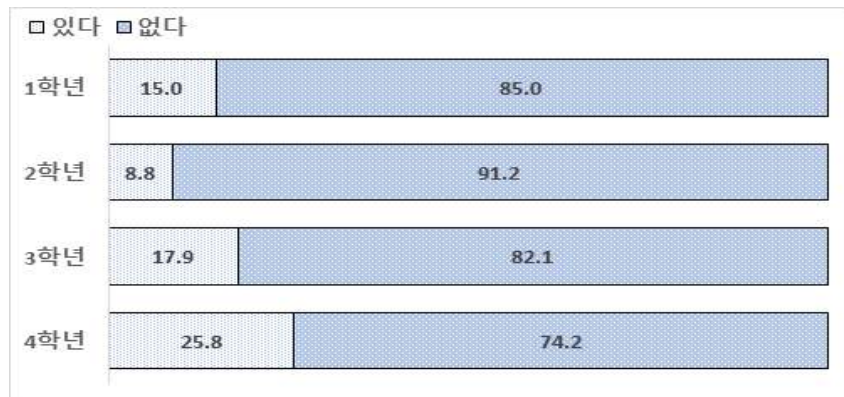
3) 학년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¹⁾

①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은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 경험 없음’이 가장 높음. 4학년은 전체 학년 중 ‘수강 경험 있음’이 25.8%로 가장 높음

[표 2-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전체	수강 경험 있음	수강 경험 없음
1학년	100.0	15.0	85.0
2학년	100.0	8.8	91.2
3학년	100.0	17.9	82.1
4학년	100.0	25.8	74.2



[그림 2-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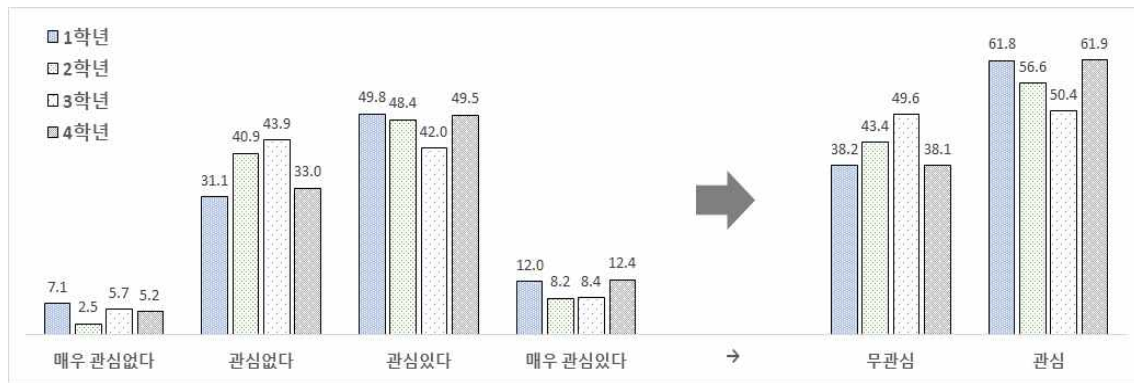
② 학년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3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 서 ‘관심 있다’가 가장 높음. 3학년은 ‘관심 없다’가 43.9%로 ‘관심 있다’ 42.0% 보다 근소하게 높음. 1학년과 4학년은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이 61.8%, 61.9%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3학년은 ‘관심 있다’ 비율이 50.4%로 상대적으로 낮음. 평균점수는 4학년이 2.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1학년 2.67점, 2학년 2.62점, 3학년 2.53점 순임

1)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2-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1학년	100.0	7.1	31.1	49.8	12.0	→	38.2	61.8	2.67
2학년	100.0	2.5	40.9	48.4	8.2		43.4	56.6	2.62
3학년	100.0	5.7	43.9	42.0	8.4		49.6	50.4	2.53
4학년	100.0	5.2	33.0	49.5	12.4		38.1	61.9	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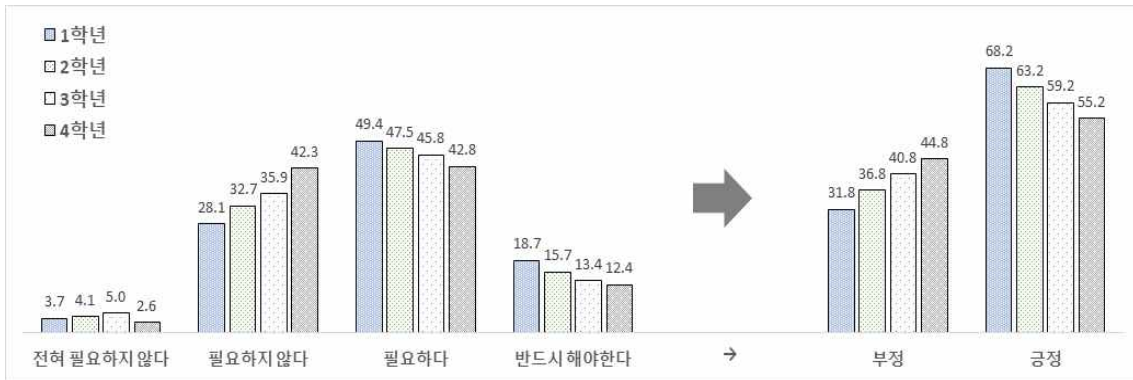


[그림 2-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필요하다’가 가장 높음. 다만, 4학년은 ‘필요하지 않다’가 42.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지면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평균점수는 1학년이 2.83점, 2학년이 2.75점, 3학년이 2.68점, 4학년이 2.65점 순임

[표 2-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3.7	28.1	49.4	18.7	→	31.8	68.2	2.83
2학년	100.0	4.1	32.7	47.5	15.7		36.8	63.2	2.75
3학년	100.0	5.0	35.9	45.8	13.4		40.8	59.2	2.68
4학년	100.0	2.6	42.3	42.8	12.4		44.8	55.2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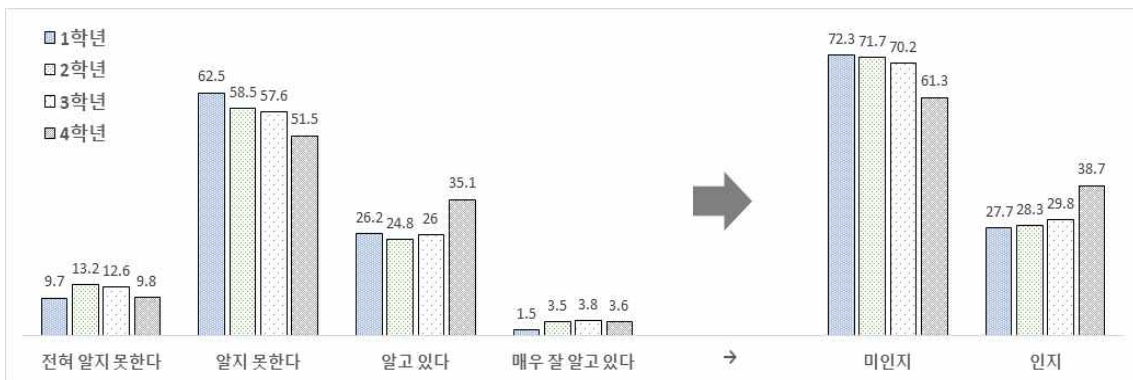


[그림 2-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알지 못 한다’가 가장 높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평균점수는 4학년이 2.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학년 2.21점, 2학년 2.20점, 1학년 2.19점 순임

[표 2-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 한다	알지 못 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평균
1학년	100.0	9.7	62.5	26.2	1.5	72.3	27.7	2.19
2학년	100.0	13.2	58.5	24.8	3.5	71.7	28.3	2.20
3학년	100.0	12.6	57.6	26.0	3.8	70.2	29.8	2.21
4학년	100.0	9.8	51.5	35.1	3.6	61.3	38.7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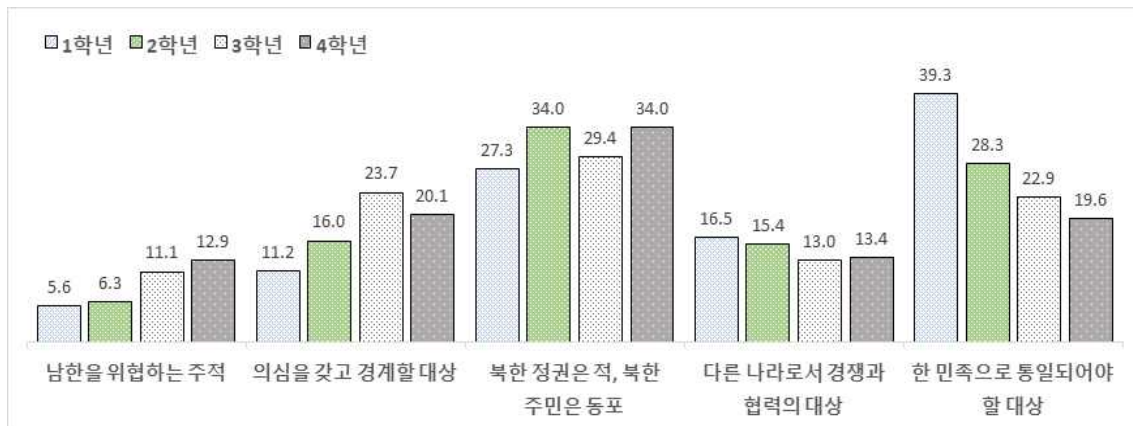
[그림 2-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③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1학년은 ‘한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39.3%로 가장 높았고, 2학년 이상부터는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라는 인식이 가장 높음. 그리고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인식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표 2-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5.6	11.2	27.3	16.5	39.3
2학년	100.0	6.3	16.0	34.0	15.4	28.3
3학년	100.0	11.1	23.7	29.4	13.0	22.9
4학년	100.0	12.9	20.1	34.0	13.4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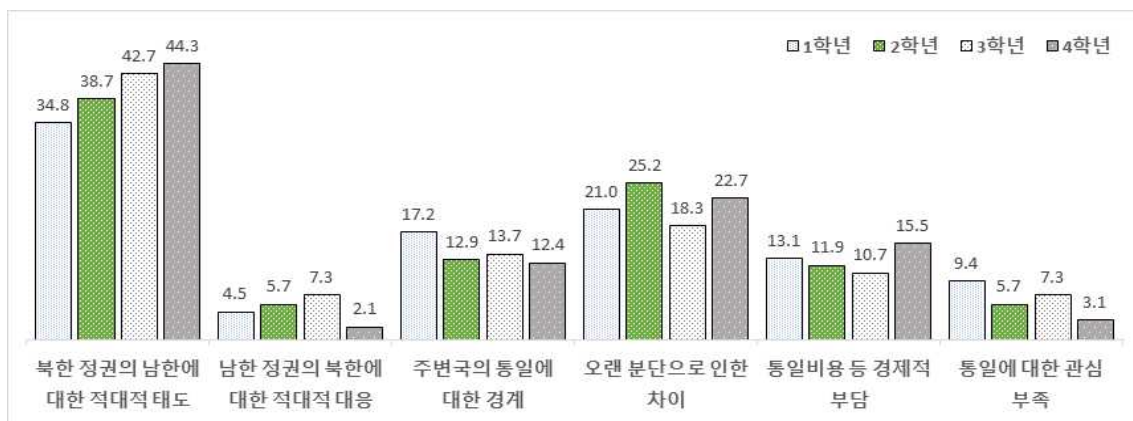
[그림 2-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가장 높음. 이어 전 학년에서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를 통일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표 2-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34.8	4.5	17.2	21.0	13.1	9.4
2학년	100.0	38.7	5.7	12.9	25.2	11.9	5.7
3학년	100.0	42.7	7.3	13.7	18.3	10.7	7.3
4학년	100.0	44.3	2.1	12.4	22.7	15.5	3.1



[그림 2-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⑤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1학년	60.3	4.1	42.7	14.2	15.0	9.0	25.1	24.7
2학년	61.6	6.6	40.3	15.4	19.5	10.7	21.7	19.8
3학년	56.5	10.3	35.1	18.3	20.2	10.7	21.0	21.4
4학년	63.9	5.7	35.1	19.1	26.3	11.3	17.5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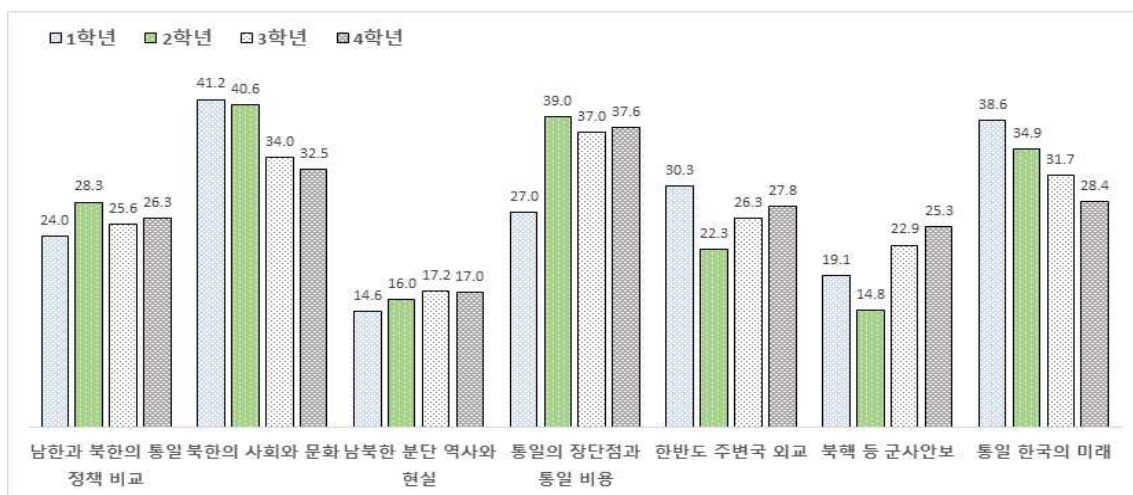
[그림 2-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⑥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1학년과 2학년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각각 41.2%, 40.6%로 가장 높음.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각각 37.0%, 37.6%로 가장 높음

[표 2-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24.0	41.2	14.6	27.0	30.3	19.1	38.6
2학년	28.3	40.6	16.0	39.0	22.3	14.8	34.9
3학년	25.6	34.0	17.2	37.0	26.3	22.9	31.7
4학년	26.3	32.5	17.0	37.6	27.8	25.3	28.4



[그림 2-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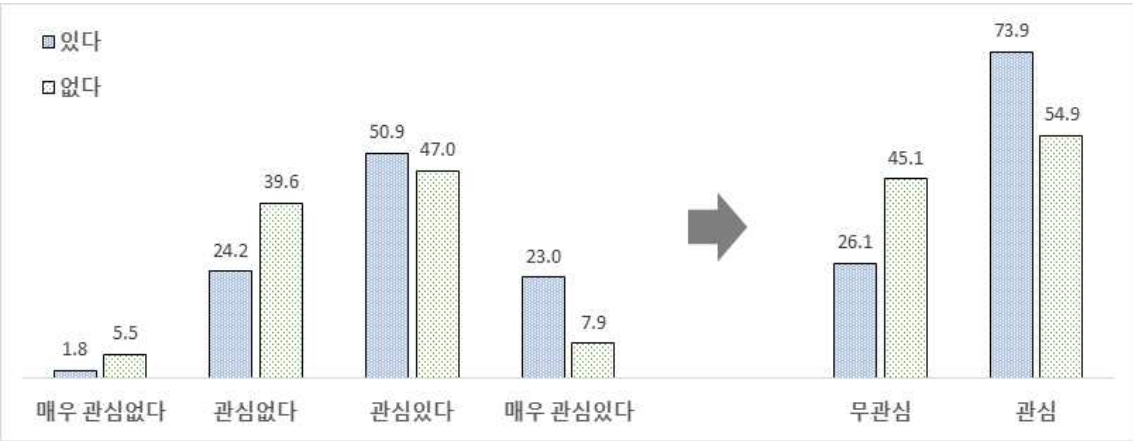
4)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수강 경험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이 유의미하게 높음. 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을 한 경우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보여줌.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1학기 강의 수강 이후 수강생들의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가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표 2-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있다	100.0	1.8	24.2	50.9	23.0	→	26.1	73.9	2.95
없다	100.0	5.5	39.6	47.0	7.9		45.1	54.9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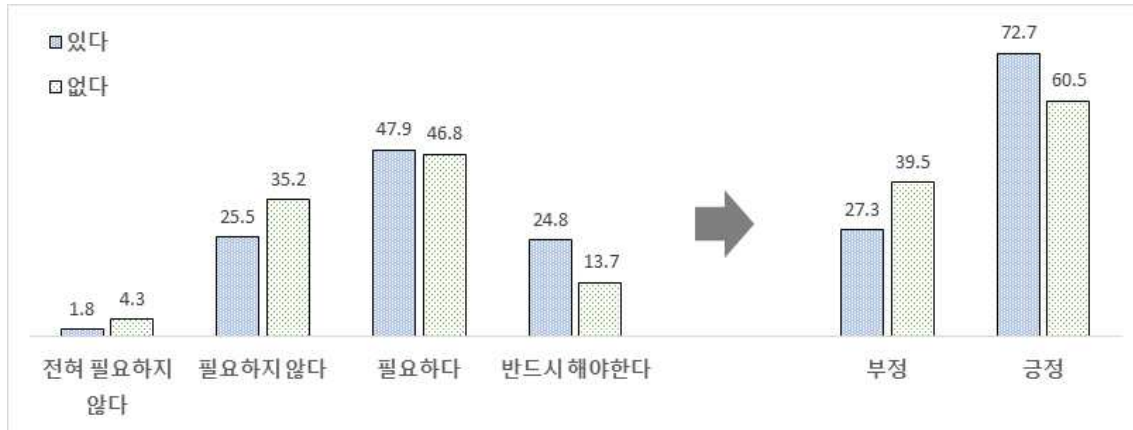


[그림 2-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필요하다)’이 72.7%로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12.2% 높음. 다만,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모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60.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표 2-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	부정	긍정	평균
있다	100.0	1.8	25.5	47.9	24.8		27.3	72.7	2.96
없다	100.0	4.3	35.2	46.8	13.7		39.5	60.5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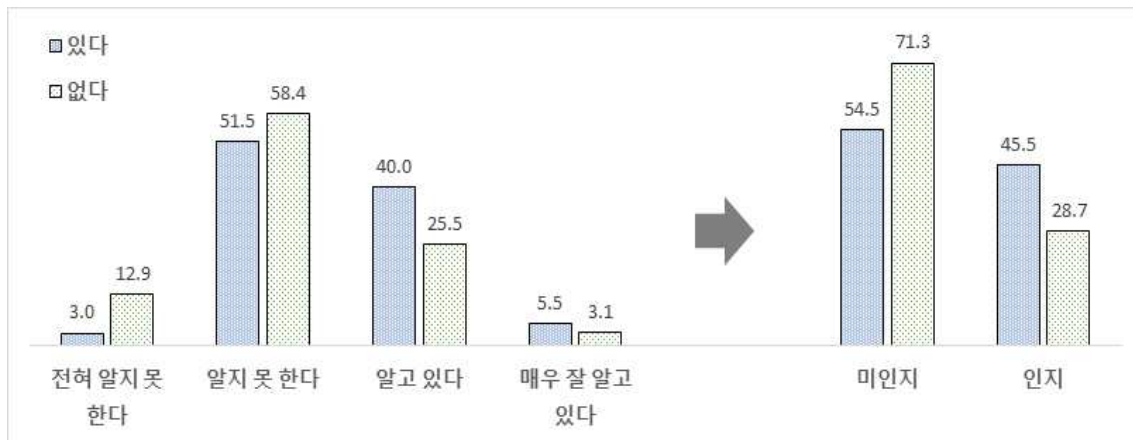


[그림 2-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지 못 한다’가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음. 다만,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전혀 알지 못 한다’의 비율이 3.0%로 수강 경험이 없는 그룹의 비율 12.9%보다 매우 낮음. 그리고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의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은 45.5%로 수강 경험이 없는 그룹의 ‘인지 비율’ 28.7%보다 매우 높음. 이를 통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 한다	알지 못 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미인지	인지	평균
있다	100.0	3.0	51.5	40.0	5.5		54.5	45.5	2.48
없다	100.0	12.9	58.4	25.5	3.1		71.3	28.7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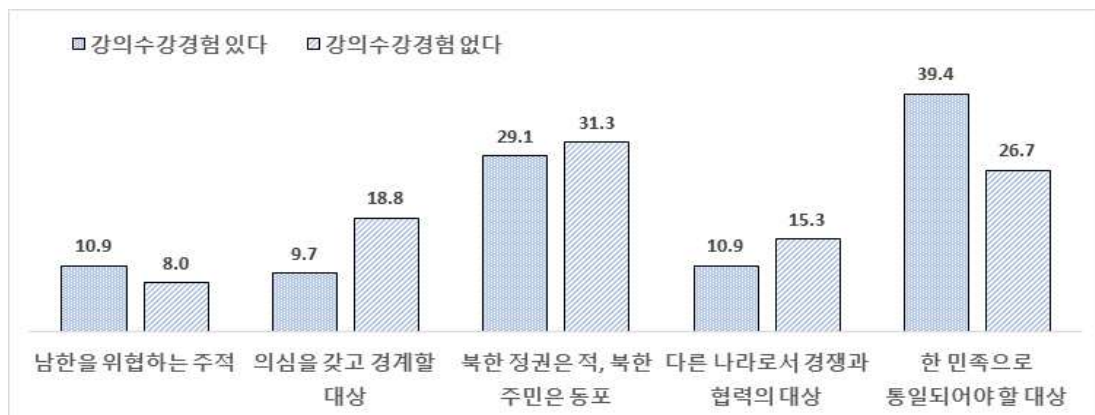
[그림 2-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②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9.4%로 가장 높음. 반면,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비율이 31.3%로 가장 높음

[표 2-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있다	100.0	10.9	9.7	29.1	10.9	39.4
없다	100.0	8.0	18.8	31.3	15.3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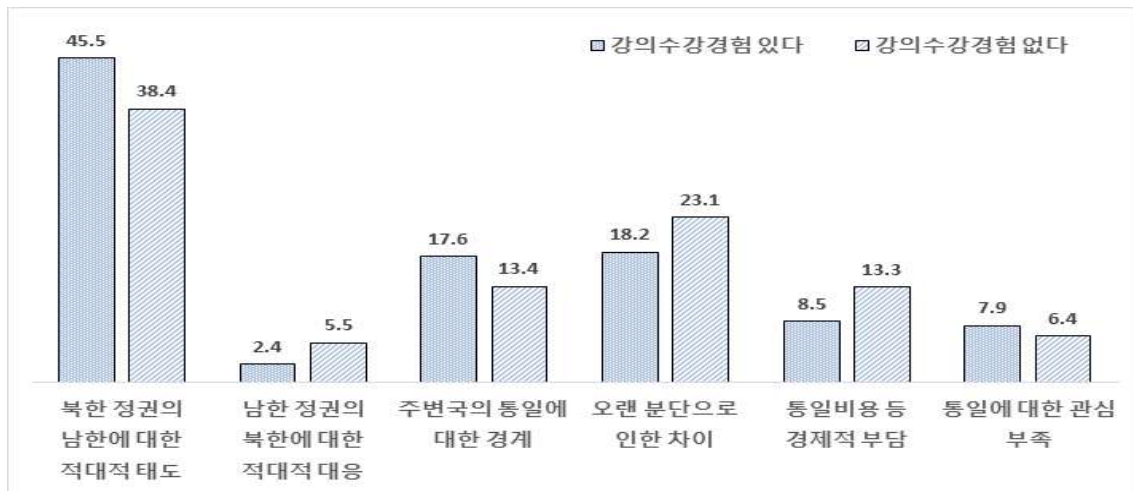
[그림 2-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수강 경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있다	100.0	45.5	2.4	17.6	18.2	8.5	7.9
없다	100.0	38.4	5.5	13.4	23.1	13.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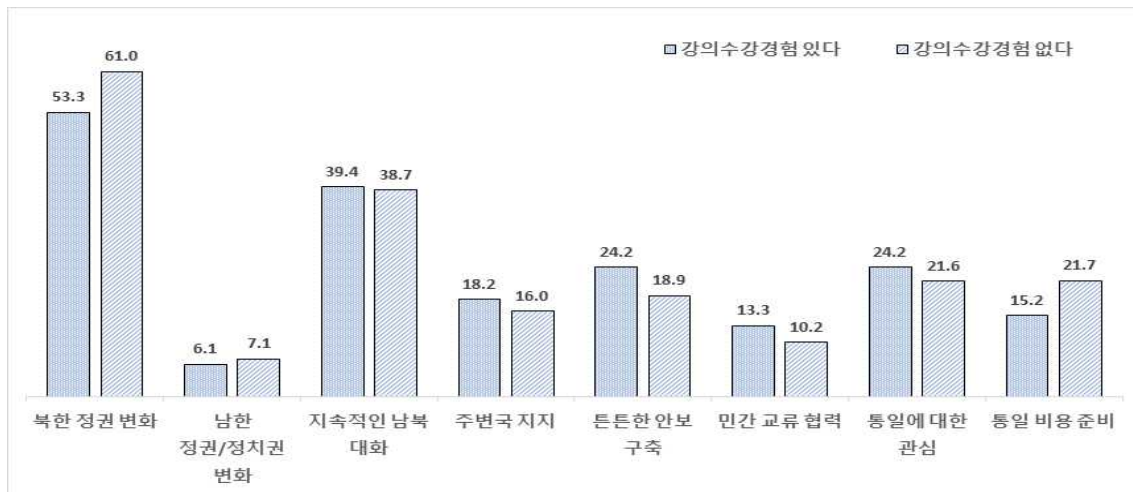
[그림 2-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지속적인 남북대화’, ‘통일에 대한 관심’, ‘튼튼한 안보 구축’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 수강 경험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음

[표 2-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있다	53.3	6.1	39.4	18.2	24.2	13.3	24.2	15.2
없다	61.0	7.1	38.7	16.0	18.9	10.2	21.6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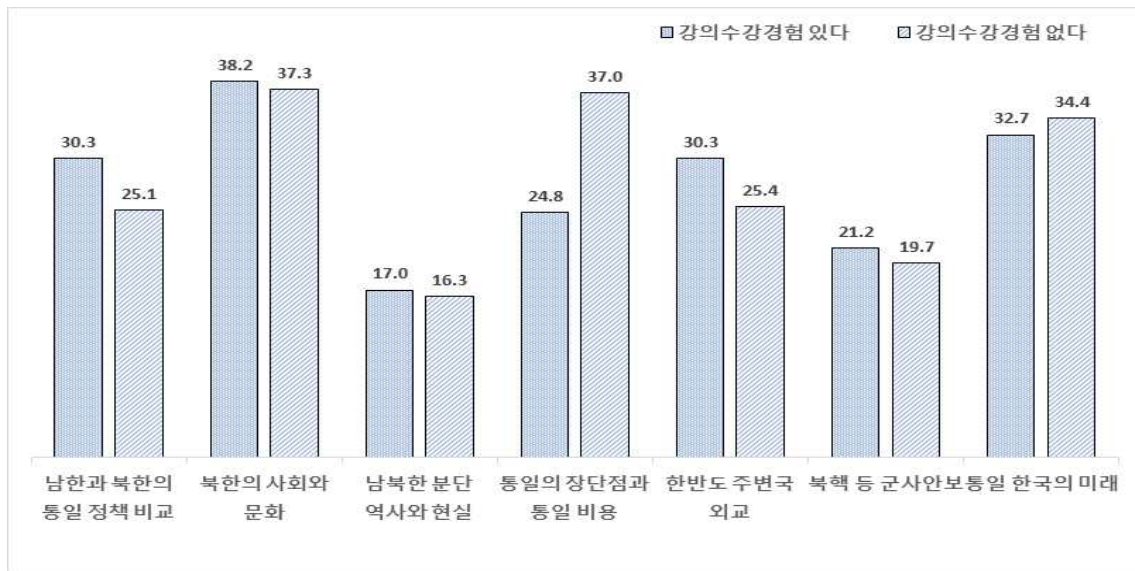
[그림 2-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의 희망하는 2순위 교육 내용은 ‘통일 한국의 미래(32.7%)’임. 반면, 수강 경험이 없는 그룹이 희망하는 2순위 교육 내용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37.0%)’임. 즉, 수강 여부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 내용에 있어 약간의 선호차이가 있음

[표 2-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있다	30.3	38.2	17.0	24.8	30.3	21.2	32.7
없다	25.1	37.3	16.3	37.0	25.4	19.7	34.4



[그림 2-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2. 1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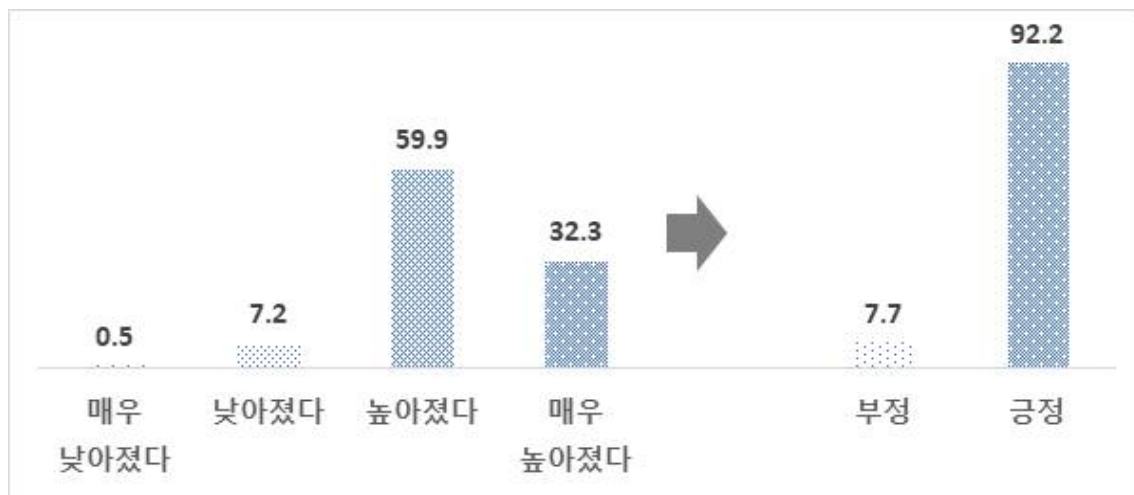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 “귀하는 수강 이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59.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92.3%로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7.7% 보다 매우 높음. 즉, 통일 강좌 수강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음. 이는 앞서 설정한 사업성과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	부정	긍정	평균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996 (100.0)	5 (0.5)	72 (7.2)	597 (59.9)	322 (32.3)		77 (7.7)	919 (92.3)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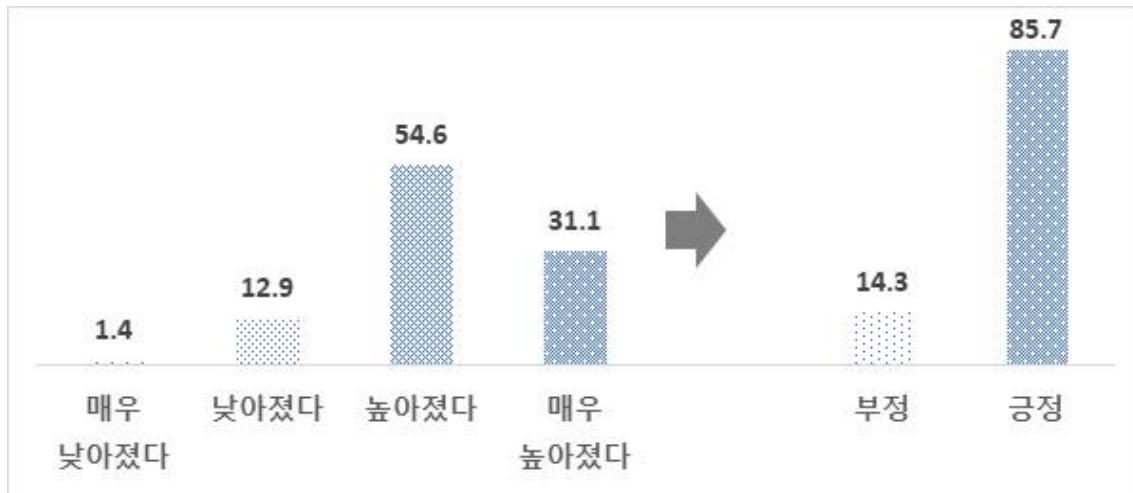


[그림 2-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54.6%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85.7%로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14.3% 보다 매우 높음. 즉, 통일 강좌 수강은 대부분의 학생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 제고의 기회가 됨.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좌가 추구하는 목표 실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2-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996 (100.0)	14 (1.4)	128 (12.9)	544 (54.6)	310 (31.1)	→	142 (14.3)	854 (85.7)	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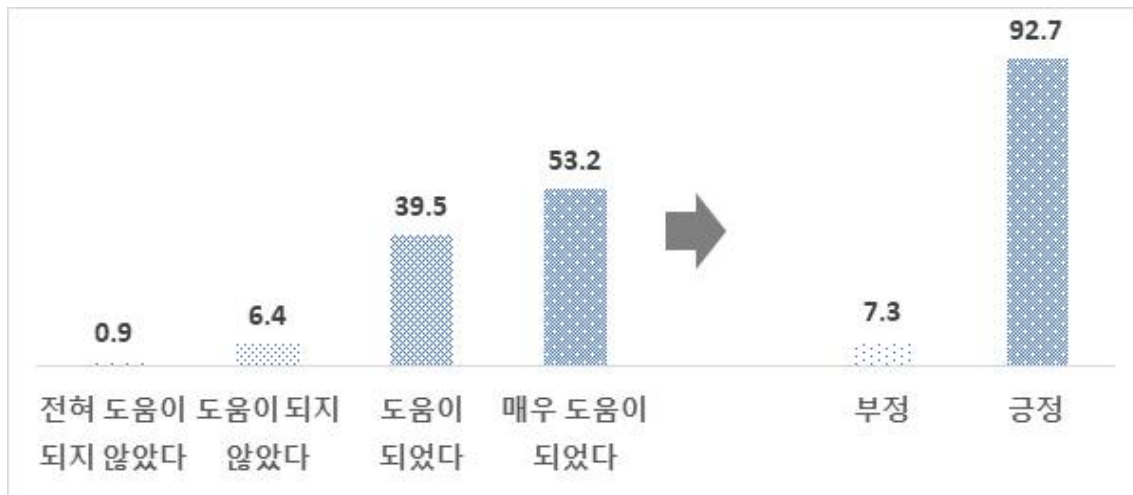


[그림 2-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귀하에게 이 강좌는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3.2%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92.7%로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7.3% 보다 매우 높음. 즉, 통일 강좌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에 있어 효용성을 느낌.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3.45점)를 보임. 이는 사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정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정책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996 (100.0)	9 (0.9)	64 (6.4)	393 (39.5)	530 (53.2)	→	73 (7.3)	923 (92.7)	3.45



[그림 2-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 이처럼 1학기 사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①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③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3가지 만족도 평가 항목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을 함. 즉,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정보 획득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앞서 설정한 사업성과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임

② 북한에 대한 이미지

□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4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1.6%,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8.3%,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0.3%,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5.6% 순임

[표 2-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56	5.6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03	10.3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15	21.6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82	18.3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440	44.2
전체	996	100.0



[그림 2-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 정권의 적대적 태도’가 4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1.4%,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1.3%,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 8.8%,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8.4%, ‘남한 정권의 적대적 대응’ 4.6% 순임

[표 2-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적대적 태도	452	45.4
남한 정권의 적대적 대응	46	4.6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13	11.3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13	21.4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88	8.8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84	8.4
전체	996	100.0



[그림 2-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합 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변화’가 57.7%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 44.1%, ‘통일에 대한 관심’ 27.4%, ‘튼튼한 안보 구축’ 18.8%, ‘주변국지지’ 16.3%, ‘통일비용준비’ 12.9%, ‘민간 교류협력’ 11.0%, ‘남한정권/정치권 변화’ 9.6% 순임

[표 2-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 변화	575	57.7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96	9.6
지속적인 남북 대화	439	44.1
주변국 지지	162	16.3
튼튼한 안보 구축	187	18.8
민간 교류 협력	110	11.0
통일에 대한 관심	273	27.4
통일 비용 준비	128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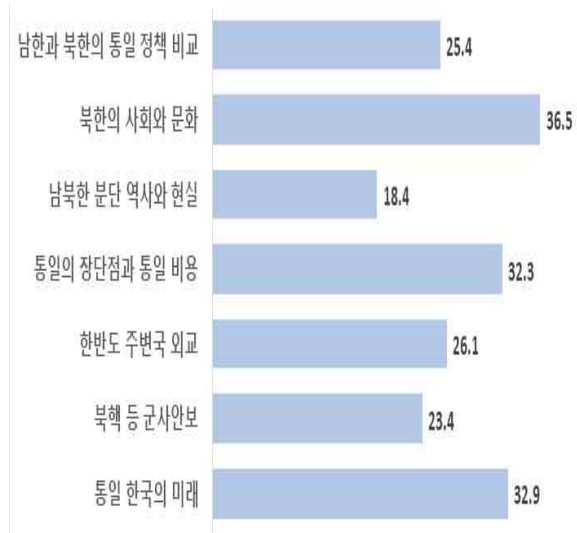
[그림 2-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⑤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에 대한 중복응답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36.5%로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32.9%,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2.3%, ‘한반도 주변국 외교’ 26.1%,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4%, ‘북핵 등 군사 안보’ 23.4%,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8.4% 순임

[표 2-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3	25.4
북한의 사회와 문화	364	36.5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83	18.4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22	32.3
한반도 주변국 외교	260	26.1
북핵 등 군사안보	233	23.4
통일 한국의 미래	328	32.9



[그림 2-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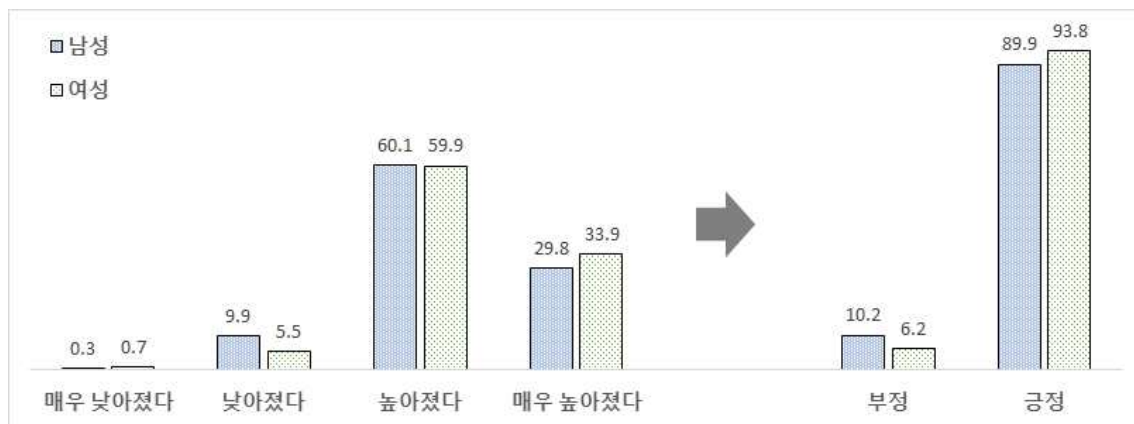
2) 성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다’가 각각 60.1%, 59.9%로 가장 높음. 평균점수의 경우 여성 3.27점, 남성 3.19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이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강의 수강 이후에는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3	9.9	60.1	29.8	→	10.2	89.9	3.19
여성	100.0	0.7	5.5	59.9	33.9		6.2	93.8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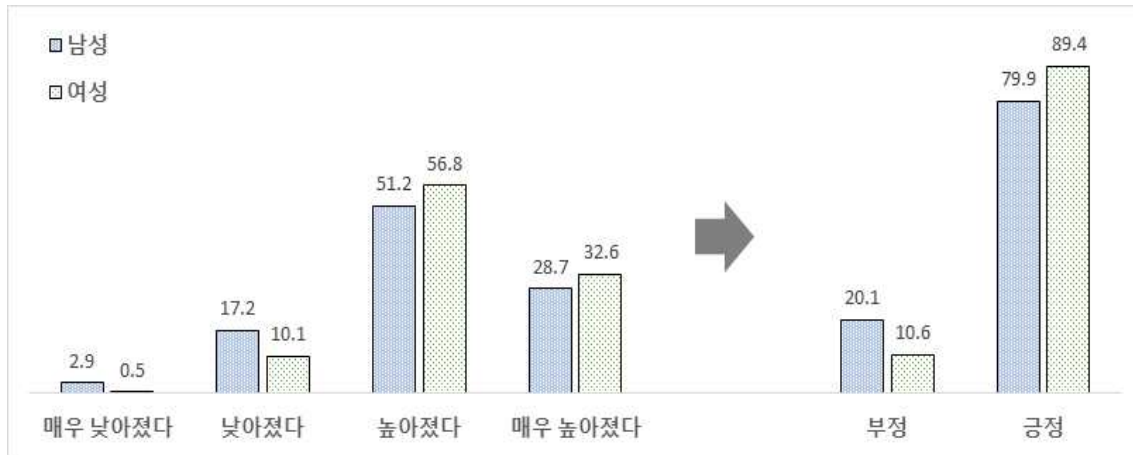


[그림 2-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다’가 각각 51.2%, 56.8%로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여성이 3.22점으로 남성 3.06점 보다 더 높음. 사전 설문조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강의 이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또한 남성에 비해 큼

[표 2-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2.9	17.2	51.2	28.7	→	20.1	79.9	3.06
여성	100.0	0.5	10.1	56.8	32.6		10.6	89.4	3.22



[그림 2-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각각 47.3%, 56.9%로 가장 높음. 이는 성별 관계없이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을 통해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평균 점수의 경우 여성이 3.51점으로 남성 3.35점 보다 높음

[표 2-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8	8.9	42.0	47.3	→	10.7	89.3	3.35
여성	100.0	0.3	4.9	37.8	56.9		5.2	94.7	3.51



[그림 2-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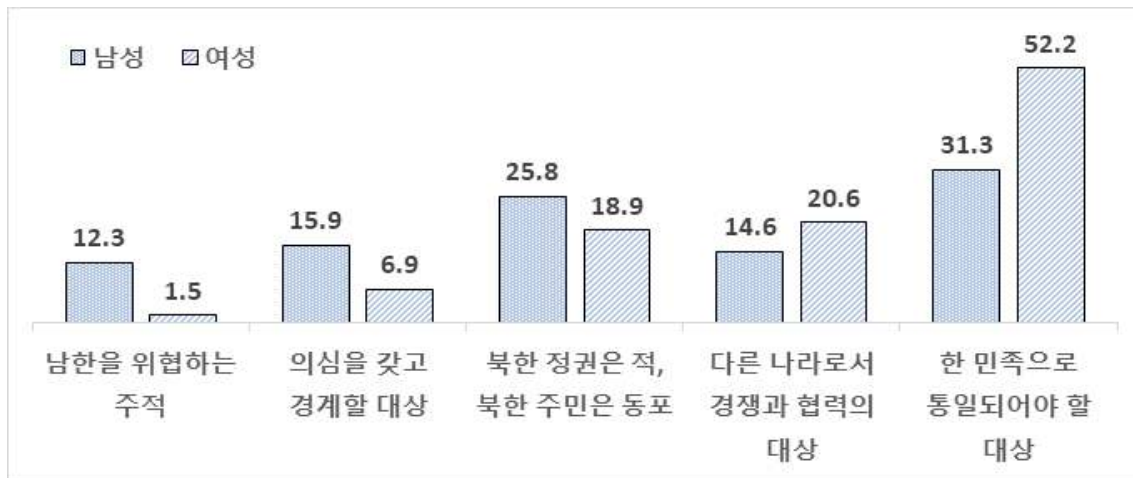
- 성별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음. 이를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②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를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사후 설문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각각 31.3%, 52.2%로 가장 높음. 이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분석했었던 ‘수강 경험에 따른 북한 이미지’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임

[표 2-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12.3	15.9	25.8	14.6	31.3
여성	100.0	1.5	6.9	18.9	20.6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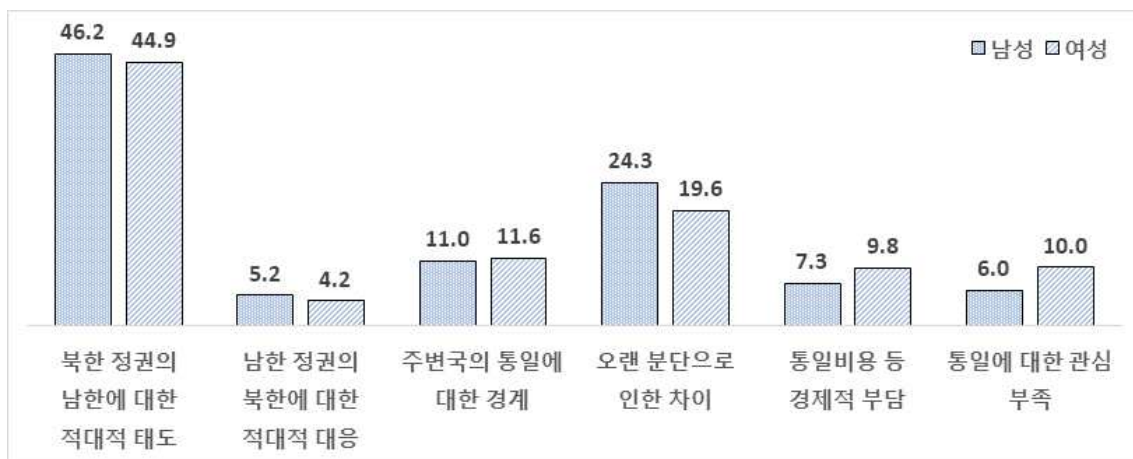
[그림 2-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전 설문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후 설문조사에서도 남녀 모두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각각 46.2%, 44.9%로 가장 높음. 이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음을 의미함

[표 2-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46.2	5.2	11.0	24.3	7.3	6.0
여성	100.0	44.9	4.2	11.6	19.6	9.8	10.0



[그림 2-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사전 설문조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후 설문조사에서도 남녀 모두 ‘북한 정권 변화’가 59.0%, 56.9%로 가장 높음. 이는 교육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들 다수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있어 북한정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인식함을 보여줌

[표 2-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남성	59.0	13.3	35.8	17.5	20.6	12.0	25.1	12.3
여성	56.9	7.3	49.3	15.5	17.6	10.4	28.9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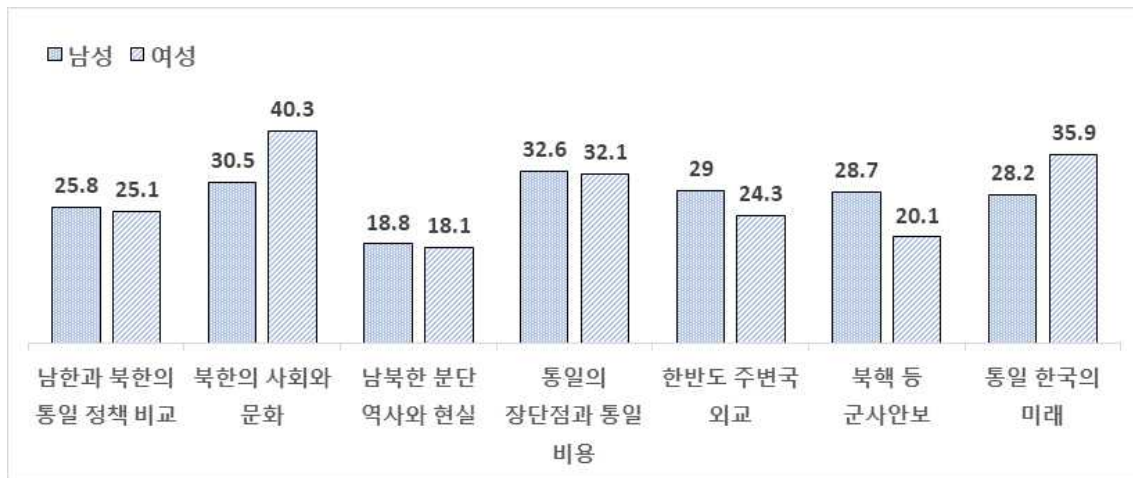
[그림 2-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2.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40.3%로 가장 높음

[표 2-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25.8	30.5	18.8	32.6	29.0	28.7	28.2
여성	25.1	40.3	18.1	32.1	24.3	20.1	35.9



[그림 2-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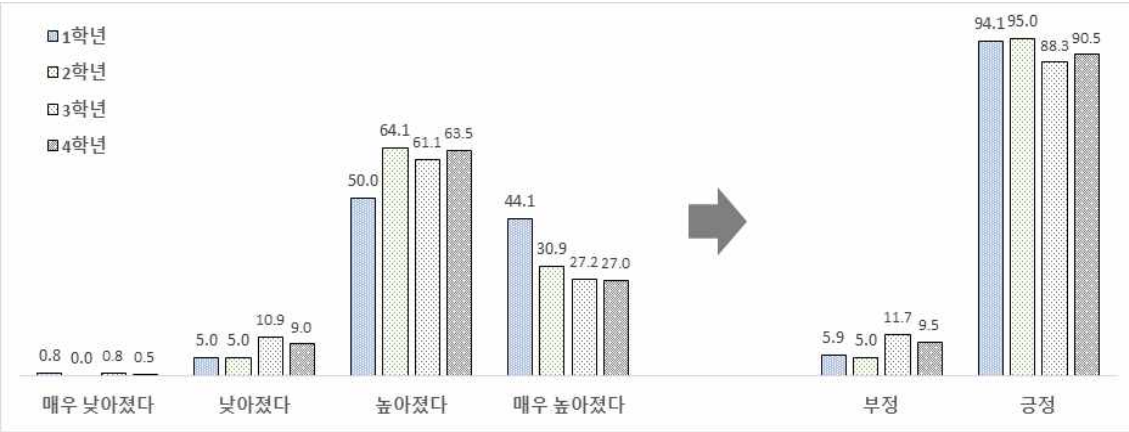
3) 학년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²⁾

① 학년별 통일 및 북한강좌 만족도

-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 졌다’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부정 비율(낮아 졌다 + 매우 낮아졌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다만, 3학년은 ‘부정 비율’이 11.7%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8	5.0	50.0	44.1	5.9	94.1	3.37
2학년	100.0	0.0	5.0	64.1	30.9	5.0	95.0	3.26
3학년	100.0	0.8	10.9	61.1	27.2	11.7	88.3	3.15
4학년	100.0	0.5	9.0	63.5	27.0	9.5	90.5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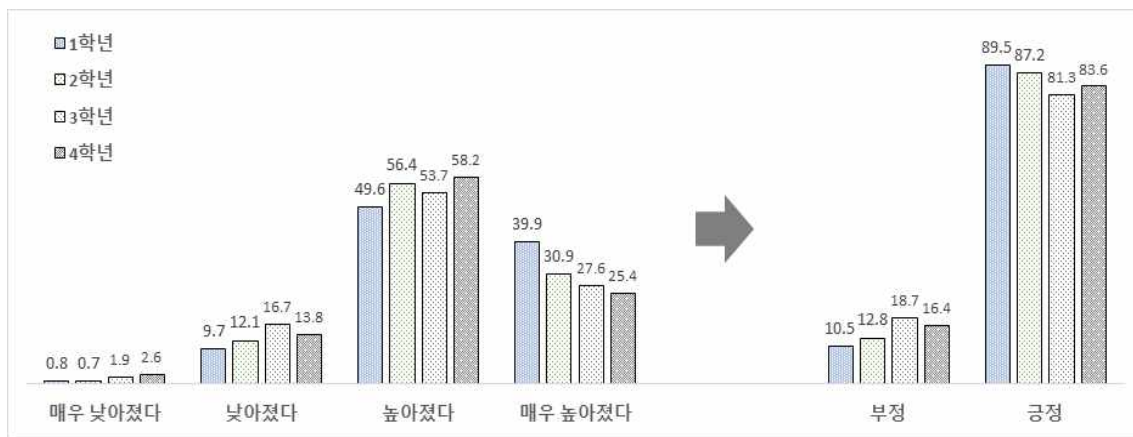
[그림 2-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 졌다’가 가장 높음.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은 1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3학년에서 가장 낮음

2)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2-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8	9.7	49.6	39.9	→	10.5	89.5	3.29
2학년	100.0	0.7	12.1	56.4	30.9		12.8	87.2	3.17
3학년	100.0	1.9	16.7	53.7	27.6		18.7	81.3	3.07
4학년	100.0	2.6	13.8	58.2	25.4		16.4	83.6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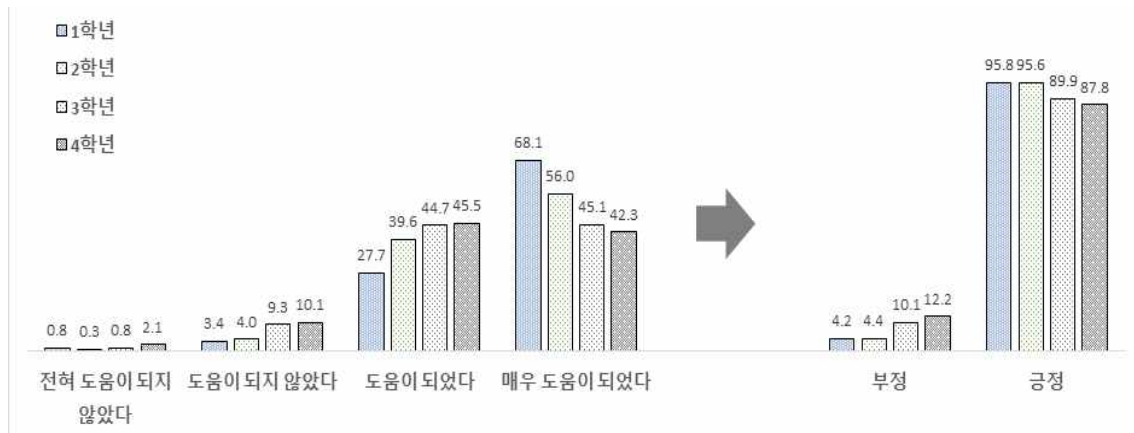


[그림 2-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살펴보면,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남. 4학년은 ‘도움이 되었다’가 45.5%로 가장 높음.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은 학년이 높아 질수록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사전 설문분석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있음. 즉, 수강 전 통일 및 북한에 인지도가 낮을수록 수업을 통한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을 크게 경험함

[표 2-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8	3.4	27.7	68.1	→	4.2	95.8	3.63
2학년	100.0	0.3	4.0	39.6	56.0		4.4	95.6	3.51
3학년	100.0	0.8	9.3	44.7	45.1		10.1	89.9	3.34
4학년	100.0	2.1	10.1	45.5	42.3		12.2	87.8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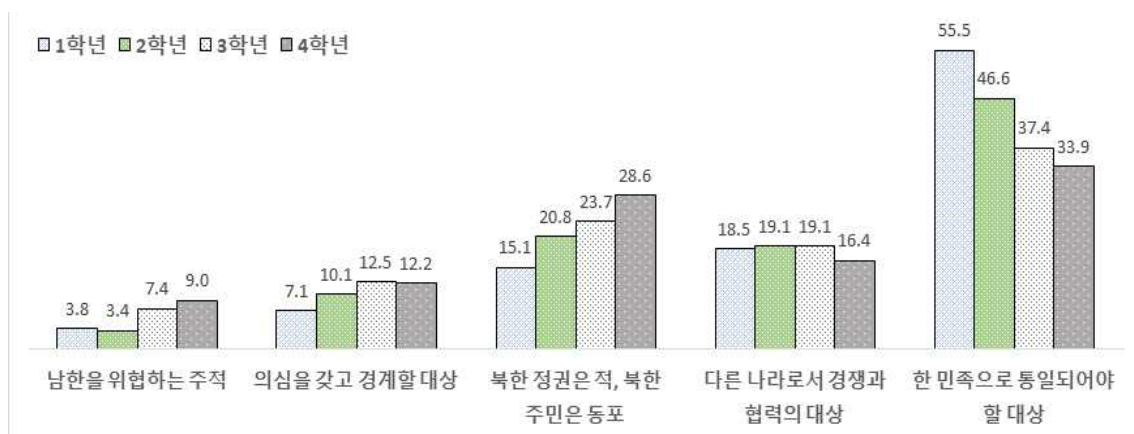
[그림 2-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②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사전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 학년에서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1학년 55.5%, 2학년 46.6%, 3학년 37.4%, 4학년 33.9%로 전 학년에서 가장 높음. 반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은 소폭 감소하여, 1학년 3.8%, 2학년 3.4%, 3학년 7.4%, 4학년 9.0%로 전 학년에서 가장 낮음

[표 2-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3.8	7.1	15.1	18.5	55.5
2학년	100.0	3.4	10.1	20.8	19.1	46.6
3학년	100.0	7.4	12.5	23.7	19.1	37.4
4학년	100.0	9.0	12.2	28.6	16.4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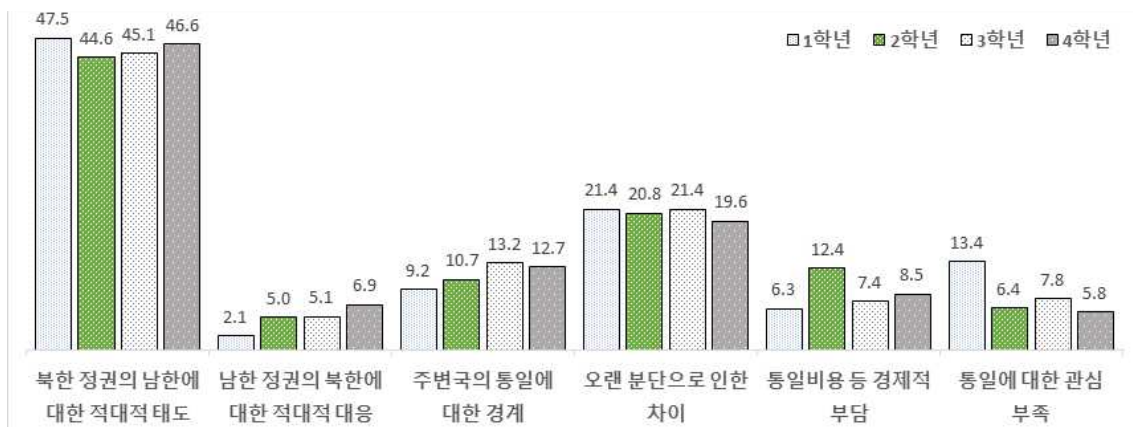
[그림 2-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사전 분석과 동일하게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가장 높음. 반면,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은 전 학년에서 가장 낮음.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좌 수강에 따라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

[표 2-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47.5	2.1	9.2	21.4	6.3	13.4
2학년	100.0	44.6	5.0	10.7	20.8	12.4	6.4
3학년	100.0	45.1	5.1	13.2	21.4	7.4	7.8
4학년	100.0	46.6	5.8	12.7	19.6	8.5	6.9



[그림 2-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사전 설문분석과 동일하게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2-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1학년	53.8	6.7	50.0	16.8	16.4	12.2	30.3	12.2
2학년	60.7	9.7	44.0	15.8	17.1	10.4	28.9	11.4
3학년	58.0	11.7	41.6	17.9	21.8	9.7	23.7	13.2
4학년	60.8	9.5	39.7	15.3	20.6	10.6	24.3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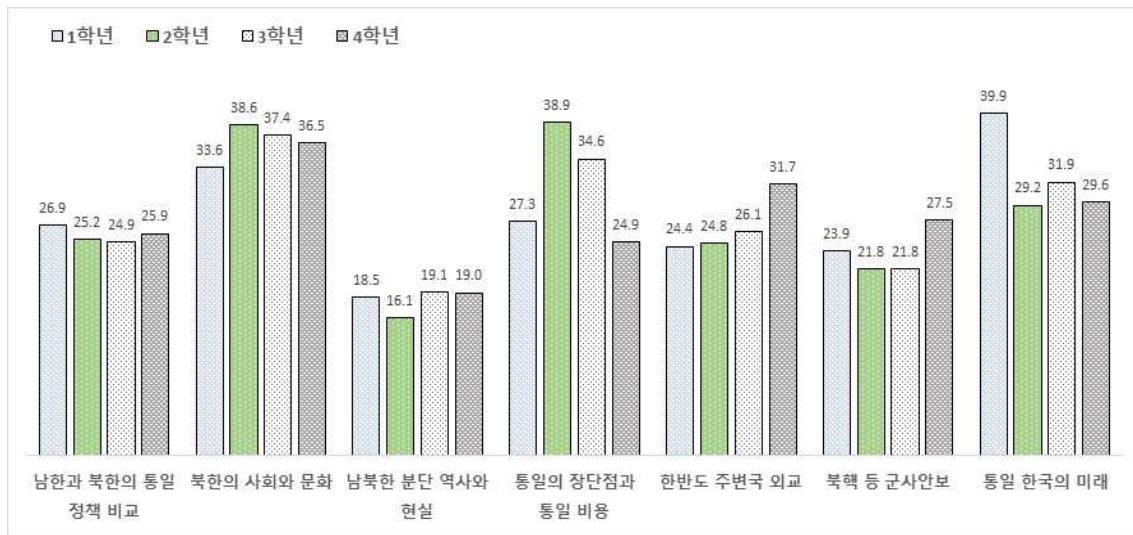
[그림 2-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1학년은 ‘통일 한국의 미래’가 39.9%로 가장 높았고, 2학년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8.9%로 가장 높음. 3학년과 4학년은 ‘북한 사회와 문화’가 37.4%, 36.5%로 가장 높음

[표 2-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26.9	33.6	18.5	27.3	24.4	23.9	39.9
2학년	25.2	38.6	16.1	38.9	24.8	21.8	29.2
3학년	24.9	37.4	19.1	34.6	26.1	21.8	31.9
4학년	25.9	36.5	19.0	24.9	31.7	27.5	29.6



[그림 2-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4) 1학기 통일 강좌 사전/사후 설문조사 비교

①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사전, 사후 비교 분석해본 결과, 통일 및 북한 강좌를 수강한 후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은 증가함. 특히,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은 크게 증가함

[표 2-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 (B-A)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8.4	5.6	▼ 2.8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7.4	10.3	▼ 7.1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30.9	21.6	▼ 9.3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4.6	18.3	△ 3.7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28.7	44.2	△ 15.5



[그림 2-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②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 북한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와 달리, 남북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사전, 사후 큰 변화가 없음.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사전, 사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통일 및 북한 강의를 수강한 이후 오히려 5.9% 증가함

[표 2-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B-A)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39.5	45.4	△ 5.9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0	4.6	▼ 0.4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4	11.3	▼ 2.7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2.3	21.4	▼ 0.9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2.5	8.8	▼ 3.7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6.6	8.4	△ 1.8



[그림 2-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③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도 사전, 사후 큰 변화가 없음. ‘북한 정권 변화’가 사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사전 59.8%, 사후 57.7%로 가장 높음. 이외 ‘지속적인 남북대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B-A)
북한 정권 변화	59.8	57.7	▼ 2.1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6.9	9.6	△ 2.7
지속적인 남북 대화	38.8	44.1	△ 5.3
주변국 지지	16.3	16.3	=
튼튼한 안보 구축	19.7	18.8	△ 0.9
민간 교류 협력	10.7	11.0	△ 0.3
통일에 대한 관심	22.0	27.4	△ 5.4
통일 비용 준비	20.7	12.9	▼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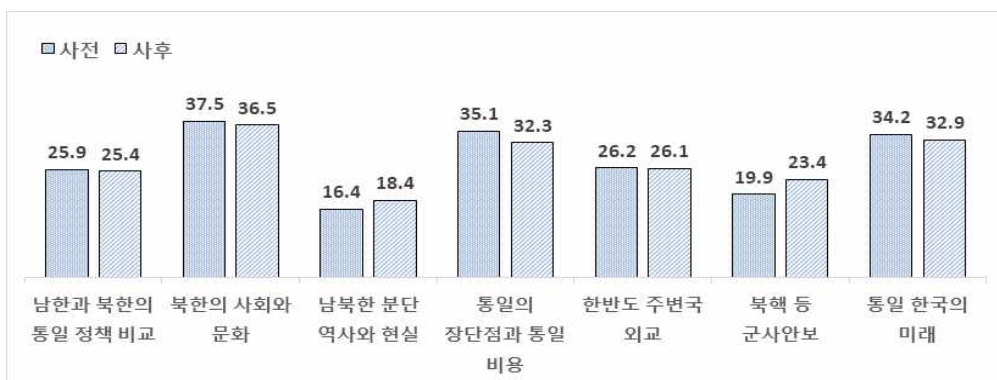
[그림 2-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④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도 사전, 사후 큰 변화 없음. ‘북한 사회와 문화’가 사전 37.5%, 사후 3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 ‘통일 한국의 미래’가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B-A)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9	25.4	▼ 0.5
북한의 사회와 문화	37.5	36.5	▼ 1.0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6.4	18.4	△ 2.0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5.1	32.3	▼ 2.8
한반도 주변국 외교	26.2	26.1	▼ 0.1
북핵 등 군사안보	19.9	23.4	△ 3.5
통일 한국의 미래	34.2	32.9	▼ 1.3



[그림 2-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3. 1학기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8.7%, 여성이 61.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표 2-61]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660	38.7
여성	1,044	61.3
전체	1,7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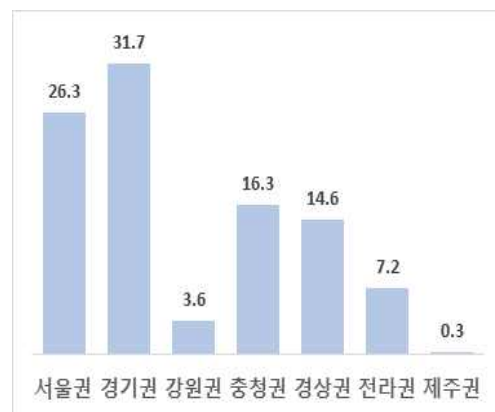


[그림 3-61]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권이 3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권 26.3%, 충청권 16.3%, 경상권 14.6% 순임

[표 2-62]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448	26.3
경기권	540	31.7
강원권	62	3.6
충청권	277	16.3
경상권	249	14.6
전라권	123	7.2
제주권	5	0.3
전체	1,704	100.0



[그림 2-62]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이 1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대 15.6%, 공과대 13.8%, 경상대 13.4%, 사범대 11.8% 순임

[표 2-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266	15.6
사회과학대	300	17.6
경상대	228	13.4
자연대	128	7.5
공과대	235	13.8
농과대	12	0.7
예술대	138	8.1
의약간호대	135	7.9
사범대	201	11.8
법과대	6	0.4
생활과학대	55	3.2
전체	1,7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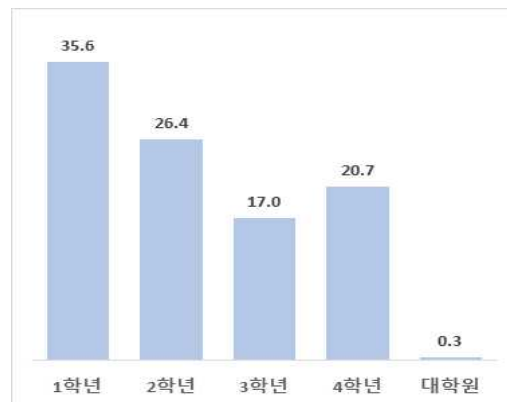


[그림 2-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이 3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학년 26.4%, 4학년 20.7%, 3학년 17.0%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6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64]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606	35.6
2학년	450	26.4
3학년	290	17.0
4학년	353	20.7
대학원	5	0.3
전체	1,7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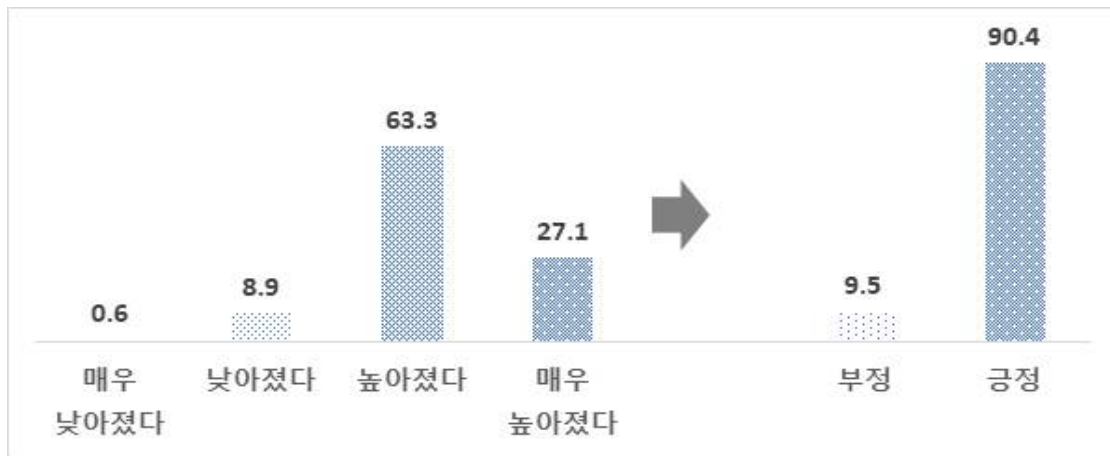
[그림 2-64]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63.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의 비율이 90.4%로 ‘부정 비율(낮아 졌다 + 매우 낮아 졌다)’ 9.5% 보다 매우 높음. 즉 특강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이뤄짐

[표 2-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704 (100.0)	11 (0.6)	152 (8.9)	1,079 (63.3)	462 (27.1)		163 (9.5)	1,541 (90.4)	3.17



[그림 2-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③ 북한에 대한 이미지

- “귀하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42.5%로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2.0%,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6.6%, ‘의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대상’ 13.2%,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5.7% 순임. 특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실시한 설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강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음

[표 2-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97	5.7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225	13.2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375	22.0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283	16.6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724	42.5
전체	1,7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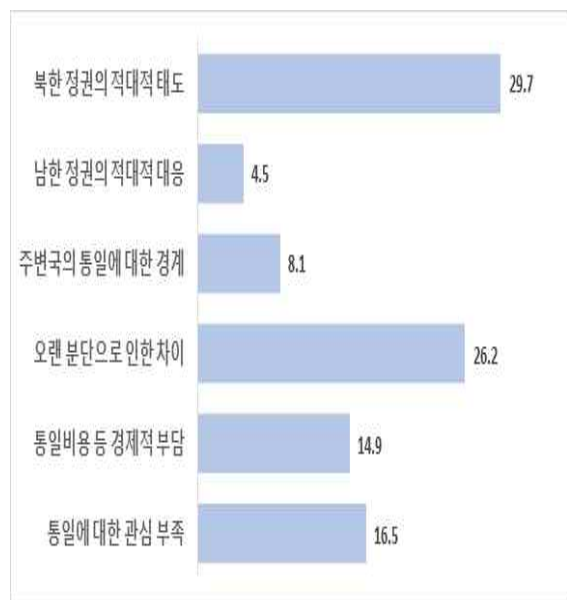
[그림 2-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귀하는 통일 관련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29.7%로 가장 높음.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6.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6.5%,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4.9% 순임

[표 2-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506	29.7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77	4.5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38	8.1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447	26.2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254	14.9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282	16.5
전체	1,7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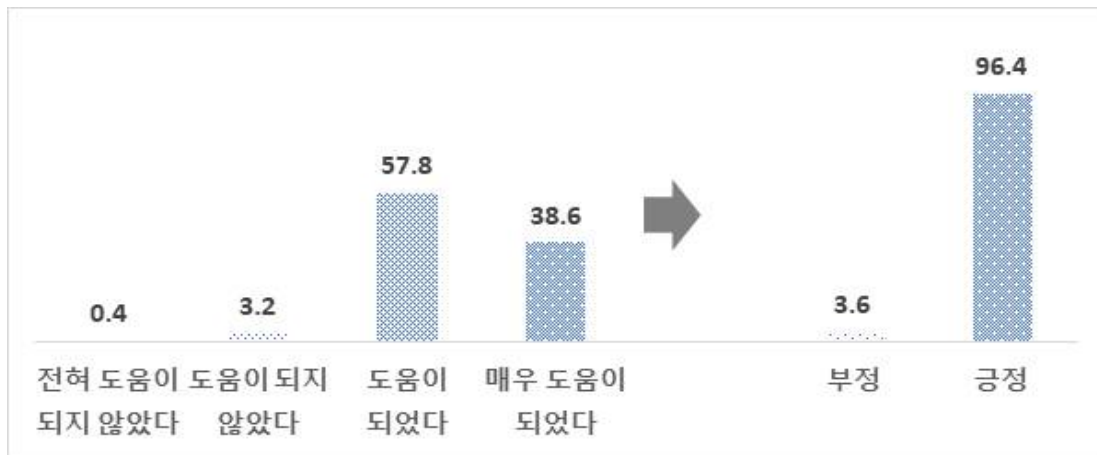
[그림 2-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⑤ 통일 특강 만족도

-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과 북한 사회의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가 57.8%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있다)’이 96.4%로 ‘부정 비율(도움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6% 보다 매우 높음. 이는 그동안 몰랐던 통일과 북한 사회의 이해가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2-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	1,704 (100.0)	7 (0.4)	54 (3.2)	985 (57.8)	658 (38.6)		61 (3.6)	1,643 (96.4)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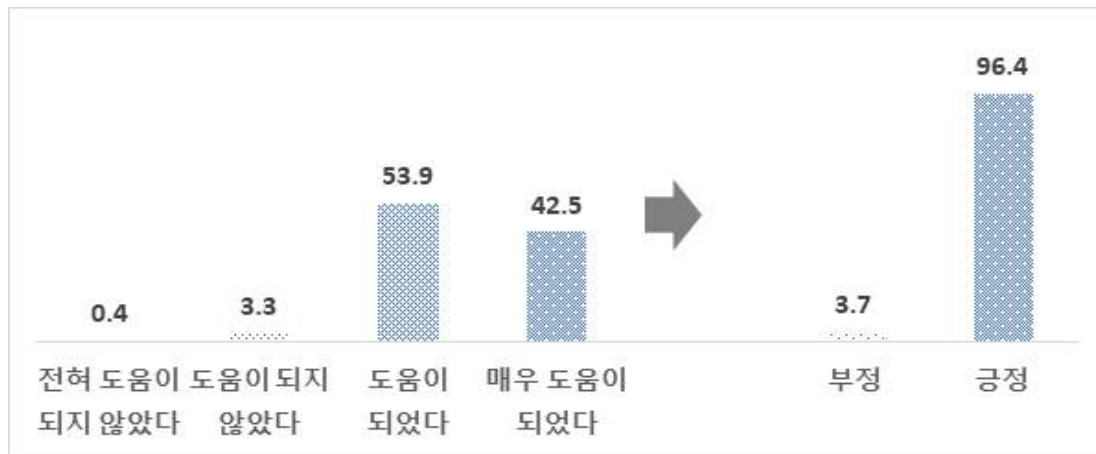


[그림 2-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귀하에게 이 강의는 통일, 북한에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가 53.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있다)’이 96.4%로 ‘부정 비율(도움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7% 보다 매우 높음. 이는 정보전달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이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2-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지식과 정보 획득	1,704 (100.0)	6 (0.4)	56 (3.3)	918 (53.9)	724 (42.5)		62 (3.7)	1,642 (96.4)	3.38



[그림 2-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 북한 관련 강의(학습)에 더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고 싶다’가 60.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참여 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88.7%로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1.3% 보다 매우 높음. 즉, 통일 특강 참여자들의 재참여 의사는 매우 높은 편임

[표 2-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향후 참여 의향	1,704 (100.0)	11 (0.6)	182 (10.7)	1,024 (60.1)	487 (28.6)	193 (11.3)	1,511 (88.7)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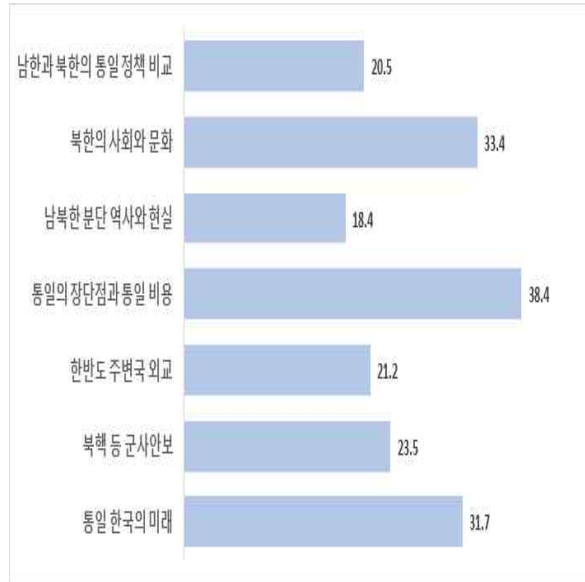
[그림 2-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⑥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 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8.4%로 가장 높음. 이어 ‘북한의 사회와 문화’ 33.4%, ‘통일 한국의 미래’ 31.7%, ‘북핵 등 군사안보’ 23.5%, ‘한반도 주변국 외교’ 21.2%,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0.5% 순임

[표 2-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349	20.5
북한의 사회와 문화	569	33.4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313	18.4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655	38.4
한반도 주변국 외교	361	21.2
북핵 등 군사안보	400	23.5
통일 한국의 미래	541	31.7



[그림 2-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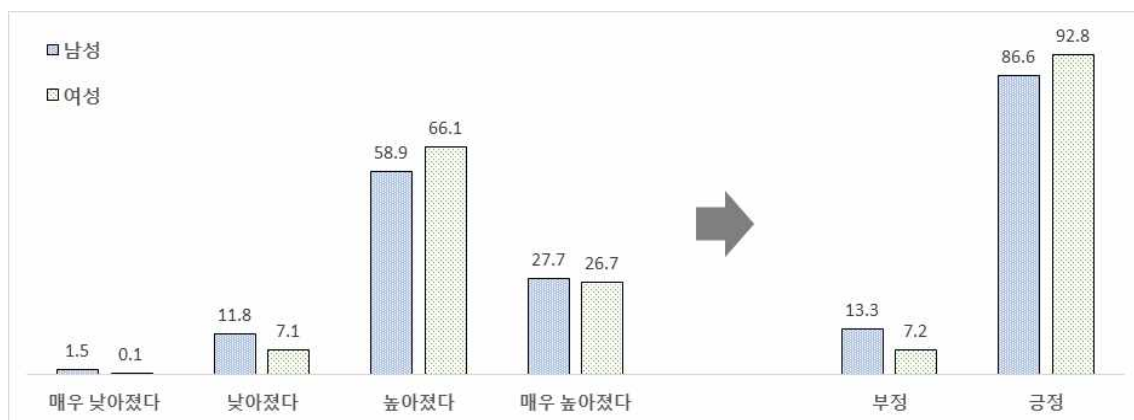
2) 성별 통일 특강 설문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성별 통일 특강 이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다’가 각각 58.9%, 66.1%로 가장 높음.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부정 비율(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통일 특강을 통해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이뤄졌음을 의미함

[표 2-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5	11.8	58.9	27.7	→	13.3	86.6	3.13
여성	100.0	0.1	7.1	66.1	26.7		7.2	92.8	3.19



[그림 2-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②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이 32.4%, 48.9%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이 16.4%,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 12.3%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에 비해 높음.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20.3%로 북한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표 2-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12.3	16.4	28.2	10.8	32.4
여성	100.0	1.5	11.2	18.1	20.3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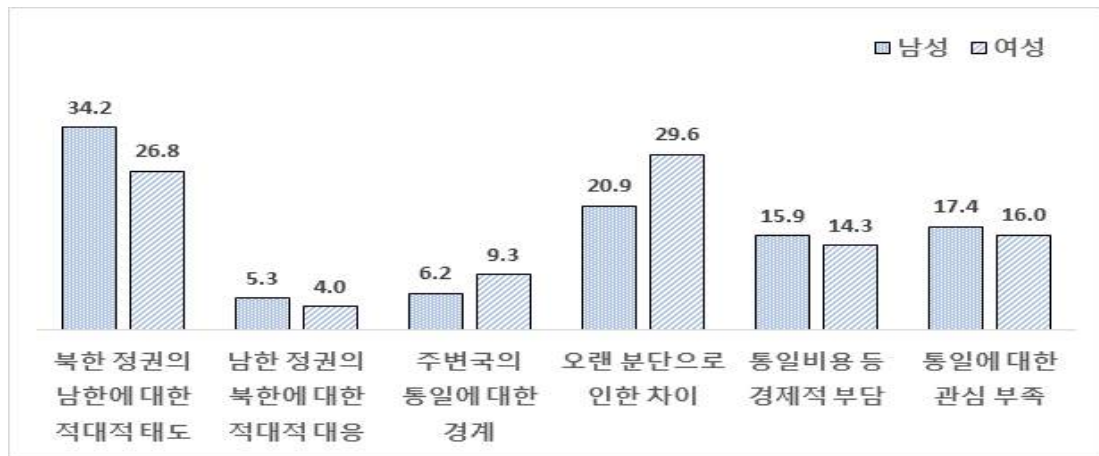
[그림 2-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남성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34.2%로 가장 높음. 여성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29.6%로 가장 높음. 성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34.2	5.3	6.2	20.9	15.9	17.4
여성	100.0	26.8	4.0	9.3	29.6	14.3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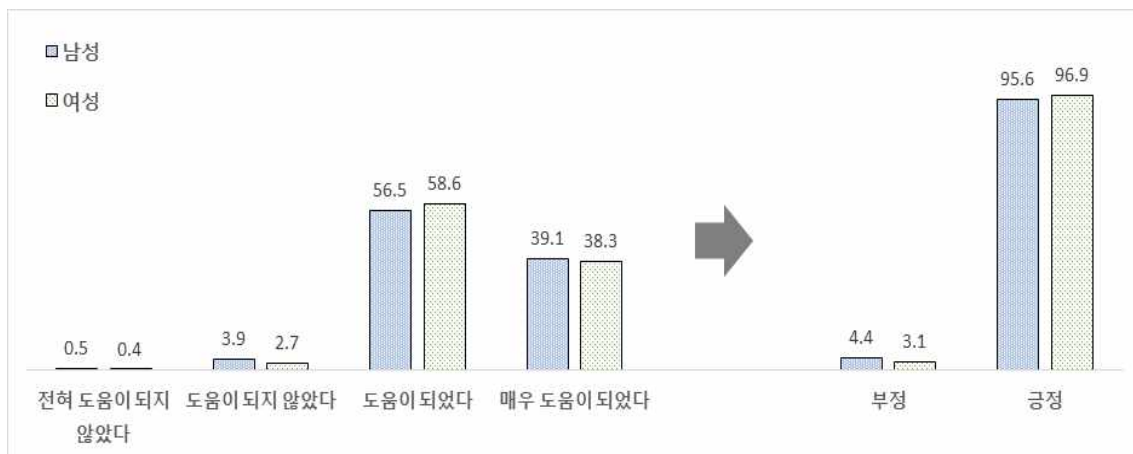
[그림 2-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④ 성별 통일 특강 만족도

-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정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도움이 되었다’가 56.5%, 58.6%로 가장 높음.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에 참여한 학생 모두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함

[표 2-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5	3.9	56.5	39.1		4.4	95.6	3.34
여성	100.0	0.4	2.7	58.6	38.3		3.1	96.9	3.35



[그림 2-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성별 통일 특강을 통한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도움이 되었다’가 52.6%, 54.7%로 가장 높음.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에 참여한 학생 모두 통일과 북한 사회에 지식 및 정보 획득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함

[표 2-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5	3.9	52.6	43.0	→	4.4	95.6	3.38
여성	100.0	0.3	2.9	54.7	42.1		3.2	96.8	3.39



[그림 2-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하고 싶다’가 52.0%, 65.2%로 가장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 비율(참여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보다 매우 높음. 다만, 남성은 부정 비율이 16.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9	15.6	52.0	31.5	16.5	83.5	3.14
여성	100.0	0.5	7.6	65.2	26.7	8.1	91.9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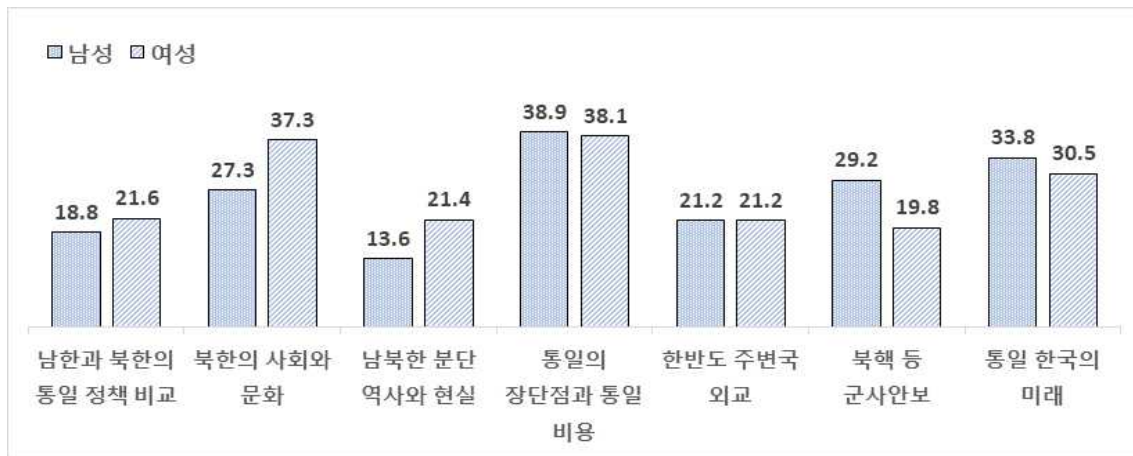
[그림 2-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⑤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8.9%, 38.1로 가장 높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북핵 등 군사안보’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등이 높음

[표 2-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18.8	27.3	13.6	38.9	21.2	29.2	33.8
여성	21.6	37.3	21.4	38.1	21.2	19.8	30.5



[그림 2-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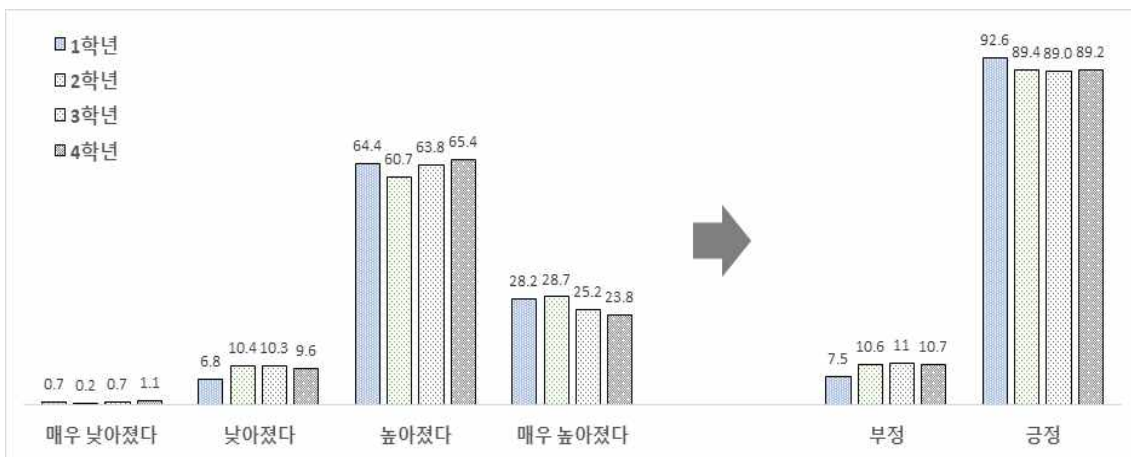
3) 학년별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³⁾

①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학년별 통일 특강 참여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졌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가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보다 매우 높음. 평균점수는 1학년이 3.20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 2학년 3.18점, 3학년 3.14점, 4학년 3.12점 순임

[표 2-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7	6.8	64.4	28.2	7.5	92.6	3.20
2학년	100.0	0.2	10.4	60.7	28.7	10.6	89.4	3.18
3학년	100.0	0.7	10.3	63.8	25.2	11.0	89.0	3.14
4학년	100.0	1.1	9.6	65.4	23.8	10.7	89.2	3.12



[그림 2-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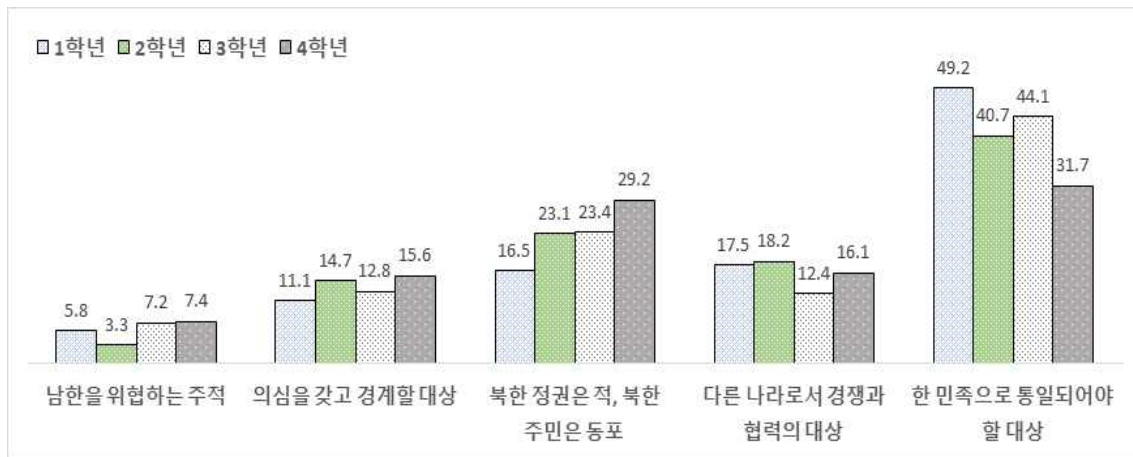
②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3)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2-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5.8	11.1	16.5	17.5	49.2
2학년	100.0	3.3	14.7	23.1	18.2	40.7
3학년	100.0	7.2	12.8	23.4	12.4	44.1
4학년	100.0	7.4	15.6	29.2	16.1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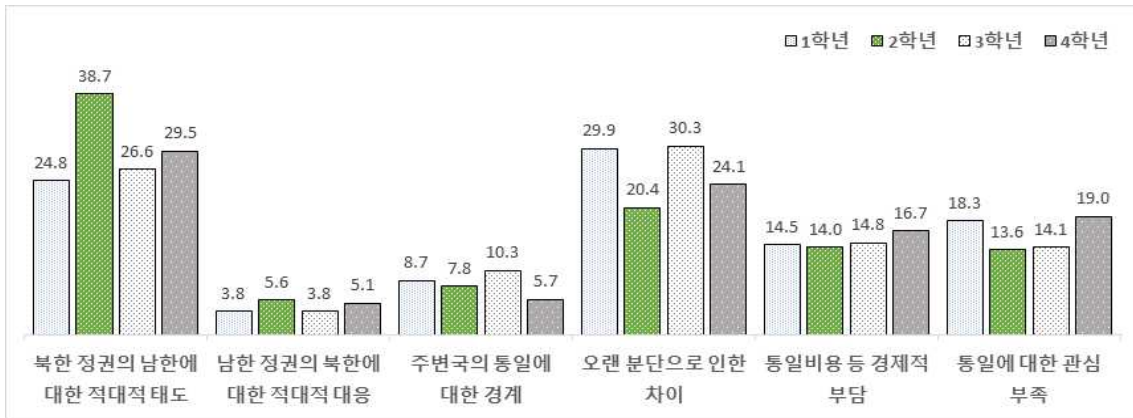
[그림 2-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1학년과 3학년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각각 29.9%, 30.3%로 가장 높았고, 2학년과 4학년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각각 38.7%, 29.5%로 가장 높음

[표 2-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24.8	3.8	8.7	29.9	14.5	18.3
2학년	100.0	38.7	5.6	7.8	20.4	14.0	13.6
3학년	100.0	26.6	3.8	10.3	30.3	14.8	14.1
4학년	100.0	29.5	5.1	5.7	24.1	16.7	19.0



[그림 2-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④ 학년별 통일 특강 만족도

-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정도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학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이 학생들의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2-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8	4.1	57.3	37.8	4.9	95.1	3.32
2학년	100.0	0.2	2.2	56.7	40.9	2.4	97.6	3.38
3학년	100.0	0.3	2.1	53.4	44.1	2.4	97.5	3.41
4학년	100.0	0.0	3.7	64.3	32.0	3.7	96.3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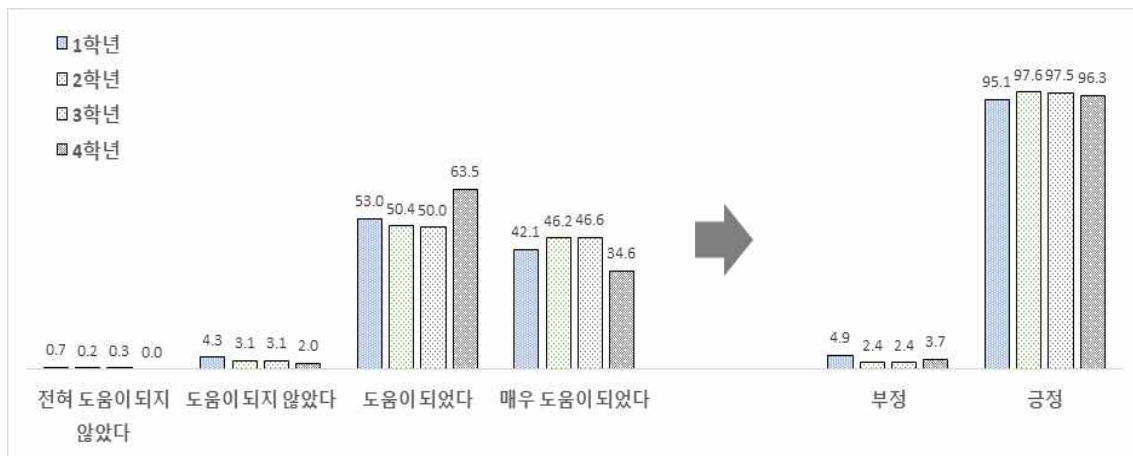


[그림 2-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학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이 학생들의 통일과 북한 사회 관련 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2-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7	4.3	53.0	42.1		5.0	95.1	3.37
2학년	100.0	0.2	3.1	50.4	46.2		3.3	96.6	3.42
3학년	100.0	0.3	3.1	50.0	46.6		3.4	96.6	3.43
4학년	100.0	0.0	2.0	63.5	34.6		2.0	98.1	3.33



[그림 2-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참여하고 싶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참여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다 매우 높음. 이는 학년과 관계없이 참여자들 대부분이 통일 특강 재참여 의사가 있음을 시사함

[표 2-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2	6.6	65.2	28.1	→	6.8	93.3	3.21
2학년	100.0	0.7	12.9	55.8	30.7		13.6	86.5	3.17
3학년	100.0	1.0	10.3	53.1	35.5		11.3	88.6	3.23
4학년	100.0	1.1	14.7	63.5	20.7		15.8	84.2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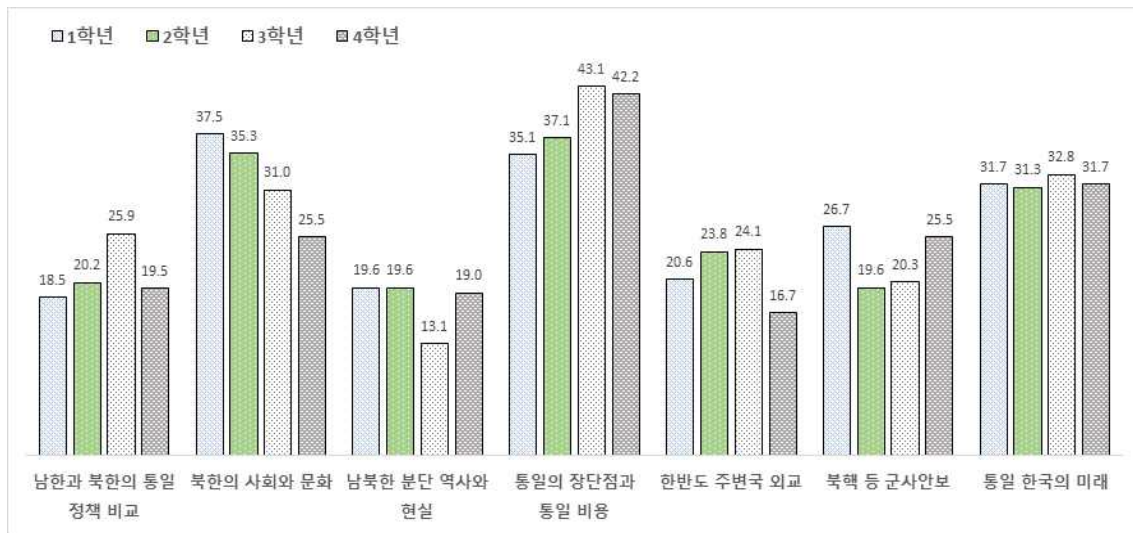
[그림 2-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⑤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전 학년에서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18.5	37.5	19.6	35.1	20.6	26.7	31.7
2학년	20.2	35.3	19.6	37.1	23.8	19.6	31.3
3학년	25.9	31.0	13.1	43.1	24.1	20.3	32.8
4학년	19.5	25.5	19.0	42.2	16.7	25.5	31.7



[그림 2-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4. 1학기 현장체험학습 사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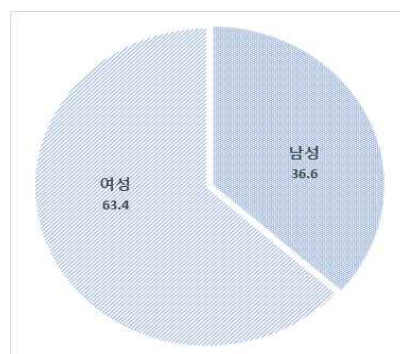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36.6%, 여성이 63.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표 2-86]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37	36.6
여성	64	63.4
전체	101	100.0



[그림 2-86]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권이 2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권 25.7%, 서울권 24.8%, 충청권 11.9%, 전라권 7.9%, 강원권 3.0% 순임. 이는 조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2-87]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25	24.8
경기권	27	26.7
강원권	3	3.0
충청권	12	11.9
경상권	26	25.7
전라권	8	7.9
전체	101	100.0



[그림 2-87]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이 3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범대 12.9%, 인문대, 경상대, 자연대 각각 10.9%, 예술대, 의약간호대 각각 5.9%, 농과대, 생활과학대학 각각 1.0% 순임

[표 2-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11	10.9
사회과학대	39	38.6
경상대	11	10.9
자연대	11	10.9
공과대	3	3.0
농과대	1	1.0
예술대	5	5.0
의약간호대	6	5.9
사범대	13	12.9
생활과학대	1	1.0
전체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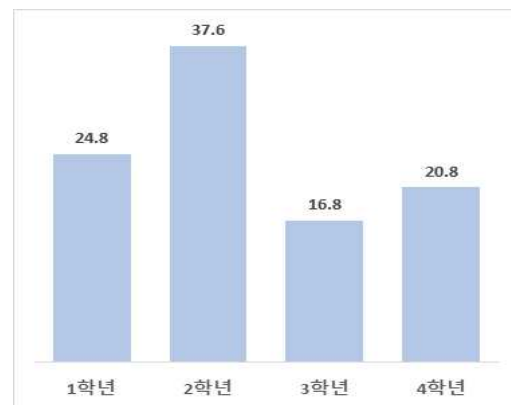


[그림 2-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2학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1학년 24.8%, 4학년 20.8%, 3학년 16.8%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62.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2-89]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25	24.8
2학년	38	37.6
3학년	17	16.8
4학년	21	20.8
전체	10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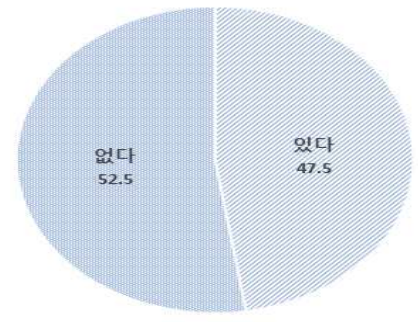
[그림 2-89]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귀하는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참여(수강)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47.5%, ‘없다’ 52.5%로 통일 및 북한 강좌나, 특강의 참여자들에 비해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많음

[표 2-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빈도(명)	%
있다	48	47.5
없다	53	52.5
전체	101	100.0



[그림 2-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③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이번 현장학습이 귀하의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6.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이 97.0%로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0% 보다 매우 높음. 참여자들 대부분이 현장학습이 통일 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표 2-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통일문제와 북한 이해 도움정도	101 (100.0)	0(0)	3 (3.0)	41 (40.6)	57 (56.4)	3 (3.0)	98 (97.0)	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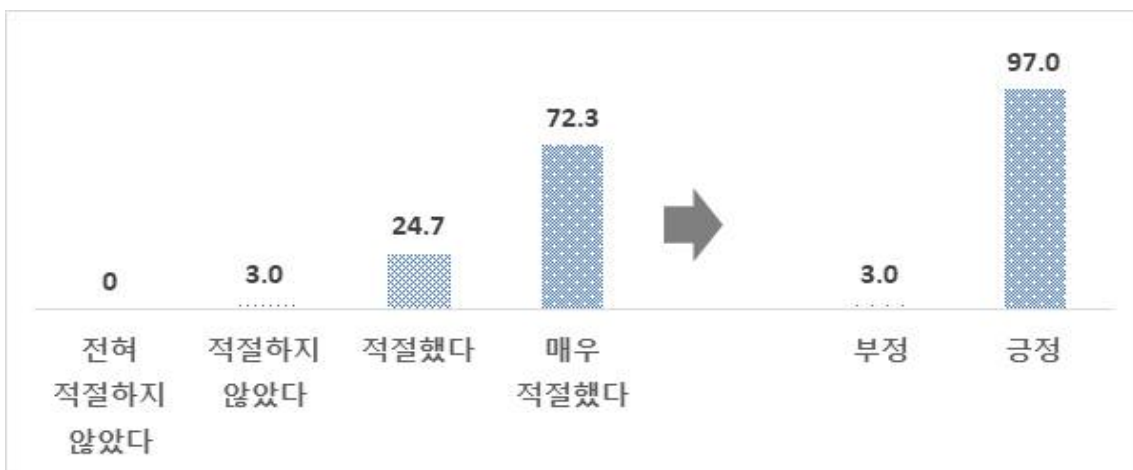
[그림 2-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④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장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적절했다’가 72.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의 비율이 97.0%로 ‘부정 비율(적절하지 않았다 +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3.0% 보다 매우 높음. 즉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의 장소가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2-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구분	전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부정	긍정	평균
장소의 적절성	101 (100.0)	0 (0.0)	3 (3.0)	25 (24.7)	73 (72.3)	3 (3.0)	98 (97.0)	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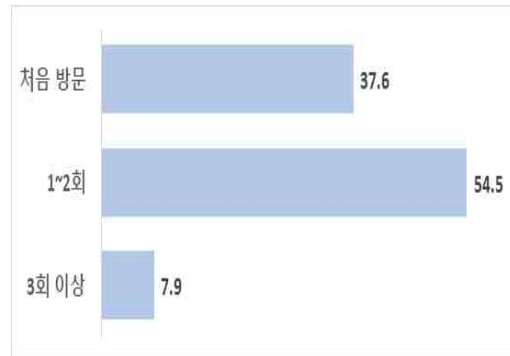
[그림 2-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⑤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 “통일, 북한 관련 장소를 앞서 방문했던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1~2회 방문’이 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처음 방문’이 37.6%, ‘3회 이상’이 7.9% 순임. 현장 학습의 경우 이전에 현장 학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재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

[표 2-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구분	빈도(명)	%
처음 방문	38	37.6
1~2회	55	54.5
3회 이상	8	7.9
전체	101	100.0



[그림 2-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⑥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65.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추천하고 싶다 + 매우 추천하고 싶다)’의 비율이 97.0%로 ‘부정 비율(추천할 생각 없다 +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3.0% 보다 매우 높음. 이는 앞선 현장 체험 학습의 높은 만족도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2-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	부정	긍정	평균
추천의향	101 (100.0)	0 (0.0)	3 (3.0)	32 (31.7)	66 (65.3)		3 (3.0)	98 (97.0)	3.62



[그림 2-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⑦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 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 체험 학습’이 6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39.6%, ‘전문가 대면 특강’ 32.7%, ‘영화 혹은 드라마’ 24.8%, ‘사이버 강의’ 7.9%, ‘대학 내 동아리 활동’ 5.0%, ‘통일, 북한 관련 에세이’ 3.0% 순임.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선호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높음. 이는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2-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사이버 강의	8	7.9
현장 체험 학습	69	68.3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40	39.6
전문가 대면 특강	33	32.7
대학 내 동아리 활동	5	5.0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논문)	3	3.0
영화 혹은 드라마	25	24.8



[그림 2-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2) 성별 현장체험학습 설문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성별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9.5%, 54.7%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은 97.3%로 여성의 ‘긍정 비율’ 96.9% 보다 약간 높음. 성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표 2-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0	2.7	37.8	59.5		2.7	97.3	3.57
여성	100.0	0.0	3.1	42.2	54.7		3.1	96.9	3.52



[그림 2-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②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성별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적절했다’가 73.0%, 71.9%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은 97.3%로 여성의 ‘긍정 비율’ 96.9% 보다 약간 높음. 성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체험학습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방문한 장소가 매우 적절했다고 인식함

[표 2-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0	2.7	24.3	73.0	→	2.7	97.3	3.70
여성	100.0	0.0	3.1	25.0	71.9		3.1	96.9	3.69



[그림 2-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③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성별 현장체험학습 추천의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70.3%, 62.5%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추천하고 싶다 + 매우 추천하고 싶다)’은 100.0%로 여성의 ‘긍정 비율’ 95.3% 보다 약간 높음. 성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학생에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추천할 의향이 높음

[표 2-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0	0.0	29.7	70.3	→	0.0	100.0	3.70
여성	100.0	0.0	4.7	32.8	62.5		4.7	95.3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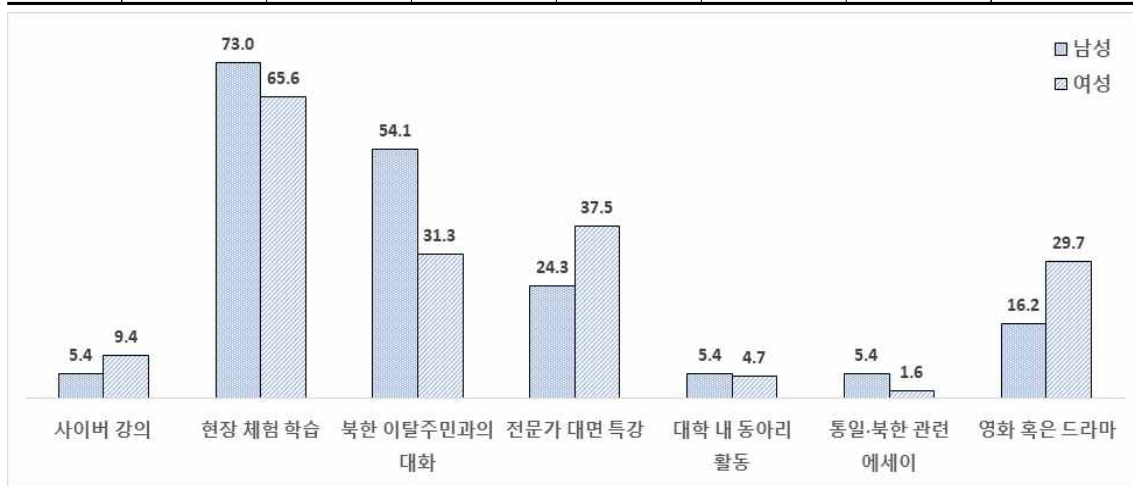
[그림 2-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④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성별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 체험 학습’이 73.0%, 65.6%로 가장 높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전문가 대면 특강’, ‘영화 혹은 드라마’를 선호함

[표 2-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사이버 강의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	대학 내 동아리 활동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	영화 혹은 드라마
남성	5.4	73.0	54.1	24.3	5.4	5.4	16.2
여성	9.4	65.6	31.3	37.5	4.7	1.6	29.7



[그림 2-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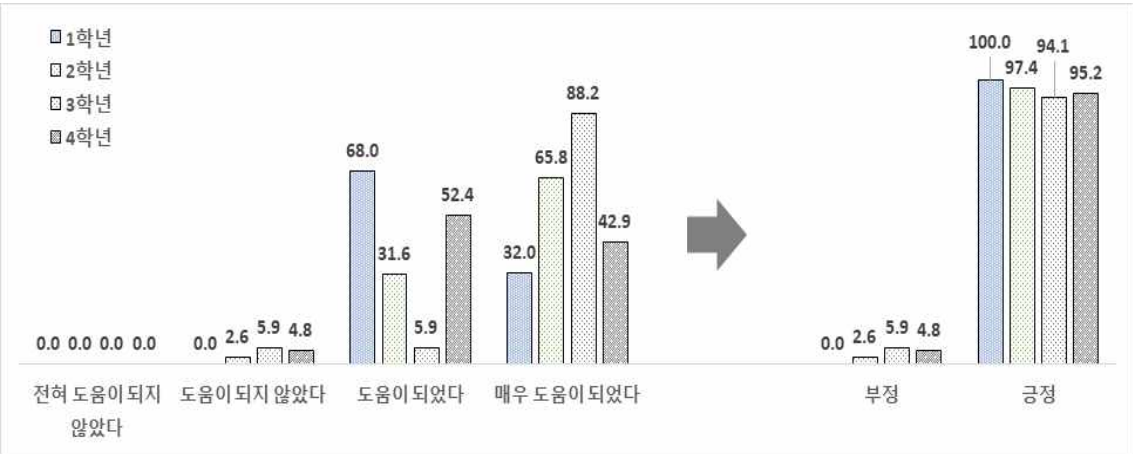
3) 학년별 현장 체험 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학년과 4학년은 ‘도움이 되었다’가 68.0%로 가장 높았고, 2학년과 3학년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5.8%, 88.2%로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3학년이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학년 3.63점, 4학년 3.38점, 1학년 3.32점 순임

[표 2-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0	0.0	68.0	32.0	0.0	100.0	3.32
2학년	100.0	0.0	2.6	31.6	65.8	2.6	97.4	3.63
3학년	100.0	0.0	5.9	5.9	88.2	5.9	94.1	3.82
4학년	100.0	0.0	4.8	52.4	42.9	4.8	95.2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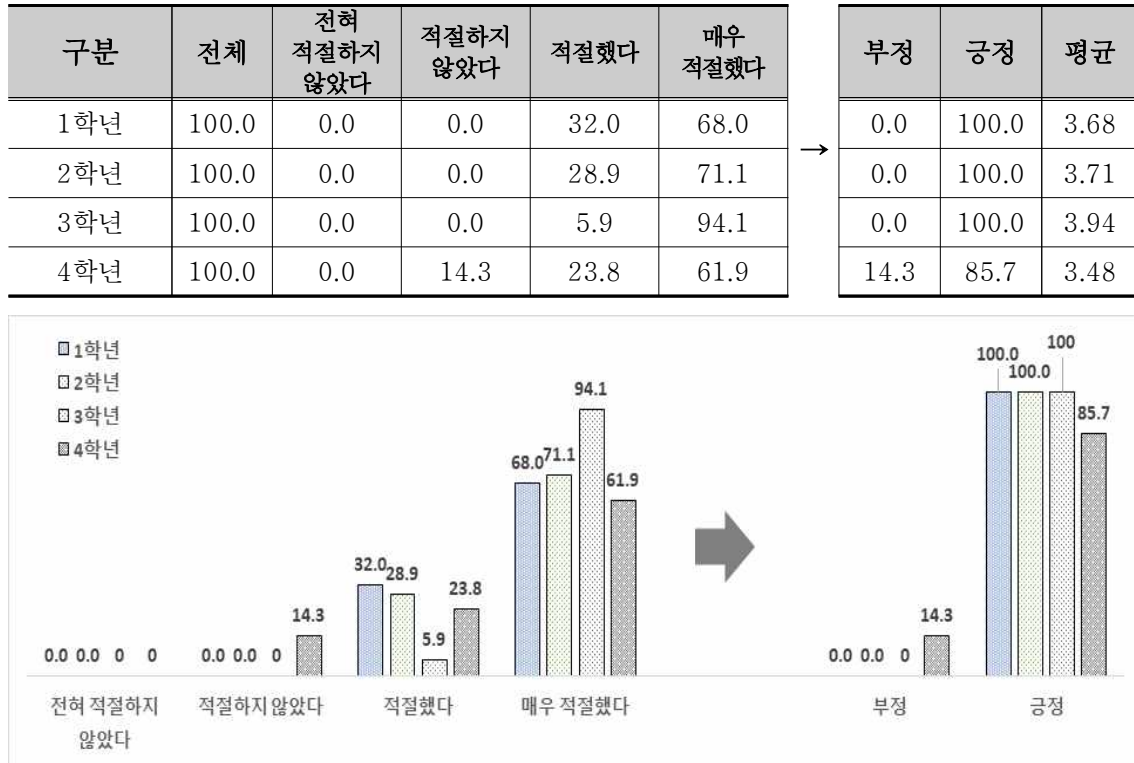


[그림 2-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②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매우 적절했다’가 가장 높음.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이 100.0%로 나타남. 4학년의 긍정비율은 85.7%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평균점수는 3학년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2학년 3.71점, 1학년 3.68점, 4학년 3.48점 순임

[표 2-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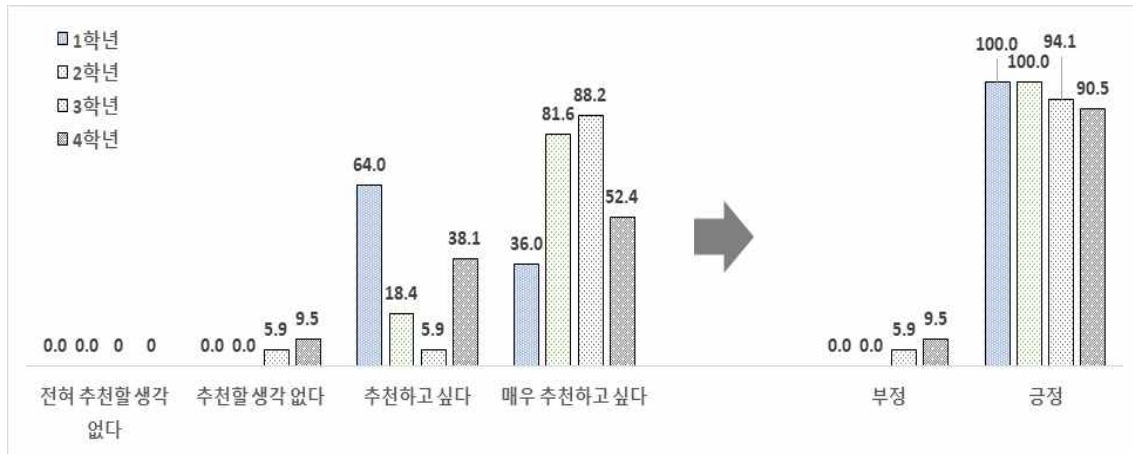
[그림 2-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③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추천의향을 살펴보면,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가장 높음. 1학년은 ‘추천하고 싶다’가 64.0%로 가장 높음. 1학년과 2학년의 ‘긍정 비율(추천하고 싶다 + 매우 추천하고 싶다)’은 100.0%였으며, 3학년은 94.1%, 4학년은 90.5%임. 평균점수는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학년 3.43점, 1학년 3.36점 순임. 긍정 비율에 비해 4학년이 1학년 보다 평균점수가 높은 이유는 ‘매우 추천하고 싶다’의 비율이 4학년이 더 높기 때문임

[표 2-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0	0.0	64.0	36.0	0.0	100.0	3.36
2학년	100.0	0.0	0.0	18.4	81.6	0.0	100.0	3.82
3학년	100.0	0.0	5.9	5.9	88.2	5.9	94.1	3.82
4학년	100.0	0.0	9.5	38.1	52.4	9.5	90.5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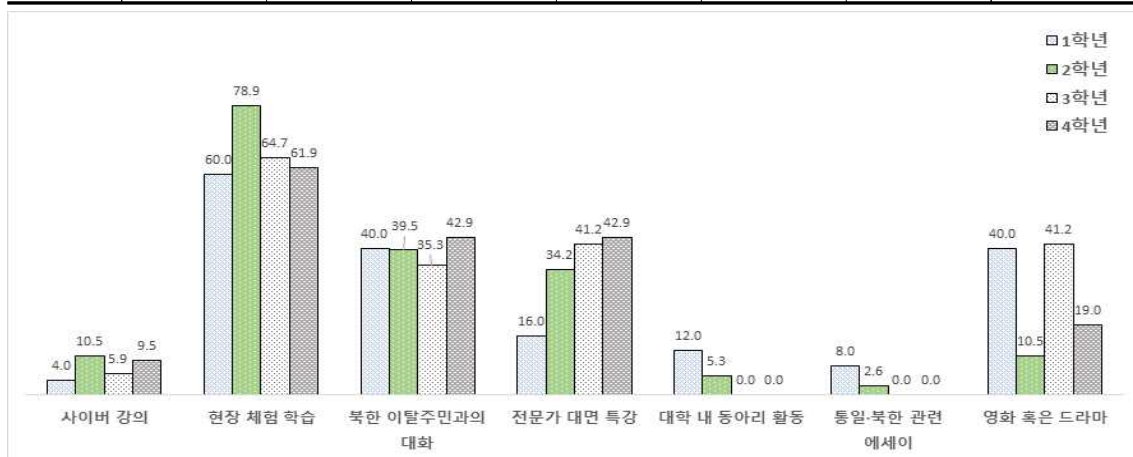
[그림 2-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④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높음. 현장 체험 학습 이외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도 전 학년에서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남. 1학년과 3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영화 혹은 드라마’를 활용한 방식, 2학년과 4학년은 ‘전문가 대면 특강’ 방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사이버 강의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	대학 내 동아리 활동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	영화 혹은 드라마
1학년	4.0	60.0	40.0	16.0	12.0	8.0	40.0
2학년	10.5	78.9	39.5	34.2	5.3	2.6	10.5
3학년	5.9	64.7	35.3	41.2	0.0	0.0	41.2
4학년	9.5	61.9	42.9	42.9	0.0	0.0	19.0



[그림 2-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3장 2학기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2학기 통일 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결과
2. 2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결과
3. 2학기 특강 사업 설문조사 분석결과
4. 2학기 현장체험학습 사업 설문조사 분석 결과

3장 2학기 통일 강좌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2학기 통일 강좌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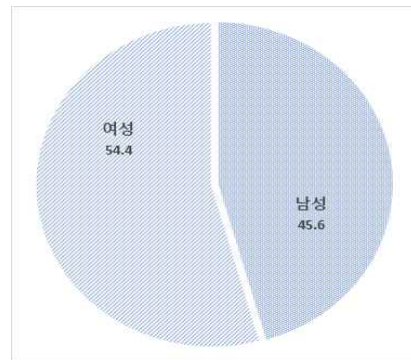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5.6%, 여성이 54.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간 더 많음. 1학기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증가함. 이는 조사 대학, 응답자의 단과대학 등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3-1]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598	45.6
여성	714	54.4
전체	13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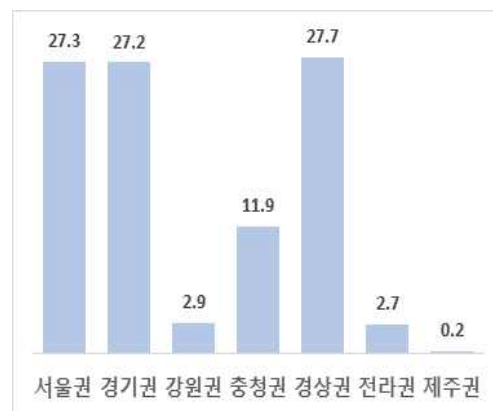


[그림 3-1]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상권이 2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권 27.3%, 경기권 27.2%, 충청권 11.9%, 강원권 2.9%, 전라권 2.7%, 제주권 0.2% 순임. 이는 설문조사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표 3-2]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358	27.3
경기권	357	27.2
강원권	38	2.9
충청권	156	11.9
경상권	364	27.7
전라권	36	2.7
제주권	3	0.2
전체	1312	100.0



[그림 3-2]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공과대학이 2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대 17.0%, 사회과학대 15.7%, 경상대 14.0%, 사범대 8.1%, 예술대 6.9%, 자연대 5.3% 순임

[표 3-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223	17.0
사회과학대	206	15.7
경상대	184	14.0
자연대	70	5.3
공과대	332	25.3
농과대	24	1.8
예술대	90	6.9
의약간호대	43	3.3
사범대	106	8.1
법과대	18	1.4
생활과학대	16	1.2
전체	13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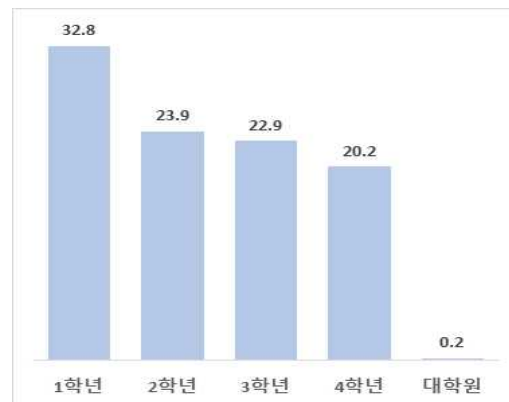


[그림 3-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이 3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2학년 23.9%, 3학년 22.9%, 4학년 20.2%, 대학원 0.2%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5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4]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430	32.8
2학년	314	23.9
3학년	300	22.9
4학년	265	20.2
대학원	3	0.2
전체	1312	100.0



[그림 3-4]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귀하는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참여(수강)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14.8%, ‘없다’ 85.2%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3-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빈도(명)	%
있다	194	14.8
없다	1,118	85.2
전체	1,312	100.0



[그림 3-5]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③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귀하는 평소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관심 있다’가 50.8%로 가장 높은 가운데,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이 59.3%로 ‘무관심 비율(관심 없다 + 매우 관심 없다)’ 40.6% 보다 더 높음

[표 3-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	1,312 (100.0)	58 (4.4)	475 (36.2)	667 (50.8)	112 (8.5)	533 (40.6)	779 (59.3)	2.63



[그림 3-6]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귀하는 평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다’가 46.7%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해야 한다)’이 57.0%로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42.9% 보다 더 높게 나타남

[표 3-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12 (100.0)	74 (5.6)	490 (37.3)	613 (46.7)	135 (10.3)		564 (42.9)	748 (57.0)	2.62



[그림 3-7]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귀하는 평소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알지 못 한다’가 55.9%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미인지 비율(알지 못 한다 + 전혀 알지 못 한다)’이 69.2%로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30.8% 보다 더 높음. 즉,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표 3-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 한다	알지 못 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미인지	인지	평균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1,312 (100.0)	174 (13.3)	733 (55.9)	377 (28.7)	28 (2.1)		907 (69.2)	405 (30.8)	2.20



[그림 3-8]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④ 북한에 대한 이미지

-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가 28.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 23.7%,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22.2%,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3.2%,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12.1% 순임. 1학기와 사전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으나, 북한 주민이나 통일 대상으로서의 인식은 높은 편임

[표 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159	12.1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291	22.2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378	28.8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73	13.2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311	23.7
전체	1,31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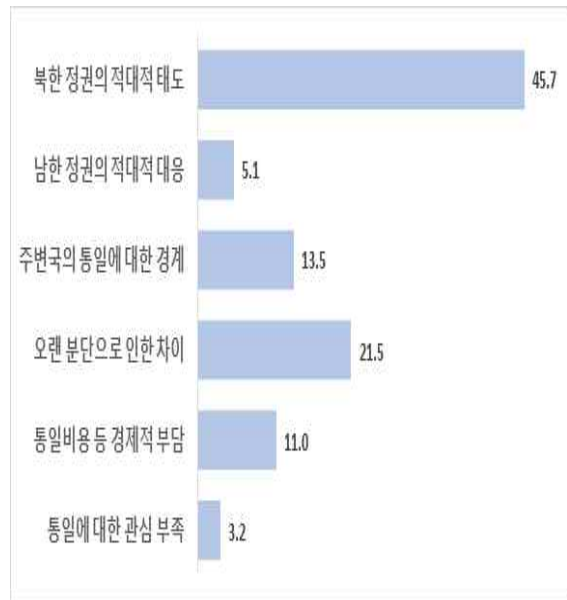
[그림 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⑤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귀하는 평소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1.5%,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3.5%,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1.0%,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0%,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3.2% 순임.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학기 사전 설문조사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옴

[표 3-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600	45.7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67	5.1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77	13.5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82	21.5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44	11.0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42	3.2
전체	1,312	100.0



[그림 3-1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⑥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귀하는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변화’가 60.4%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 36.7%, ‘통일 비용 준비’ 22.1%, ‘튼튼한 안보 구축’ 22.0%, ‘통일에 대한 관심’ 17.5%, ‘주변국 지지’ 17.4% 순임

[표 3-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 변화	793	60.4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155	11.8
지속적인 남북 대화	482	36.7
주변국 지지	228	17.4
튼튼한 안보 구축	289	22.0
민간 교류 협력	111	8.5
통일에 대한 관심	230	17.5
통일 비용 준비	290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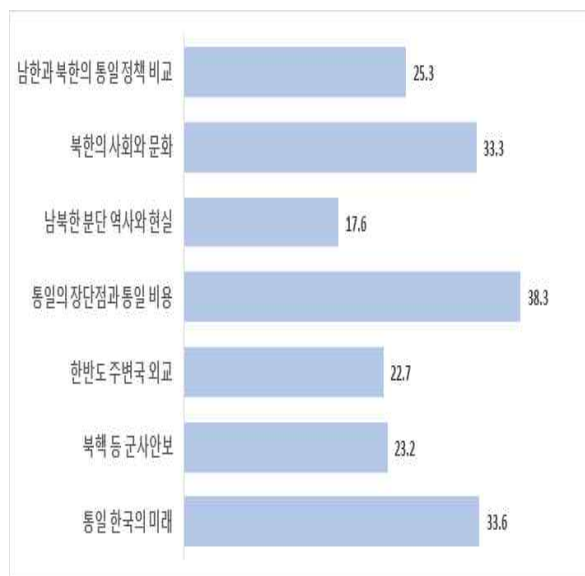
[그림 3-11]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중복응답)

⑦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 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8.3%로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33.6%, ‘북한의 사회와 문화’ 33.3%,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3%, ‘북핵 등 군사안보’ 23.2% 순임

[표 3-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332	25.3
북한의 사회와 문화	437	33.3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231	17.6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502	38.3
한반도 주변국 외교	298	22.7
북핵 등 군사안보	305	23.2
통일 한국의 미래	441	33.6



[그림 3-1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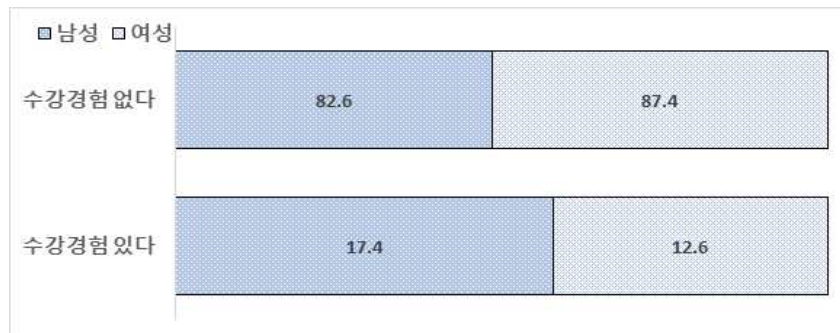
2) 성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은 ‘수강 경험 있음’이 17.4%, ‘수강 경험 없음’이 82.6%였으며, 여성은 ‘수강 경험 있음’이 12.6%, ‘수강 경험 없음’이 87.4%임. 즉, 성별과 관계없이 수강생 대부분이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없음

[표 3-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전체	수강 경험 있음	수강 경험 없음
남성	100.0	17.4	82.6
여성	100.0	12.6	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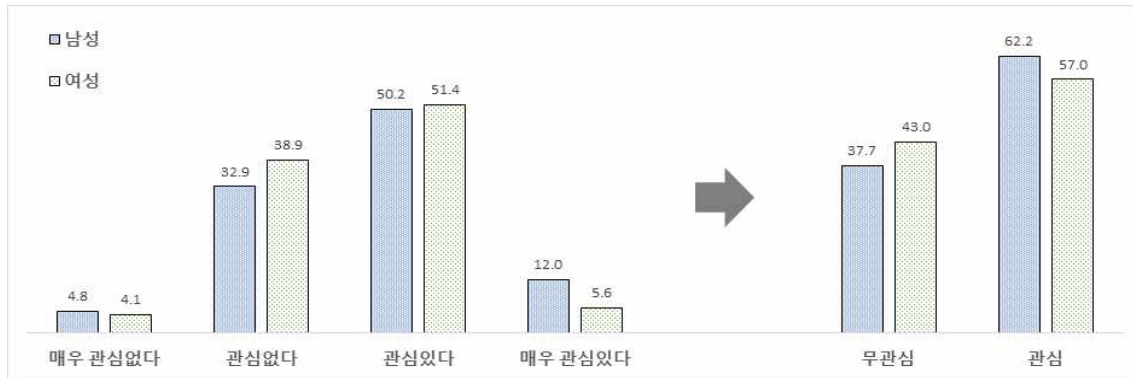
[그림 3-13]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② 성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관심 있다’가 50.2%, 51.4%로 가장 높음. 남성의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은 62.2%로 여성의 ‘관심 비율’ 57.0% 보다 높음. 즉,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음. 그리고 평균점수는 남성이 2.69점으로 여성 2.59점 보다 높음

[표 3-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	무관심	관심	평균
남성	100.0	4.8	32.9	50.2	12.0		37.7	62.2	2.69
여성	100.0	4.1	38.9	51.4	5.6		43.0	57.0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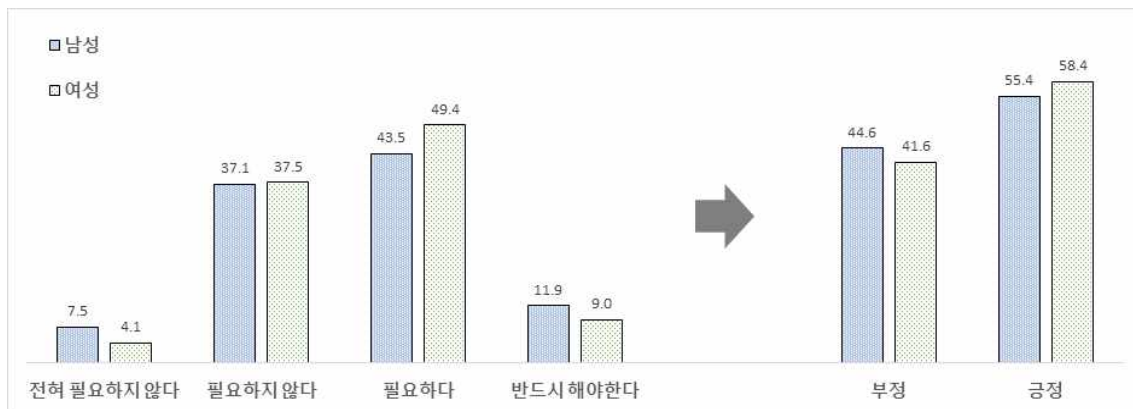


[그림 3-14] 성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가 43.5%, 49.4%로 가장 높음. 남성과 여성의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해야 한다)’과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긍정비율이 부정 비율에 비해 높음. 그리고 평균점수는 여성이 2.63점, 남성 2.60점으로 비슷함

[표 3-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7.5	37.1	43.5	11.9		44.6	55.4	2.60
여성	100.0	4.1	37.5	49.4	9.0		41.6	58.4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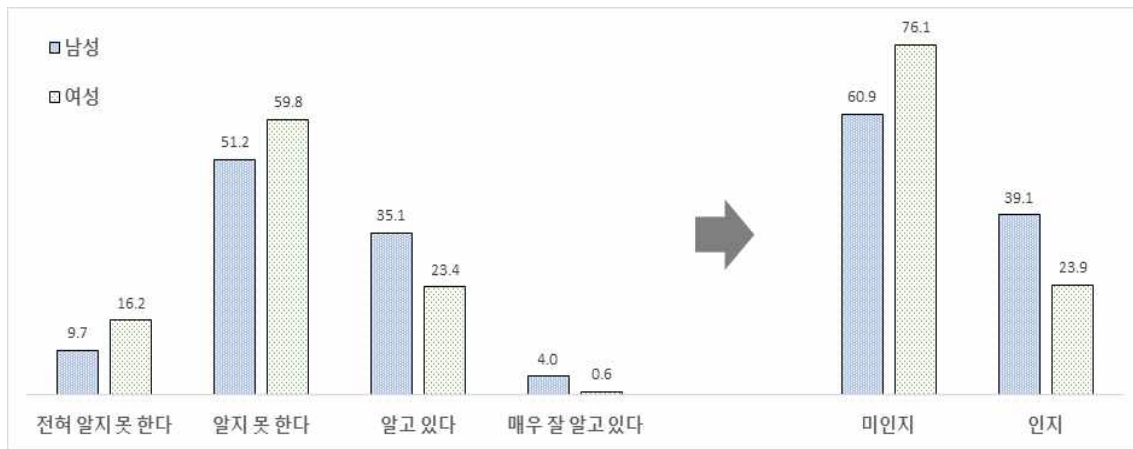


[그림 3-15]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알지 못한다’가 51.2%, 59.8%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인 것에 반해, 여성은 16.2%로 비교적 높음. 남성의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은 39.1%로 여성의 ‘인지 비율’ 23.9%보다 매우 높음.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평균점수는 남성이 2.33점으로 여성 2.08점 보다 높음

[표 3-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평균
남성	100.0	9.7	51.2	35.1	4.0	60.9	39.1	2.33
여성	100.0	16.2	59.8	23.4	0.6	76.1	23.9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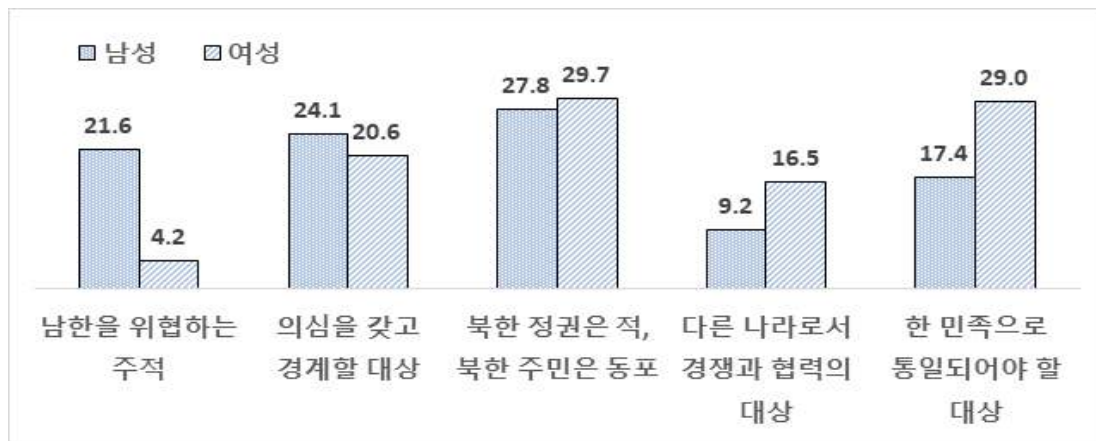
[그림 3-16] 성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③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가 27.8%, 29.7%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이 24.1%,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 21.6%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에 비해 높음.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16.5%,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29.0%로 북한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표 3-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21.6	24.1	27.8	9.2	17.4
여성	100.0	4.2	20.6	29.7	16.5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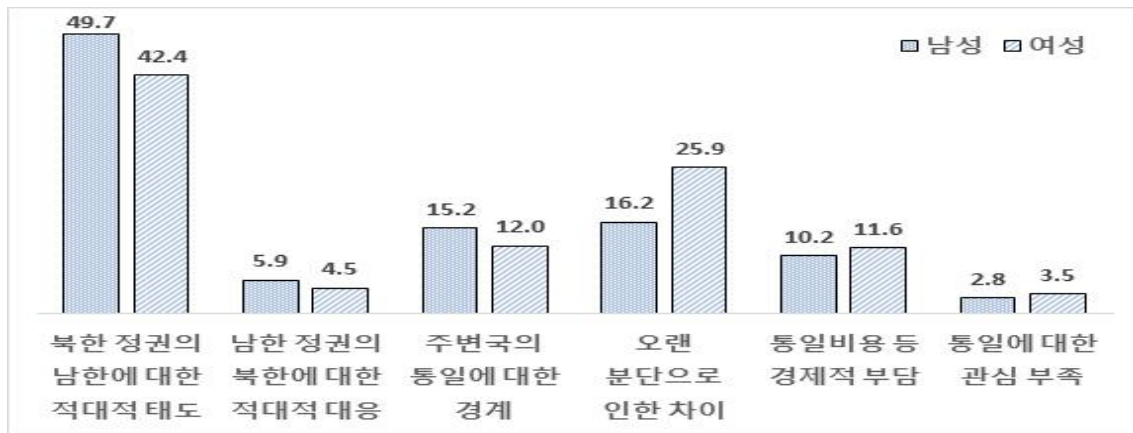
[그림 3-17]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49.7%, 42.4%로 가장 높음. 이어 남성과 여성 모두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통일 등 경제적 부담’ 등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49.7	5.9	15.2	16.2	10.2	2.8
여성	100.0	42.4	4.5	12.0	25.9	11.6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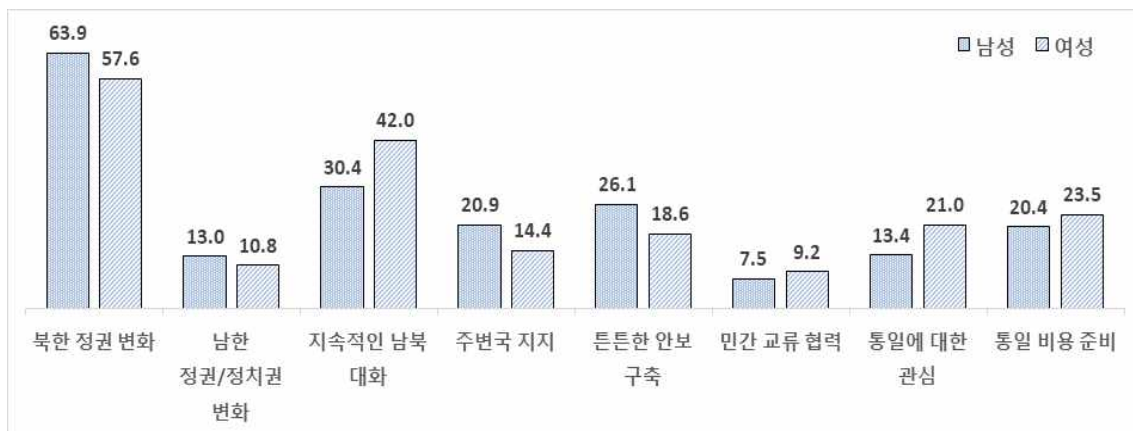
[그림 3-18]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⑤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정권 변화’가 63.9%, 57.6%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남성 30.4%, 여성 42.0%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음

[표 3-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남성	63.9	13.0	30.4	20.9	26.1	7.5	13.4	20.4
여성	57.6	10.8	42.0	14.4	18.6	9.2	21.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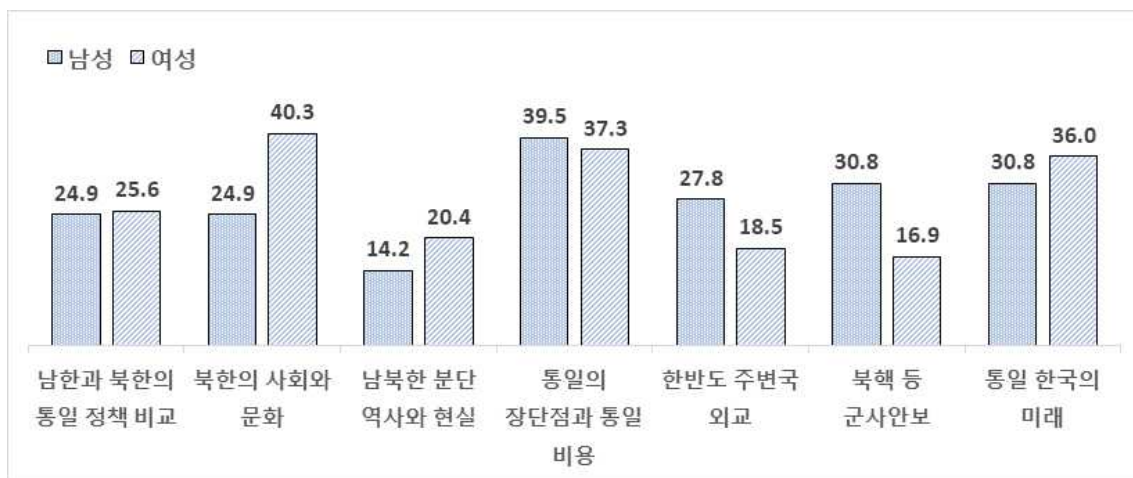
[그림 3-19]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⑥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30.8%, ‘북핵 등 군사안보’ 30.8% 순임. 반면, 여성은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4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7.3%, ‘통일 한국의 미래’ 36.0% 순임. 남성과 여성이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는 차이가 있음

[표 3-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24.9	24.9	14.2	39.5	27.8	30.8	30.8
여성	25.6	40.3	20.4	37.3	18.5	16.9	36.0



[그림 3-20]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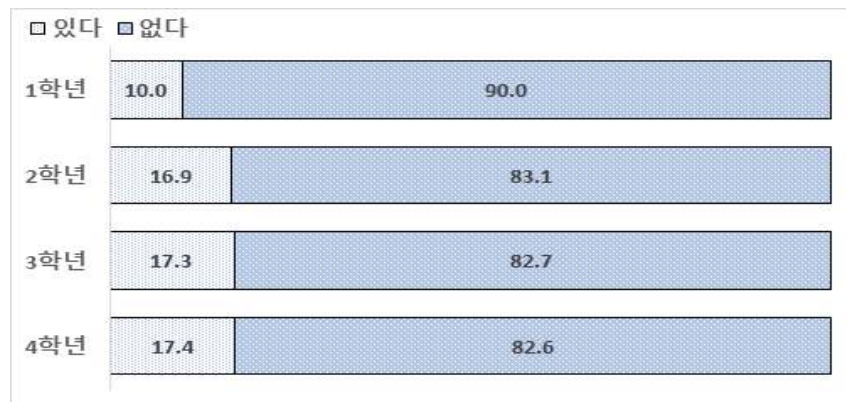
3) 학년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⁴⁾

①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은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 경험 없음’이 가장 높음. 4학년은 전체 학년 중 ‘수강 경험 있음’이 17.4%로 가장 높았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강의 수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함

[표 3-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전체	수강 경험 있음	수강 경험 없음
1학년	100.0	10.0	90.0
2학년	100.0	16.9	83.1
3학년	100.0	17.3	82.7
4학년	100.0	17.4	82.6



[그림 3-21]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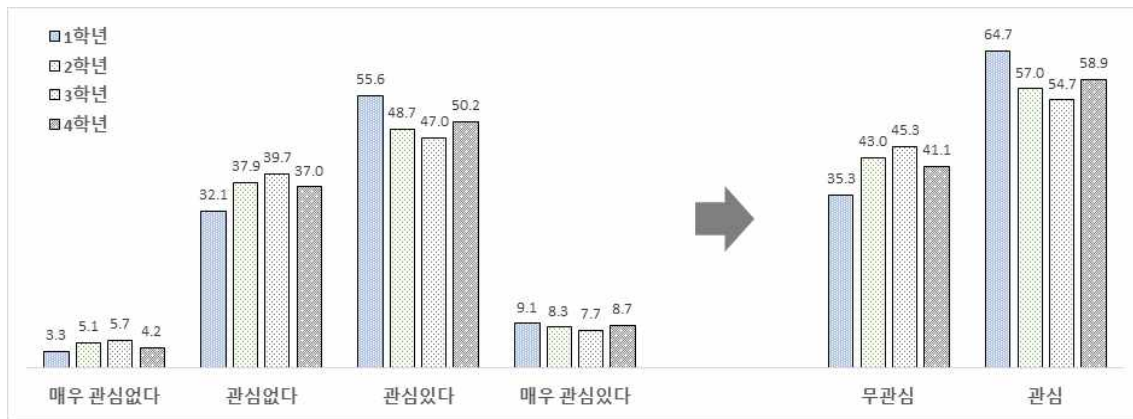
② 학년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관심 있다’가 가장 높음. 다만, ‘관심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1학년은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이 64.7%로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평균점수는 1학년이 2.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학년 2.63점, 2학년 2.60점, 3학년 2.57점 순임

4)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3-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1학년	100.0	3.3	32.1	55.6	9.1	→	35.3	64.7	2.70
2학년	100.0	5.1	37.9	48.7	8.3		43.0	57.0	2.60
3학년	100.0	5.7	39.7	47.0	7.7		45.3	54.7	2.57
4학년	100.0	4.2	37.0	50.2	8.7		41.1	58.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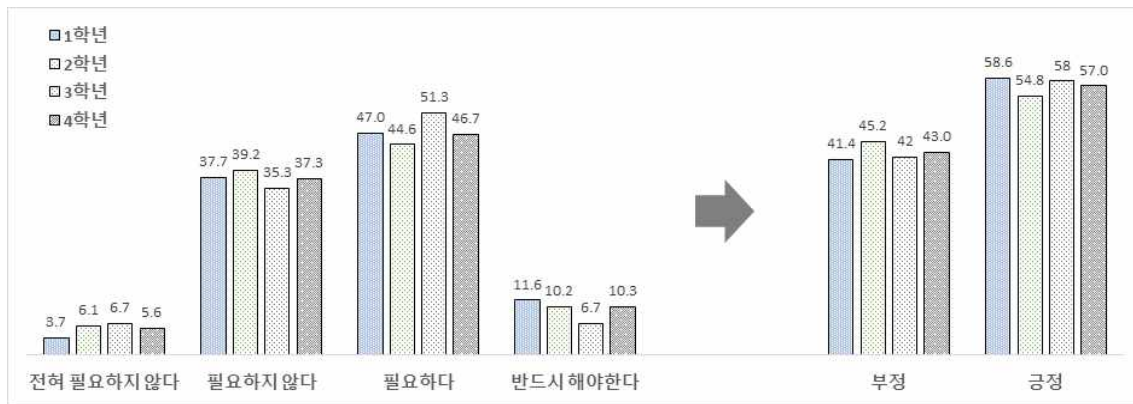


[그림 3-22] 학년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필요하다’가 가장 높았으나,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3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필요하다)’이 ‘부정 비율(필요하지 않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보다 높았으나, 부정 비율이 40.0%로 비교적 높음. 평균점수는 1학년이 2.67점, 4학년이 2.60점, 2학년이 2.59점, 3학년이 2.58점 순임

[표 3-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3.7	37.7	47.0	11.6	→	41.4	58.6	2.67
2학년	100.0	6.1	39.2	44.6	10.2		45.2	54.8	2.59
3학년	100.0	6.7	35.3	51.3	6.7		42.0	58.0	2.58
4학년	100.0	5.6	37.3	46.7	10.3		43.0	57.0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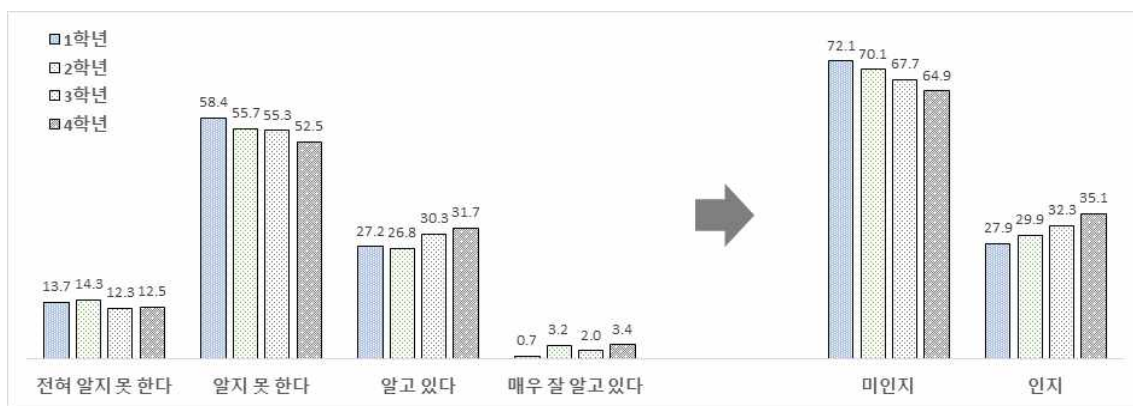


[그림 3-23]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알지 못 한다’가 가장 높음. 학년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평균점수는 4학년이 2.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학년 2.22점, 2학년 2.19점, 1학년 2.15점 순임

[표 3-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 한다	알지 못 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미인지	인지	평균
1학년	100.0	13.7	58.4	27.2	0.7	72.1	27.9	2.15
2학년	100.0	14.3	55.7	26.8	3.2	70.1	29.9	2.19
3학년	100.0	12.3	55.3	30.3	2.0	67.7	32.3	2.22
4학년	100.0	12.5	52.5	31.7	3.4	64.9	35.1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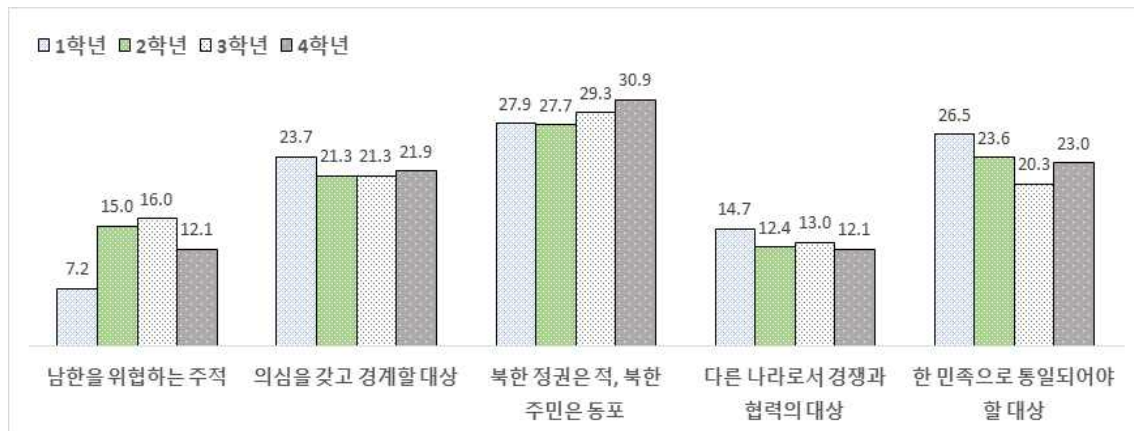
[그림 3-24] 학년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③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라는 인식이 가장 높음. 그리고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인식은 2학년과 3학년에 높았으며, 1학년은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음

[표 3-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7.2	23.7	27.9	14.7	26.5
2학년	100.0	15.0	21.3	27.7	12.4	23.6
3학년	100.0	16.0	21.3	29.3	13.0	20.3
4학년	100.0	12.1	21.9	30.9	12.1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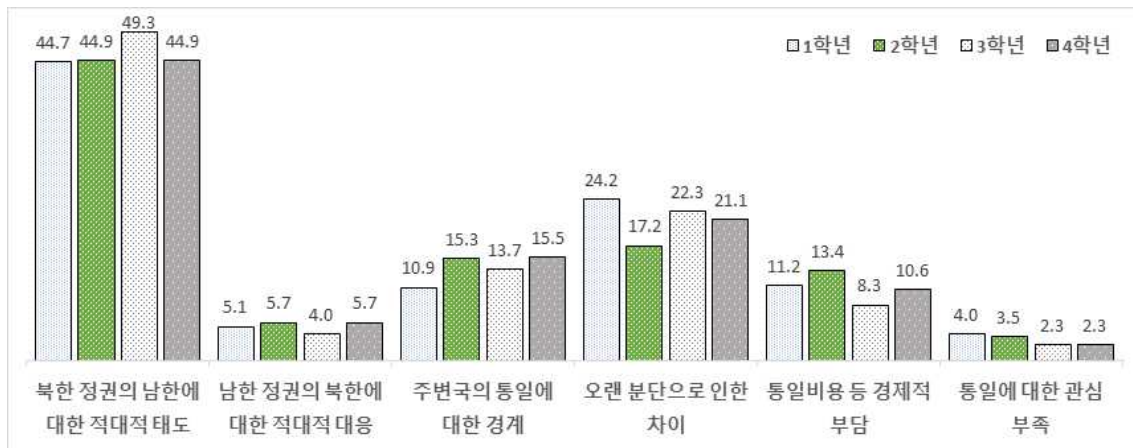
[그림 3-25]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가장 높음. 이어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를 통일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표 3-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44.7	5.1	10.9	24.2	11.2	4.0
2학년	100.0	44.9	5.7	15.3	17.2	13.4	3.5
3학년	100.0	49.3	4.0	13.7	22.3	8.3	2.3
4학년	100.0	44.9	5.7	15.5	21.1	10.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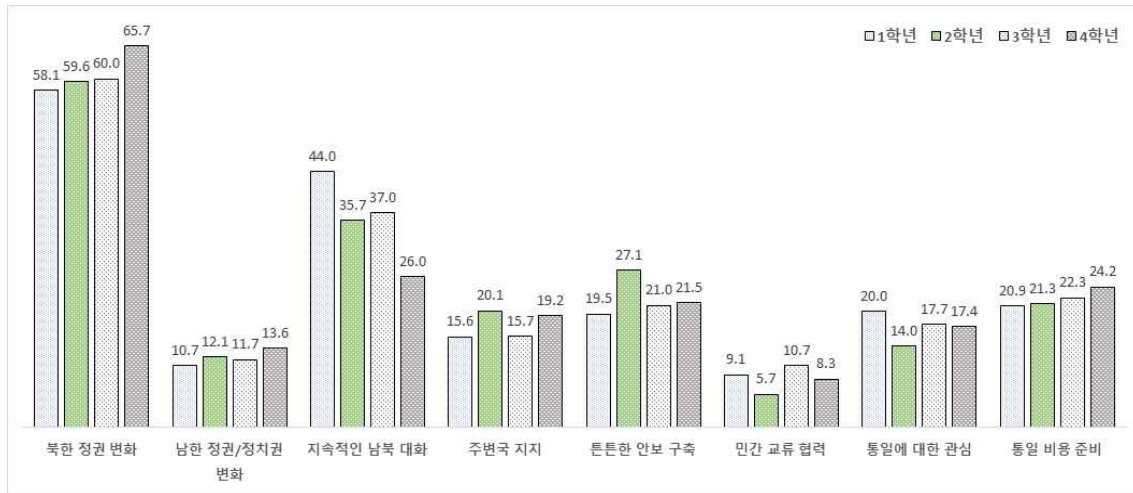


[그림 3-26]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⑤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음

[표 3-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1학년	58.1	10.7	44.0	15.6	19.5	9.1	20.0	20.9
2학년	59.6	12.1	35.7	20.1	27.1	5.7	14.0	21.3
3학년	60.0	11.7	37.0	15.7	21.0	10.7	17.7	22.3
4학년	65.7	13.6	26.0	19.2	21.5	8.3	17.4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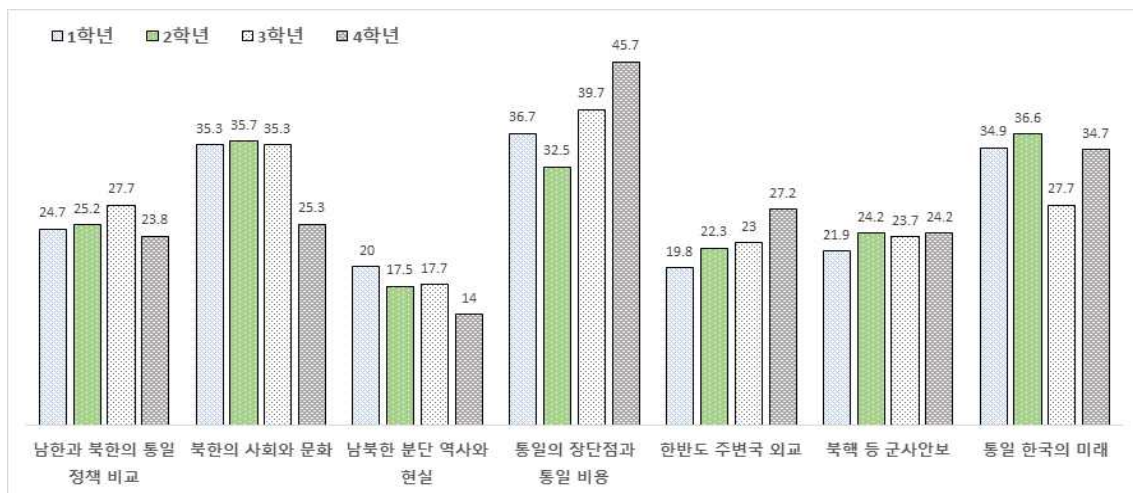
[그림 3-27]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⑥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2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가장 높음. 반면, 2학년은 ‘통일한국의 미래’가 36.6%로 가장 높음

[표 3-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24.7	35.3	20.0	36.7	19.8	21.9	34.9
2학년	25.2	35.7	17.5	32.5	22.3	24.2	36.6
3학년	27.7	35.3	17.7	39.7	23.0	23.7	27.7
4학년	23.8	25.3	14.0	45.7	27.2	24.2	34.7



[그림 3-28]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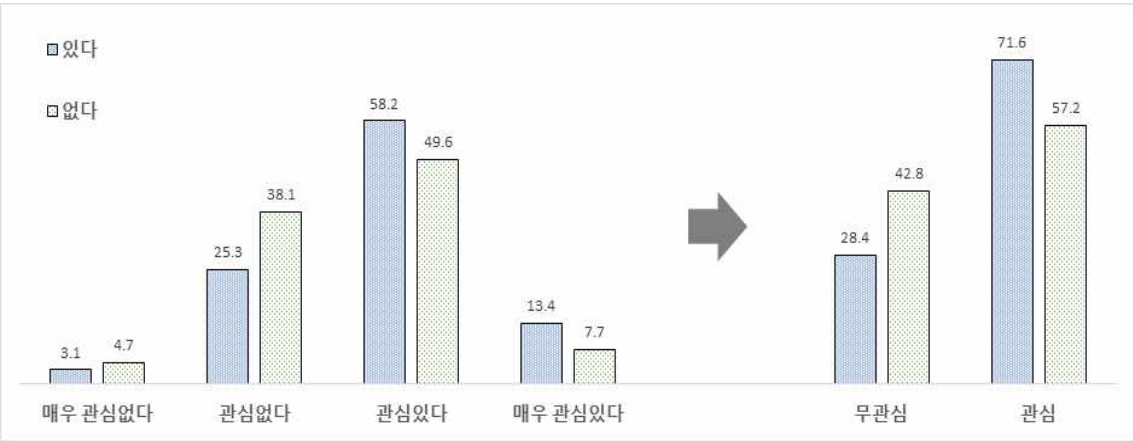
4)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사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수강 경험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

-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를 살펴보면,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관심 비율(관심 있다 + 매우 관심 있다)’이 유의미하게 높음. 이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을 한 경우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을 보여줌. 그리고 ‘사전’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2학기 강의 수강 이후 수강생들의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가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표 3-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전체	매우 관심없다	관심없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무관심	관심	평균
있다	100.0	3.1	25.3	58.2	13.4	→	28.4	71.6	2.82
없다	100.0	4.7	38.1	49.6	7.7		42.8	57.2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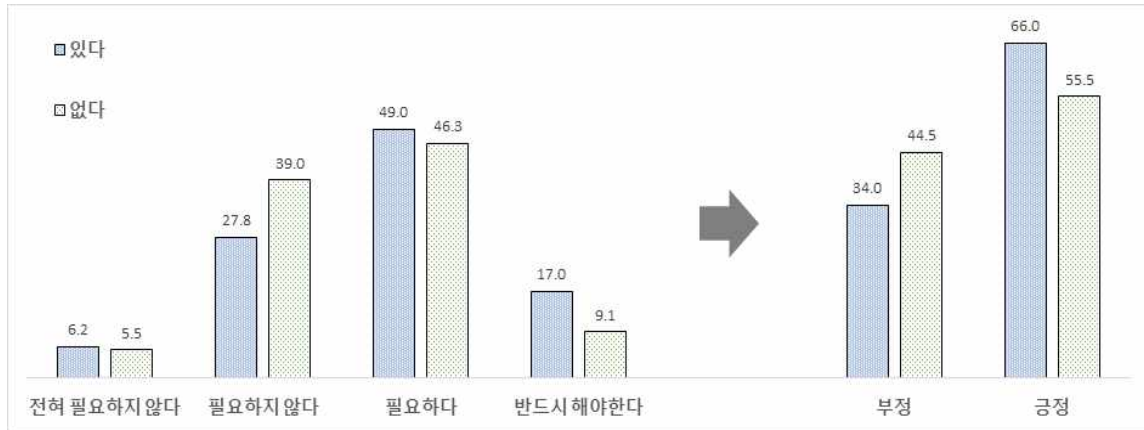


[그림 3-29] 수강 경험별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정도

-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 비율(필요하다 + 반드시 필요하다)’이 66.0%로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보다 10.5% 높음. 다만, 강의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모두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5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한다	→	부정	긍정	평균
있다	100.0	6.2	27.8	49.0	17.0		34.0	66.0	2.77
없다	100.0	5.5	39.0	46.3	9.1		44.5	55.5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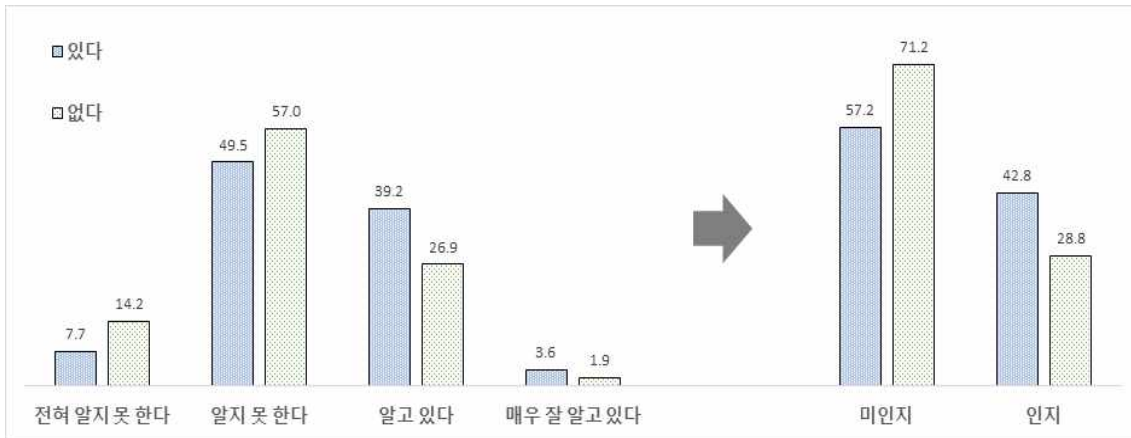


[그림 3-30] 수강 경험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지 못 한다’가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 모두에서 가장 높음. 다만,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는 ‘전혀 알지 못 한다’의 비율이 7.7%로 수강 경험이 없는 그룹의 비율 14.2% 보다 낮음. 그리고 수강 경험이 있는 그룹의 ‘인지 비율(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은 42.8%로 수강 경험이 없는 그룹의 ‘인지 비율’ 28.8% 보다 매우 높음. 이를 통해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교육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구분	전체	전혀 알지 못 한다	알지 못 한다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	미인지	인지	평균
있다	100.0	7.7	49.5	39.2	3.6		57.2	42.8	2.39
없다	100.0	14.2	57.0	26.9	1.9		71.2	28.8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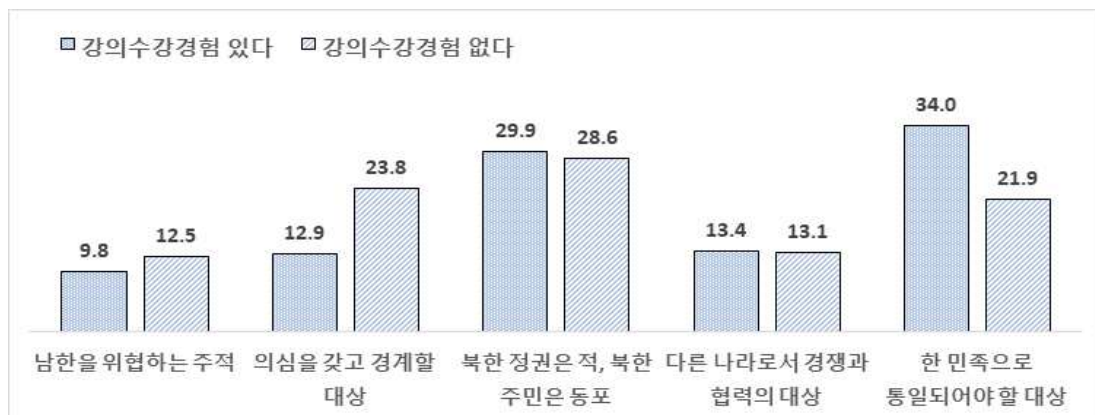
[그림 3-31] 수강 경험별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

②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34.0%로 가장 높음. 반면, 수강 경험이 없는 경우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비율이 28.6%로 가장 높음

[표 3-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있다	100.0	9.8	12.9	29.9	13.4	34.0
없다	100.0	12.5	23.8	28.6	13.1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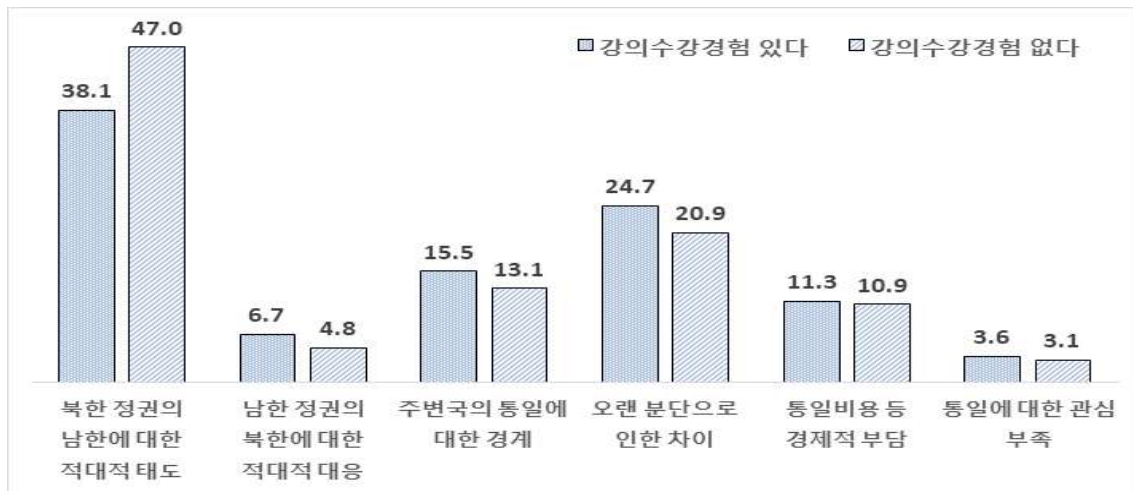
[그림 3-32] 수강 경험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가장 높음. 이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수강 경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3-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있다	100.0	38.1	6.7	15.5	24.7	11.3	3.6
없다	100.0	47.0	4.8	13.1	20.9	10.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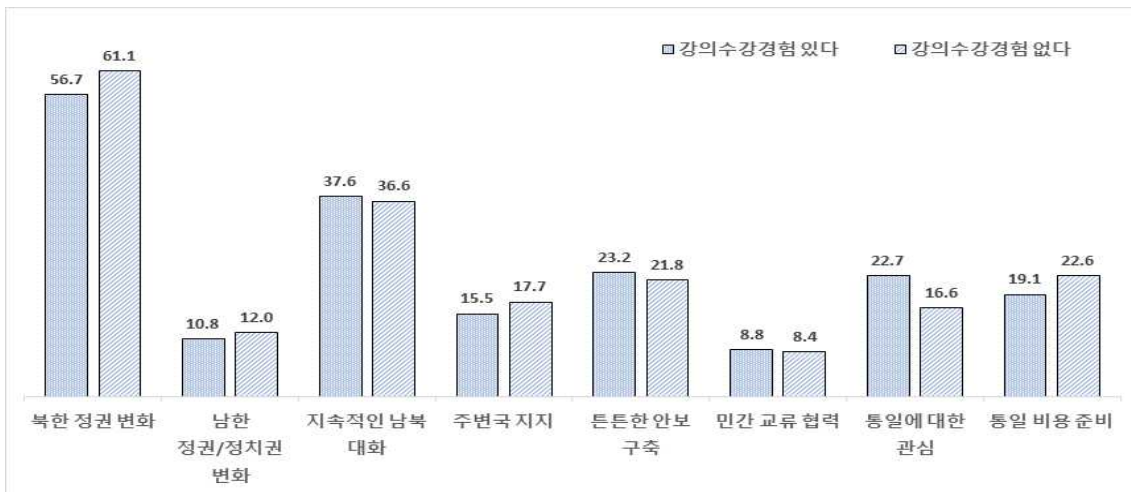
[그림 3-33] 수강 경험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대화’, ‘통일에 대한 관심’, ‘튼튼한 안보 구축’, ‘통일비용 준비’ 등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됨. 수강 경험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없음

[표 3-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있다	56.7	10.8	37.6	15.5	23.2	8.8	22.7	19.1
없다	61.1	12.0	36.6	17.7	21.8	8.4	16.6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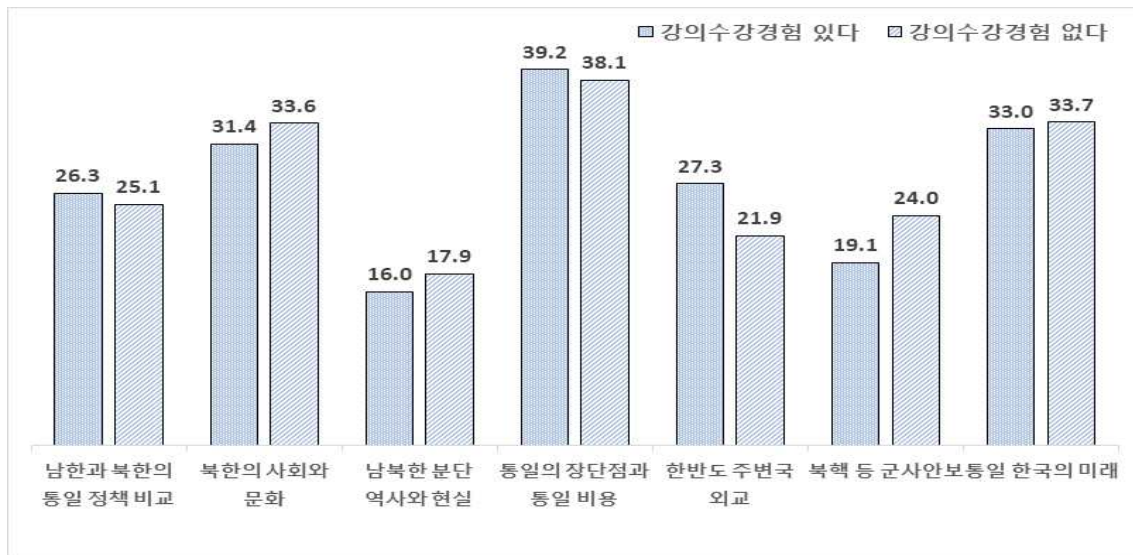
[그림 3-34] 수강 경험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수강 경험과 관계없이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다른 응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있다	26.3	31.4	16.0	39.2	27.3	19.1	33.0
없다	25.1	33.6	17.9	38.1	21.9	24.0	33.7



[그림 3-35] 수강 경험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2. 2학기 통일 강좌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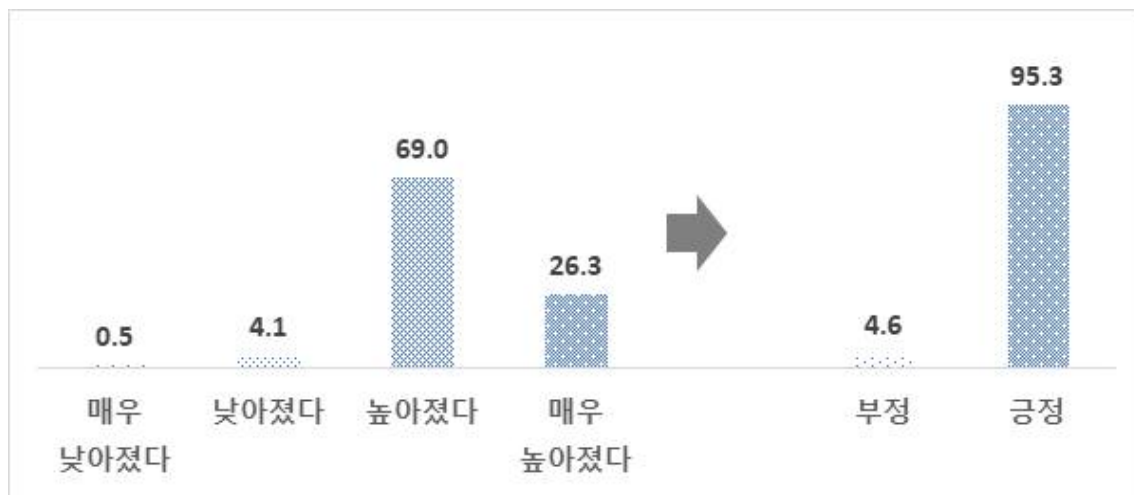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 “귀하는 수강 이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69.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95.3%로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4.6% 보다 매우 높음. 1학기 사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2학기도 통일 강좌를 수강한 학생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감. 이는 앞서 설정한 사업성과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1,109 (100.0)	6 (0.5)	46 (4.1)	765 (69.0)	292 (26.3)	→	52 (4.6)	1,057 (95.3)	3.21



[그림 3-36]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6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85.2%로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14.9% 보다 매우 높음. 1학기 사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2학기 통일 강좌 수강은 대부분의 학생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 제고의 기회가 됨. 이러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좌가 추구하는 목표 실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3-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109 (100.0)	20 (1.8)	145 (13.1)	675 (60.9)	269 (24.3)		165 (14.9)	944 (85.2)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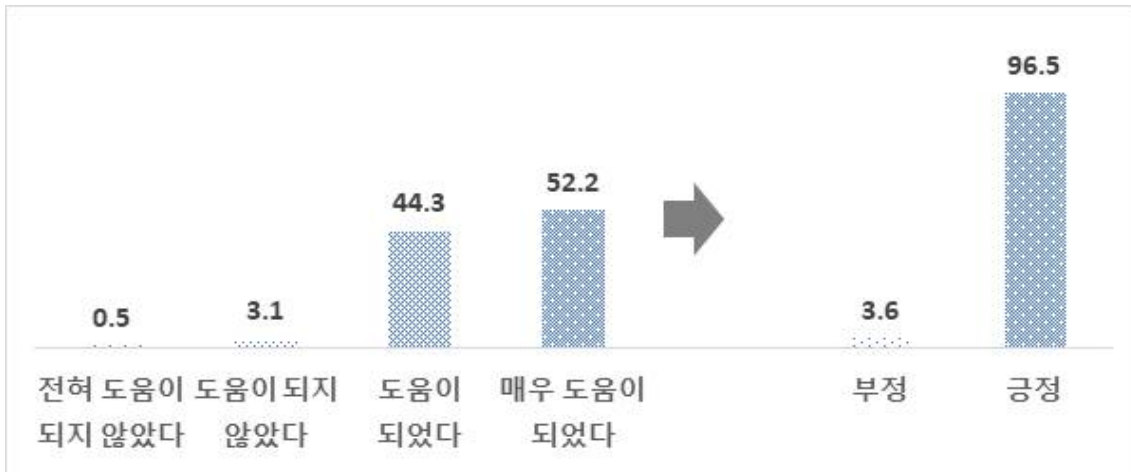


[그림 3-3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귀하에게 이 강좌는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2.2%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96.5%로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6% 보다 매우 높음. 1학기 사후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2학기 통일강좌를 수강한 대부분의 학생이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에 있어 효용성을 느낌.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평균점수(3.48점)를 보임. 이는 사전 조사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정부의 통일 및 북한 관련 정책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1,109 (100.0)	5 (0.5)	34 (3.1)	491 (44.3)	579 (52.2)		39 (3.6)	1,070 (96.5)	3.48



[그림 3-38]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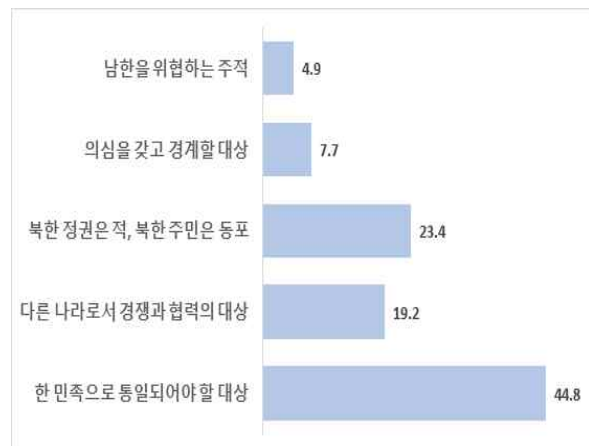
- 이처럼 2학기 사후 설문분석 결과, 1학기 사후 설문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①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②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③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3가지 만족도 평가 항목에 있어 긍정적인 응답을 함. 즉,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 제공은 학생들의 인식 개선 및 정보 획득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앞서 설정한 사업성과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임

② 북한에 대한 이미지

-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4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3.4%,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9.2%,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7.7%,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4.9% 순임

[표 3-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54	4.9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85	7.7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60	23.4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213	19.2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497	44.8
전체	1,109	100.0



[그림 3-39]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3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정권의 적대적 태도’ 30.5%,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2.8%,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 11.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1.1%, ‘남한 정권의 적대적 대응’ 3.9% 순임

[표 3-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적대적 태도	338	30.5
남한 정권의 적대적 대응	43	3.9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42	12.8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339	30.6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24	11.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23	11.1
전체	1,109	100.0



[그림 3-40]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합 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정권의 변화’가 47.1%로 가장 높음. 이어 ‘지속적인 남북 대화’ 42.2%, ‘통일에 대한 관심’ 27.6%, ‘튼튼한 안보 구축’ 20.8%, ‘주변국 지지’ 20.8%, ‘통일비용준비’ 15.2%, ‘민간 교류협력’ 11.9%, ‘남한정권/정치권 변화’ 10.7% 순임

[표 3-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 변화	522	47.1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119	10.7
지속적인 남북 대화	468	42.2
주변국 지지	231	20.8
튼튼한 안보 구축	231	20.8
민간 교류 협력	132	11.9
통일에 대한 관심	306	27.6
통일 비용 준비	169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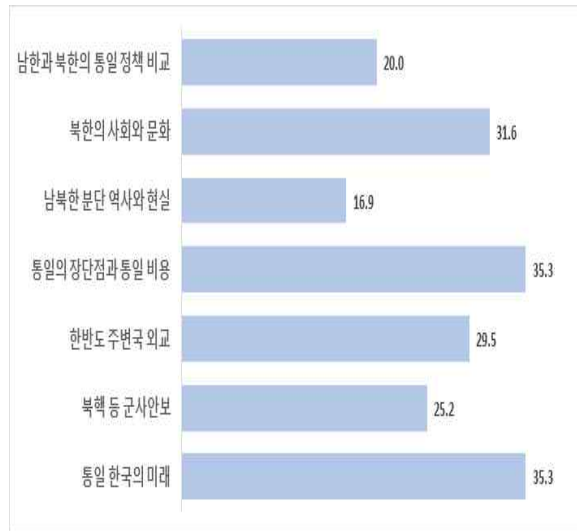
[그림 3-41]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⑤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에 대한 중복응답을 합 100% 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과 '통일 한국의 미래'가 각각 35.3%로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사회와 문화' 31.6%, '한반도 주변국 외교' 29.5%, '북핵 등 군사안보' 25.2%,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0.0%,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6.9% 순임

[표 3-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22	20.0
북한의 사회와 문화	350	31.6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87	16.9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91	35.3
한반도 주변국 외교	327	29.5
북핵 등 군사안보	279	25.2
통일 한국의 미래	391	35.3



[그림 3-42]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내용

2) 성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

-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높아졌다’가 각각 47.9%, 56.4%로 가장 높음. 평균점수의 경우 여성 3.25점, 남성 3.17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이는 사전 설문조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낮았으나, 강의 수강 이후에는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0	3.6	47.5	47.9	→	4.6	95.4	3.17
여성	100.0	0.0	2.6	41.0	56.4		2.6	97.4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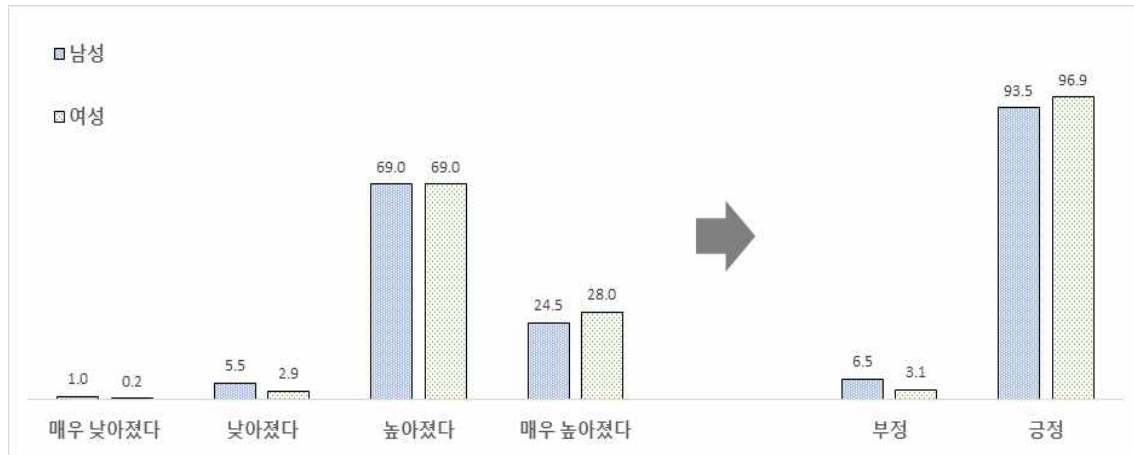


[그림 3-43] 성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다’가 각각 69.0%로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여성이 3.12점으로 남성 3.02점보다 더 높음. 사전 설문조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강의 이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 또한 남성에 비해 큼

[표 3-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0	5.5	69.0	24.5	→	6.5	93.5	3.02
여성	100.0	0.2	2.9	69.0	28.0		3.1	96.9	3.12



[그림 3-44] 성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각각 60.1%, 61.6%로 가장 높음. 이는 성별 관계없이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을 통해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했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음. 평균 점수의 경우 여성이 3.54점으로 남성 3.42점 보다 높음

[표 3-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2.5	15.0	60.1	22.4	→	17.5	82.5	3.42
여성	100.0	1.2	11.3	61.6	25.9		12.5	87.5	3.54



[그림 3-45]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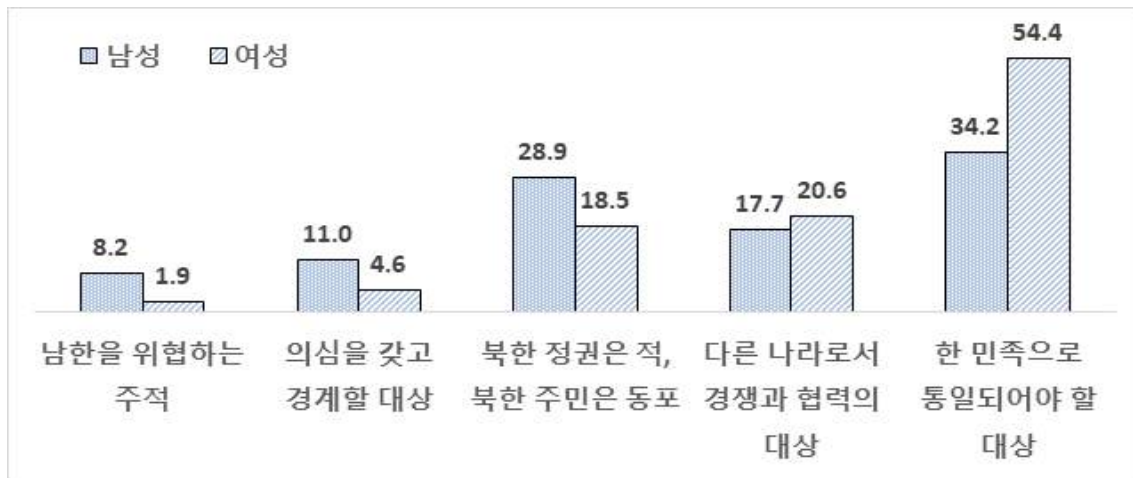
- 1학기 설문분석과 동일하게 2학기 설문분석에서도 성별 통일 및 북한강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음. 이를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해석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②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각각 34.2%, 54.4%로 가장 높음. 통일 강좌 수강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이미지 및 인식 개선이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함

[표 3-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8.2	11.0	28.9	17.7	34.2
여성	100.0	1.9	4.6	18.5	20.6	54.4



[그림 3-46]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사전 설문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사후 분석에서는 남성만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여성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를 적대적 태도 보다 더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표 3-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35.7	4.6	11.8	24.5	11.0	12.4
여성	100.0	25.7	3.3	13.7	36.0	11.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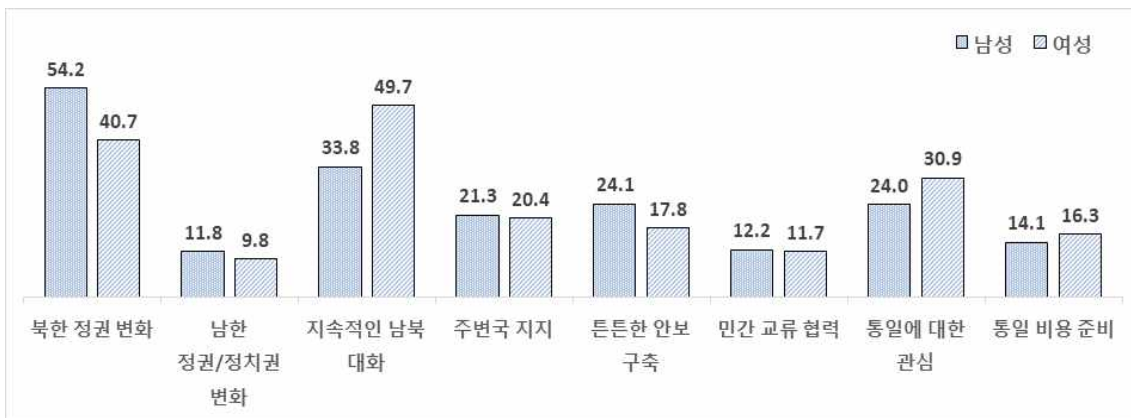
[그림 3-47] 성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사전 설문에서는 남녀 모두 ‘북한 정권의 변화’가 가장 높았으나, 사후 설문에서는 남성만 ‘북한 정권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함. 여성은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평화 정착 및 통일 준비에 더 중요하다고 인식함. 이는 앞선 다른 설문 결과와도 이어지는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3-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남성	54.2	11.8	33.8	21.3	24.1	12.2	24.0	14.1
여성	40.7	9.8	49.7	20.4	17.8	11.7	30.9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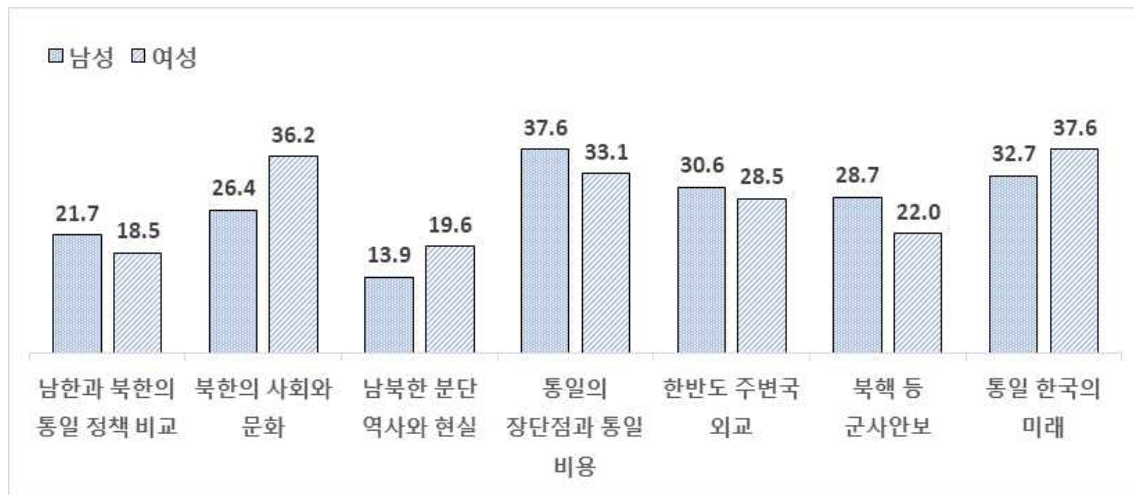
[그림 3-48] 성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37.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통일 한국의 미래’가 37.6%로 가장 높음

[표 3-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21.7	26.4	13.9	37.6	30.6	28.7	32.7
여성	18.5	36.2	19.6	33.1	28.5	22.0	37.6



[그림 3-49]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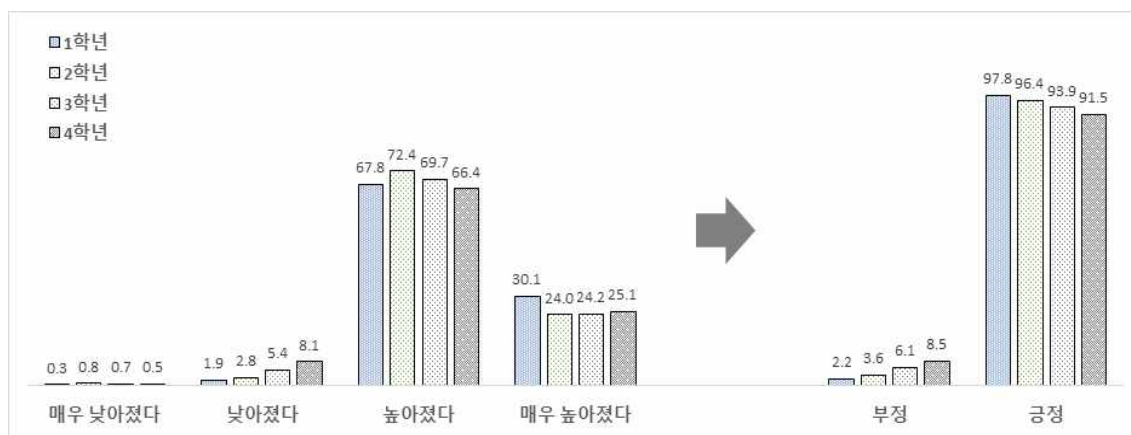
3) 학년별 사후 설문조사 분석 결과⁵⁾

① 학년별 통일 및 북한강좌 만족도

-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 졌다’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부정 비율(낮아 졌다 + 매우 낮아졌다)’ 보다 매우 높음. 다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부정비율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3-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3	1.9	67.8	30.1	2.2	97.8	3.28
2학년	100.0	0.8	2.8	72.4	24.0	3.6	96.4	3.20
3학년	100.0	0.7	5.4	69.7	24.2	6.1	93.9	3.17
4학년	100.0	0.5	8.1	66.4	25.1	8.5	91.5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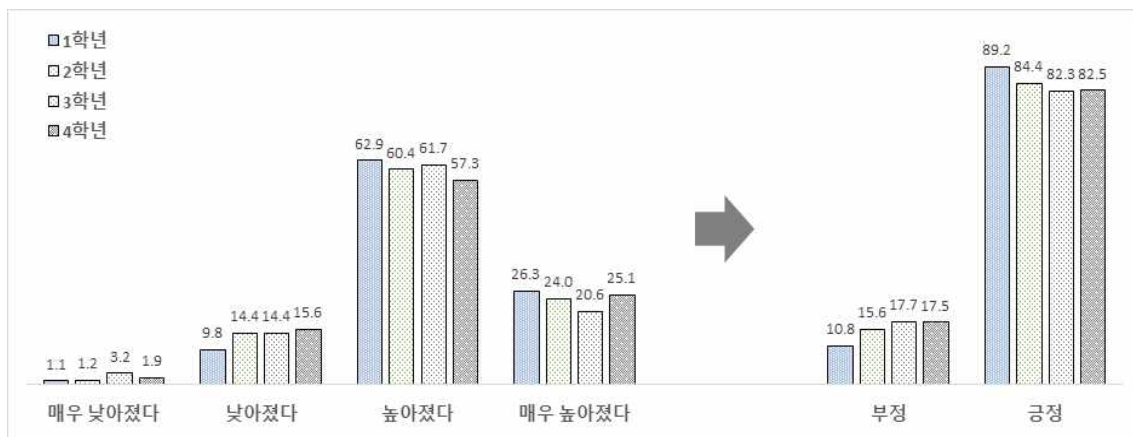
[그림 3-50] 학년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변화

-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 졌다’가 가장 높음.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은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평균점수는 1학년이 3.14점으로 가장 높고, 3학년이 3.00점으로 가장 낮음

5)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3-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1	9.8	62.9	26.3	→	10.8	89.2	3.14
2학년	100.0	1.2	14.4	60.4	24.0		15.6	84.4	3.07
3학년	100.0	3.2	14.4	61.7	20.6		17.7	82.3	3.00
4학년	100.0	1.9	15.6	57.3	25.1		17.5	82.5	3.06



[그림 3-51] 학년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살펴보면, 2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2학년은 ‘도움이 되었다’가 51.2%로 가장 높음.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사전 설문분석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있음. 즉, 수강 전 통일 및 북한에 인지도가 낮을수록 수업을 통한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을 크게 경험함

[표 3-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3	1.4	39.8	58.5	→	1.6	98.4	3.57
2학년	100.0	0.0	1.2	51.2	47.6		1.2	98.8	3.46
3학년	100.0	0.7	5.4	43.7	50.2		6.1	93.9	3.43
4학년	100.0	0.9	5.2	44.5	49.3		6.2	93.8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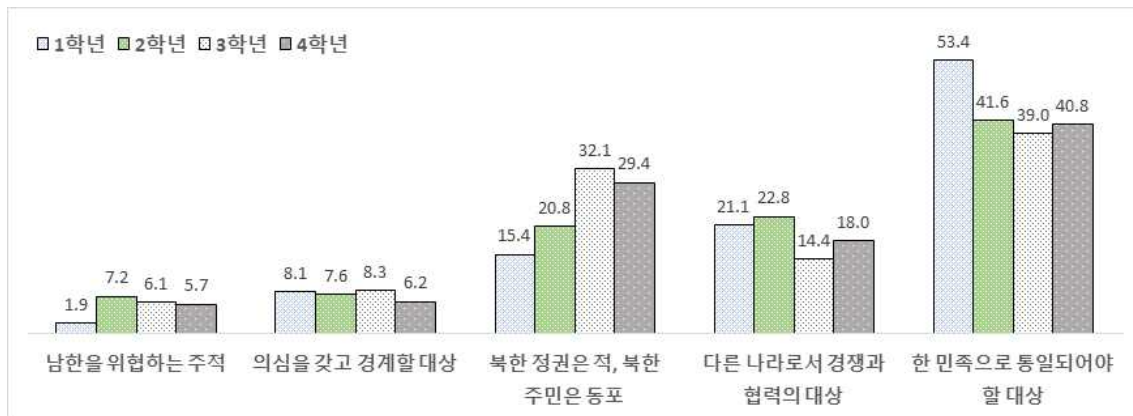
[그림 3-52]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

②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사전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전 학년에서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1학년 53.4%, 2학년 41.6%, 3학년 39.0%, 4학년 40.8%로 전 학년에서 가장 높음. 반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은 소폭 감소하여, 1학년 1.9%, 2학년 7.2%, 3학년 6.1%, 4학년 5.7%로 전 학년에서 가장 낮음

[표 3-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1.9	8.1	15.4	21.1	53.4
2학년	100.0	7.2	7.6	20.8	22.8	41.6
3학년	100.0	6.1	8.3	32.1	14.4	39.0
4학년	100.0	5.7	6.2	29.4	18.0	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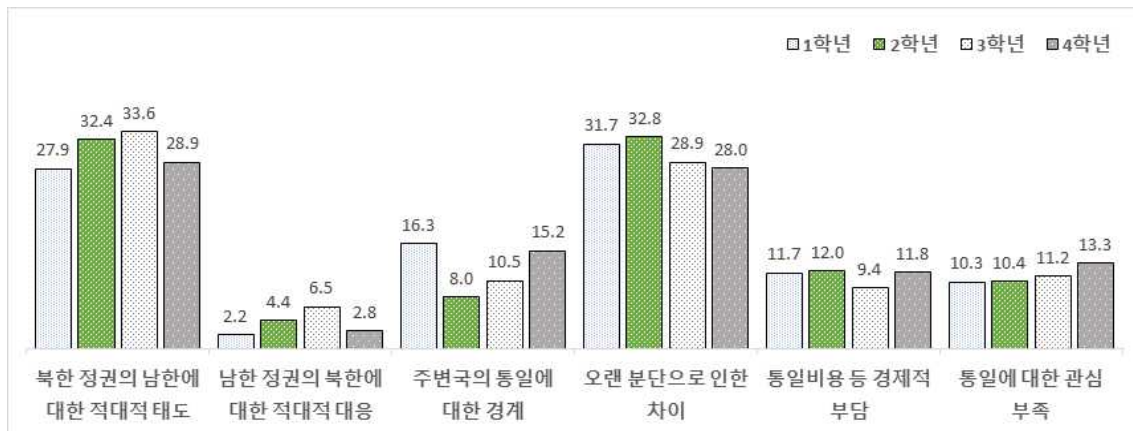
[그림 3-53]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1학년과 2학년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한 반면, 3학년과 4학년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함.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은 전 학년에서 가장 낮음

[표 3-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27.9	2.2	16.3	31.7	11.7	10.3
2학년	100.0	32.4	4.4	8.0	32.8	12.0	10.4
3학년	100.0	33.6	6.5	10.5	28.9	9.4	11.2
4학년	100.0	28.9	2.8	15.2	28.0	11.8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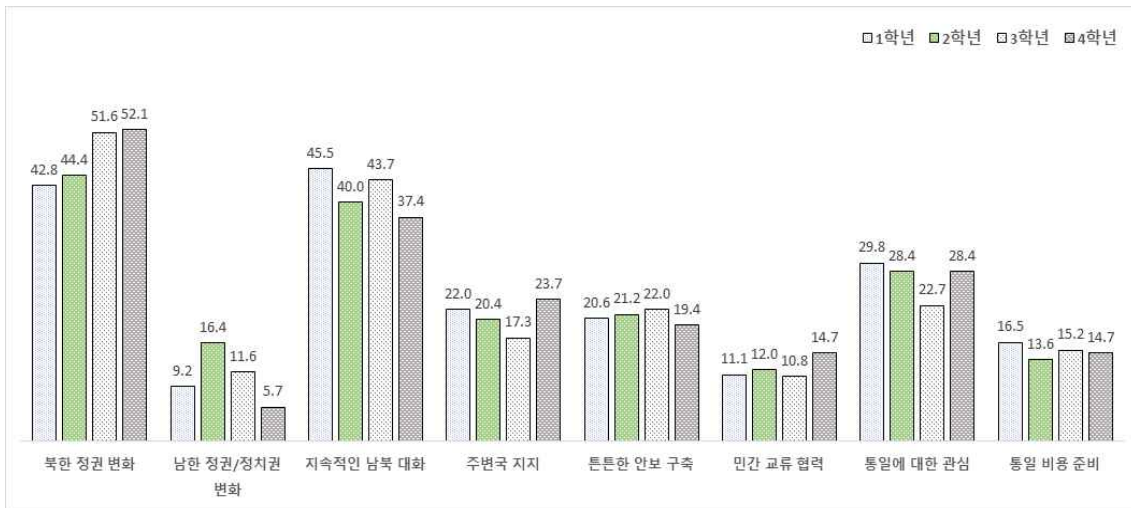
[그림 3-54] 학년별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④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중복응답을 100% 초과 비율로 계산한 결과,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북한 정권 변화’가 가장 높음. 1학년은 ‘지속적인 남북 대화’가 45.5%로 가장 높음

[표 3-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구분	북한 정권 변화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지속적인 남북 대화	주변국 지지	튼튼한 안보 구축	민간 교류 협력	통일에 대한 관심	통일 비용 준비
1학년	42.8	9.2	45.5	22.0	20.6	11.1	29.8	16.5
2학년	44.4	16.4	40.0	20.4	21.2	12.0	28.4	13.6
3학년	51.6	11.6	43.7	17.3	22.0	10.8	22.7	15.2
4학년	52.1	5.7	37.4	23.7	19.4	14.7	28.4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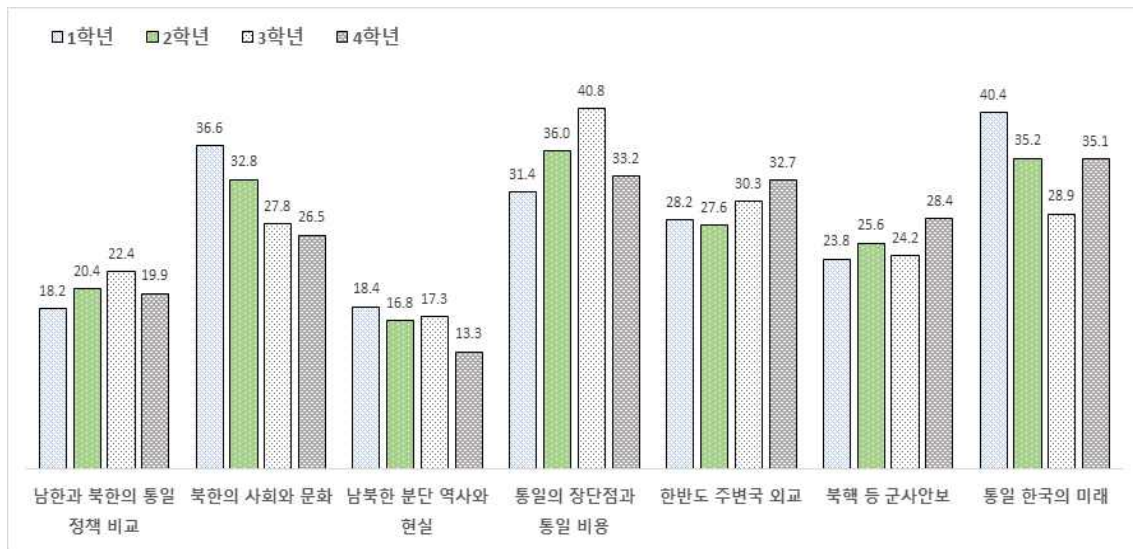
[그림 3-55] 학년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⑤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1학년과 4학년은 ‘통일 한국의 미래’가 각각 40.4%, 35.1%로 가장 높음. 2학년과 3학년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각각 36.0%, 40.8%로 가장 높음

[표 3-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18.2	36.6	18.4	31.4	28.2	23.8	40.4
2학년	20.4	32.8	16.8	36.0	27.6	25.6	35.2
3학년	22.4	27.8	17.3	40.8	30.3	24.2	28.9
4학년	19.9	26.5	13.3	33.2	32.7	28.4	35.1



[그림 3-56]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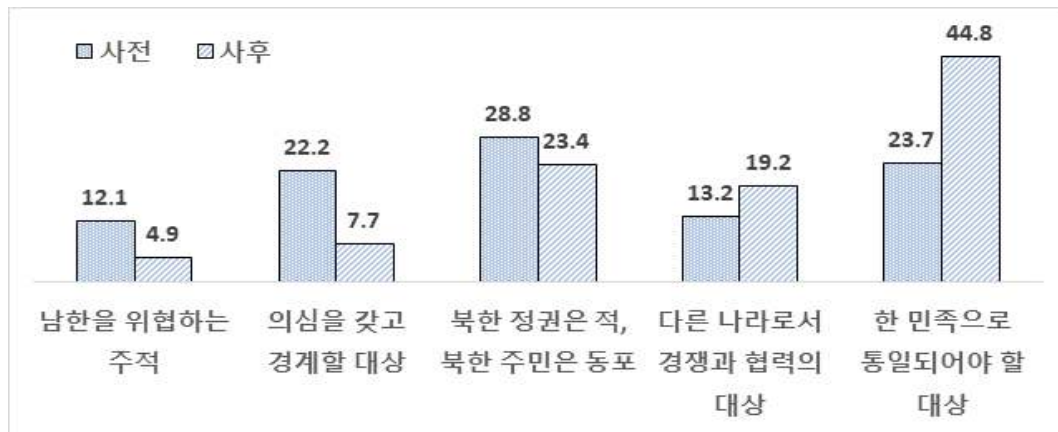
4) 2학기 통일 강좌 사전/사후 설문조사 비교

①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사전, 사후 비교 분석해본 결과, 1학기과 동일하게 통일 및 북한 강좌를 수강한 후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은 증가함. 특히,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은 크게 증가함

[표 3-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B-A)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12.1	4.9	▼ 7.2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22.2	7.7	▼ 14.5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8.8	23.4	▼ 5.4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3.2	19.2	△ 6.0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23.7	44.8	△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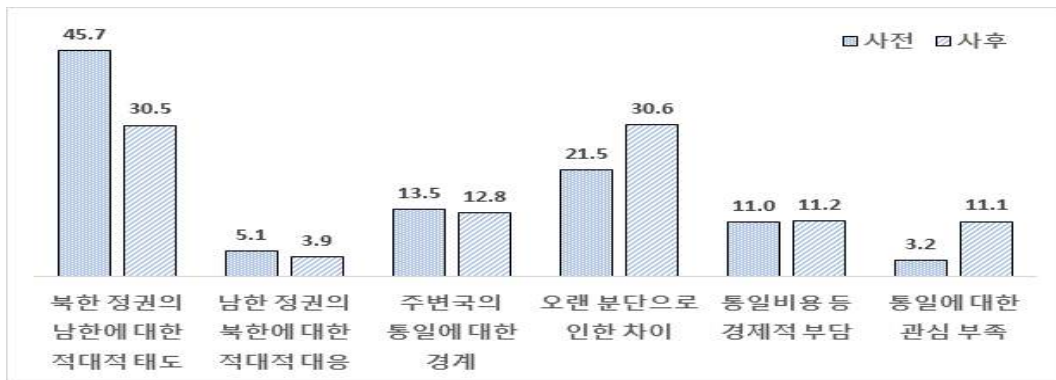
[그림 3-57] 북한에 대한 이미지 사전, 사후 비교

②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 1학기 사전, 사후 분석에서는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학기 사전, 사후 분석에서는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와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함. 1학기과 2학기 응답자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 및 통일 강좌 수강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면서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음

[표 3-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 (B-A)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45.7	30.5	▼ 15.2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1	3.9	▼ 1.2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13.5	12.8	▼ 0.7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1.5	30.6	△ 9.1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1.0	11.2	△ 0.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3.2	11.1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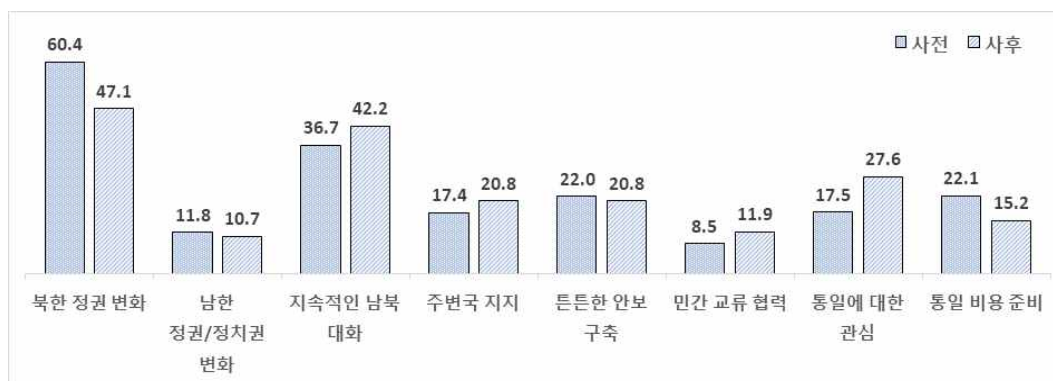
[그림 3-58]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사전, 사후 비교

③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복 응답)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의 준비과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1학기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학기에는 사전, 사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남. 2학기의 경우 강의 수강 이후 ‘북한 정권 변화’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증가함. 이는 강의 수강을 통해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 관련 새로운 지식과 관점을 습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 (B-A)
북한 정권 변화	60.4	47.1	▼ 13.3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11.8	10.7	▼ 1.1
지속적인 남북 대화	36.7	42.2	△ 5.5
주변국 지지	17.4	20.8	△ 3.4
튼튼한 안보 구축	22.0	20.8	▼ 1.2
민간 교류 협력	8.5	11.9	△ 3.4
통일에 대한 관심	17.5	27.6	△ 10.1
통일 비용 준비	22.1	15.2	▼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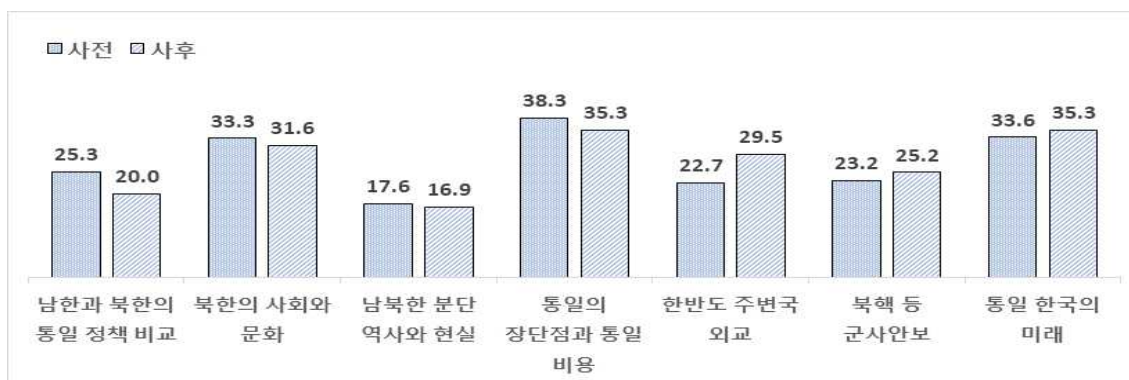
[그림 3-59]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사전, 사후 비교

④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은 1학기과 마찬가지로 사전, 사후 큰 변화가 없음.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가 5.3% 감소하고, ‘한반도 주변국 외교’가 6.8%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임. 이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에 대한 수요가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함

[표 3-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구분	사전(A)	사후(B)	증감율(B-A)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5.3	20.0	▼ 5.3
북한의 사회와 문화	33.3	31.6	▼ 1.7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7.6	16.9	▼ 0.7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38.3	35.3	▼ 3.0
한반도 주변국 외교	22.7	29.5	△ 6.8
북핵 등 군사안보	23.2	25.2	△ 2.0
통일 한국의 미래	33.6	35.3	△ 1.7



[그림 3-60]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 사전, 사후 비교

3. 2학기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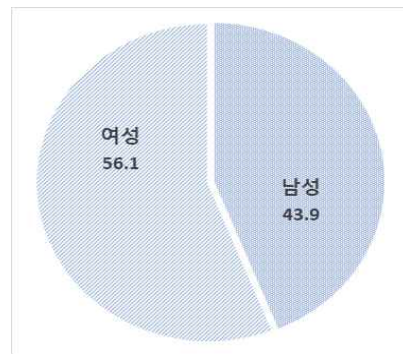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3.9%, 여성이 56.1%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음

[표 3-61]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464	43.9
여성	594	56.1
전체	1,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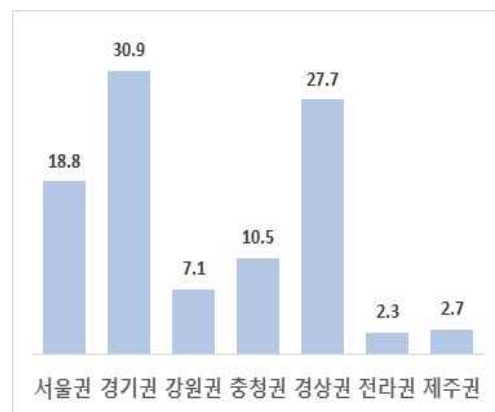


[그림 3-61]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권이 30.9%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상권 27.7%, 서울권 18.8%, 충청권 10.5% 순임

[표 3-62]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199	18.8
경기권	327	30.9
강원권	75	7.1
충청권	111	10.5
경상권	293	27.7
전라권	24	2.3
제주권	29	2.7
전체	1,058	100.0



[그림 3-62]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사회과학대학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대 16.8%, 의약간호대 15.0%, 사범대 13.6%, 자연대 10.4% 순임

[표 3-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178	16.8
사회과학대	297	28.1
경상대	58	5.5
자연대	110	10.4
공과대	58	5.5
농과대	1	0.1
예술대	43	4.1
의약간호대	159	15.0
사범대	144	13.6
법과대	8	0.8
생활과학대	2	0.2
전체	1,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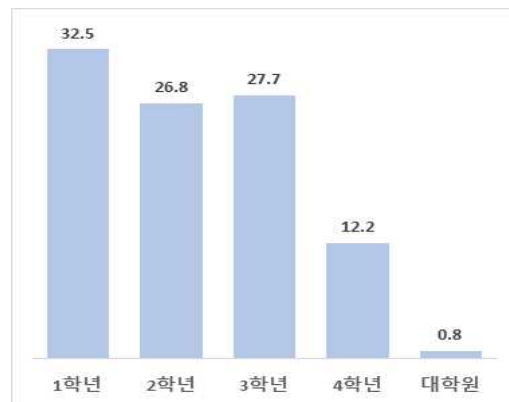


[그림 3-63]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이 3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3학년 27.7%, 2학년 26.8%, 4학년 12.2%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5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64]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344	32.5
2학년	284	26.8
3학년	293	27.7
4학년	129	12.2
대학원	8	0.8
전체	1,058	100.0



[그림 3-64]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높아졌다’가 58.5%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의 비율이 91.9%로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8.1% 보다 매우 높음. 1 학기와 마찬가지로 특강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이뤄짐

[표 3-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1,058 (100.0)	13 (1.2)	73 (6.9)	619 (58.5)	353 (33.4)		86 (8.1)	972 (91.9)	3.24



[그림 3-65]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③ 북한에 대한 이미지

- “귀하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38.0%로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1.3%,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19.9%, ‘의심을 갖고 경계해야 할 대상’ 12.7%,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8.1% 순임. 1학과 마찬가지로 특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실시한 설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강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음

[표 3-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빈도(명)	%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86	8.1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134	12.7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225	21.3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211	19.9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402	38.0
전체	1,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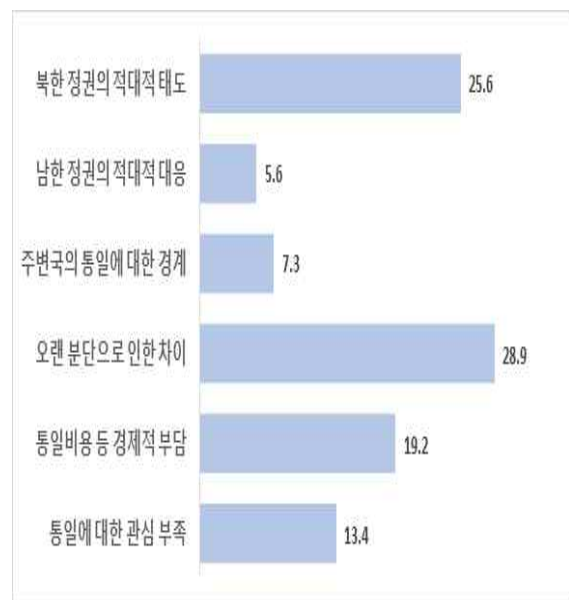
[그림 3-66]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④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귀하는 통일 관련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28.9%로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25.6%,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19.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3.4% 순임

[표 3-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구분	빈도(명)	%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271	25.6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59	5.6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77	7.3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306	28.9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203	19.2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42	13.4
전체	1,0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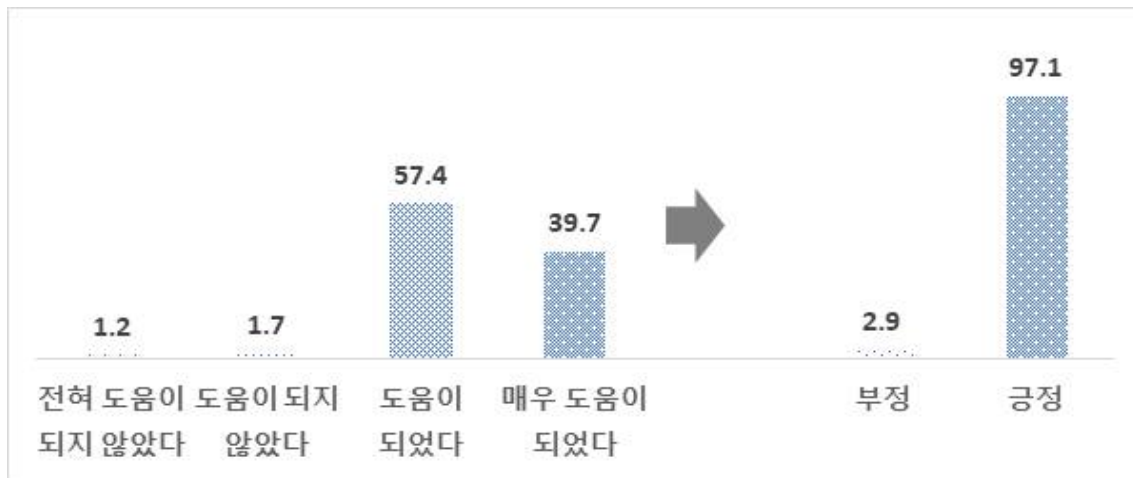
[그림 3-67]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⑤ 통일 특강 만족도

-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과 북한 사회의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가 57.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있다)’이 97.1%로 ‘부정 비율(도움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9% 보다 매우 높음. 1학기과 마찬가지로 이는 그동안 몰랐던 통일과 북한 사회의 이해가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표 3-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	1,058 (100.0)	13 (1.2)	18 (1.7)	607 (57.4)	420 (39.7)		31 (2.9)	1,027 (97.1)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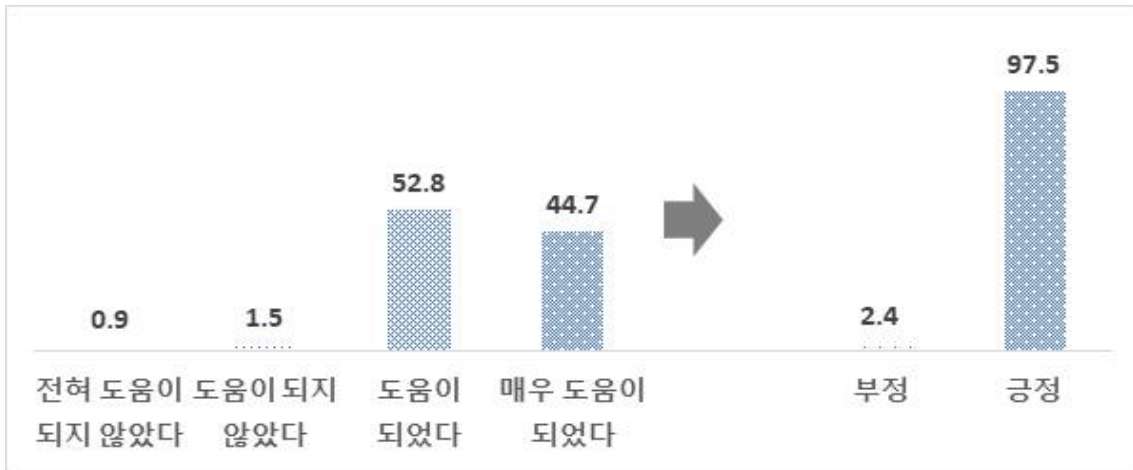


[그림 3-68]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귀하에게 이 강의는 통일, 북한에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가 52.8%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있다)’이 97.5%로 ‘부정 비율(도움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4% 보다 매우 높음. 이는 1학기과 마찬가지로 정보전달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이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지식과 정보 획득	1,058 (100.0)	10 (0.9)	16 (1.5)	559 (52.8)	473 (44.7)		26 (2.4)	1,032 (97.5)	3.41



[그림 3-69]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 북한 관련 강의(학습)에 더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하고 싶다’가 5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참여 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92.0%로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8.1% 보다 매우 높음. 1학기과 마찬가지로 통일 특강 참여자들의 재참여 의사는 매우 높은 편임

[표 3-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향후 참여 의향	1,058 (100.0)	9 (0.9)	76 (7.2)	604 (57.1)	369 (34.9)	85 (8.1)	973 (92.0)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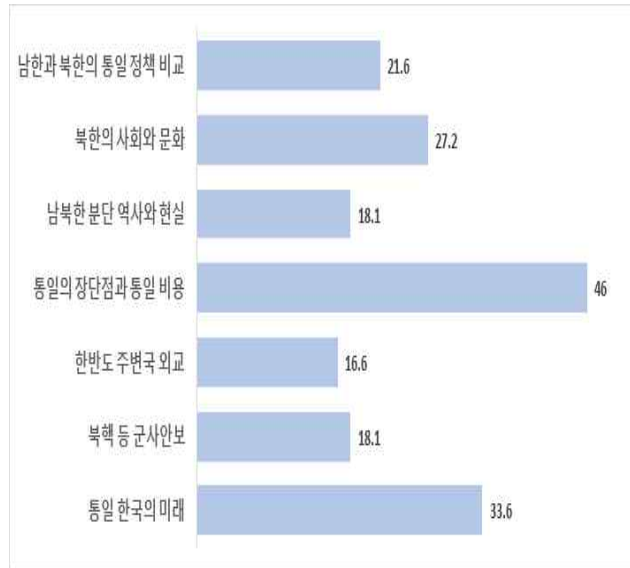
[그림 3-70]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⑥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 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46.0%로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33.6%, ‘북한의 사회와 문화’ 27.2%순임

[표 3-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229	21.6
북한의 사회와 문화	288	27.2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192	18.1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487	46.0
한반도 주변국 외교	176	16.6
북핵 등 군사안보	191	18.1
통일 한국의 미래	355	33.6



[그림 3-71]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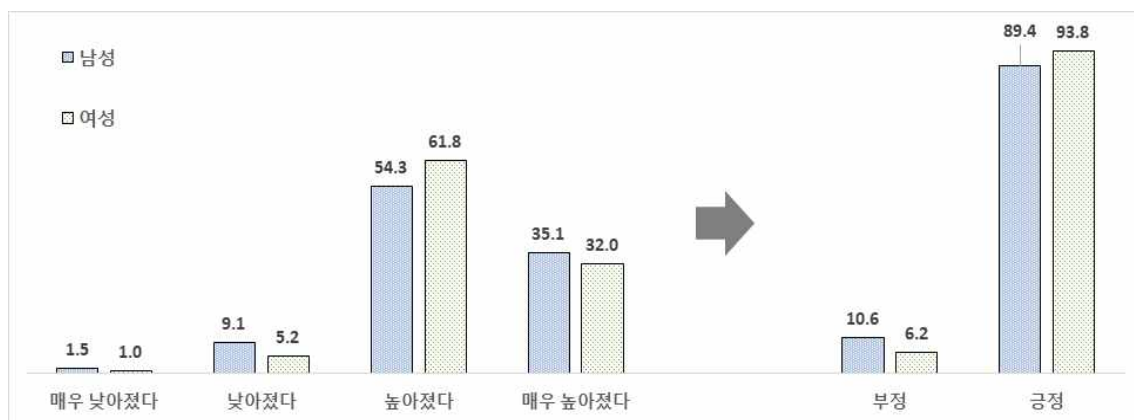
2) 성별 통일 특강 설문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성별 통일 특강 이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높아졌다’가 각각 54.3%, 61.8%로 가장 높음. 그리고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 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이 ‘부정 비율(낮아졌다+ 매우 낮아졌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1학기과 마찬가지로 통일 특강을 통해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가 이뤄졌음을 의미함

[표 3-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5	9.1	54.3	35.1	→	10.6	89.4	3.23
여성	100.0	1.0	5.2	61.8	32.0		6.2	93.8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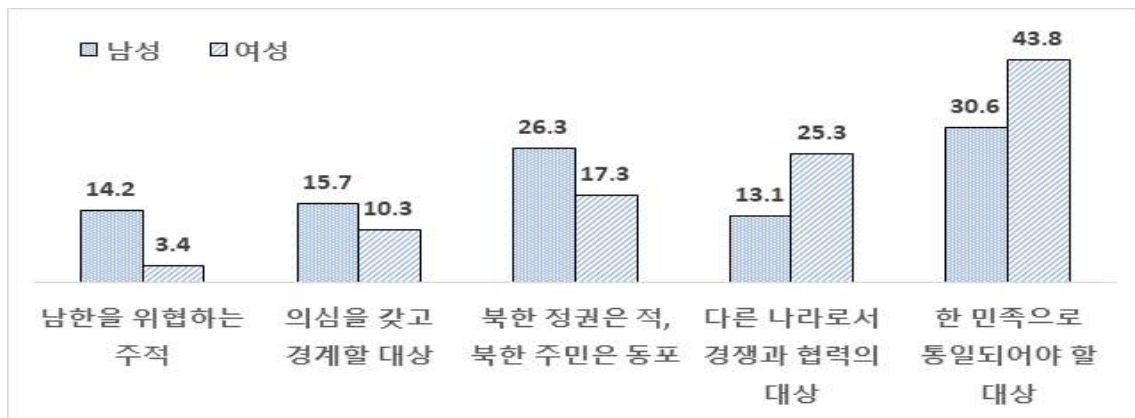
[그림 3-72] 성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②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민족으로 통일 되어야 할 대상’이 30.6%, 43.8%로 가장 높음. 다만, 남성은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이 15.7%,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 14.2%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에 비해 높음.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25.3%로 북한을 협력과 교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표 3-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남성	100.0	14.2	15.7	26.3	13.1	30.6
여성	100.0	3.4	10.3	17.3	25.3	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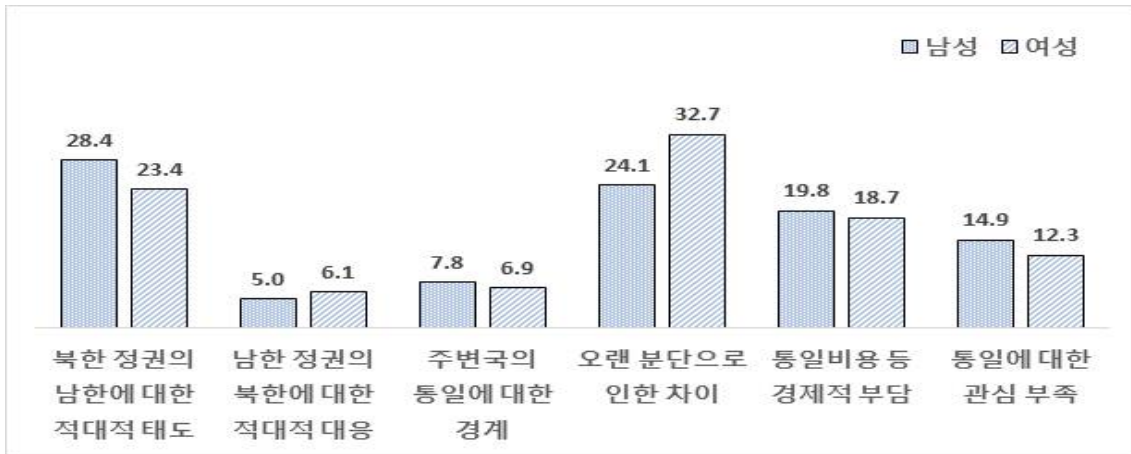
[그림 3-73] 성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남성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28.4%로 가장 높음. 여성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32.7%로 가장 높음. 성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3-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남성	100.0	28.4	5.0	7.8	24.1	19.8	14.9
여성	100.0	23.4	6.1	6.9	32.7	18.7	12.3



[그림 3-74] 성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④ 성별 통일 특강 만족도

-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정도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도움이 되었다’가 54.3%, 59.8%로 가장 높음.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1학기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에 참여한 학생 모두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함

[표 3-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1.3	2.6	54.3	41.8	→	3.9	96.1	3.37
여성	100.0	1.2	1.0	59.8	38.0		2.2	97.8	3.35



[그림 3-75] 성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성별 통일 특강을 통한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도움이 되었다’가 50.4%, 54.7%로 가장 높음. 성별과 관계없이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보다 매우 높음. 이는 1학기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에 참여한 학생 모두 통일과 북한 사회에 지식 및 정보 획득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의미함

[표 3-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9	2.6	50.4	46.1	→	3.4	96.6	3.42
여성	100.0	1.0	0.7	54.7	43.6		1.7	98.3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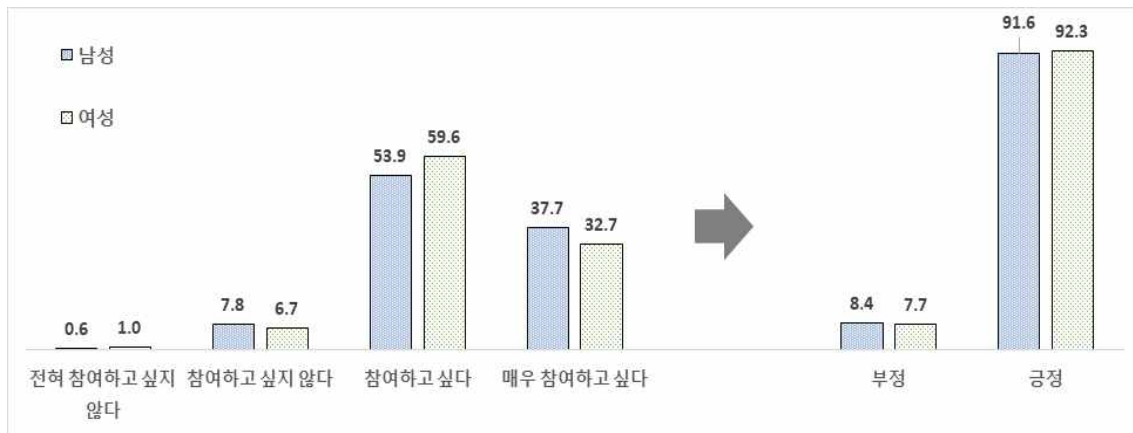


[그림 3-76] 성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참여하고 싶다’가 53.9%, 59.6%로 가장 높음. 남성과 여성 모두 ‘긍정 비율(참여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보다 매우 높음

[표 3-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6	7.8	53.9	37.7	→	8.4	91.6	3.29
여성	100.0	1.0	6.7	59.6	32.7		7.7	92.3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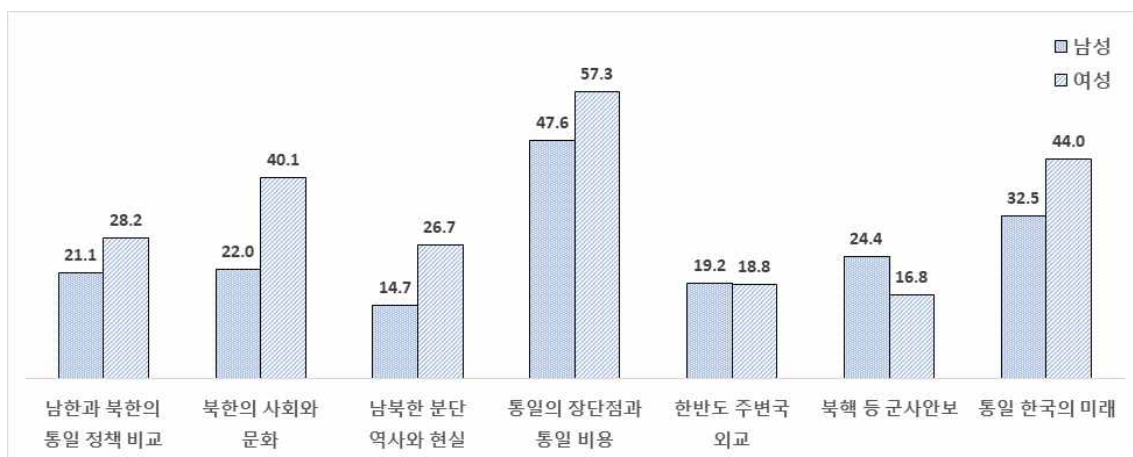
[그림 3-77] 성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⑤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47.6%, 57.3%로 가장 높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북핵 등 군사안보'가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등이 높음

[표 3-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남성	21.1	22.0	14.7	47.6	19.2	24.4	32.5
여성	28.2	40.1	26.7	57.3	18.8	16.8	44.0



[그림 3-78]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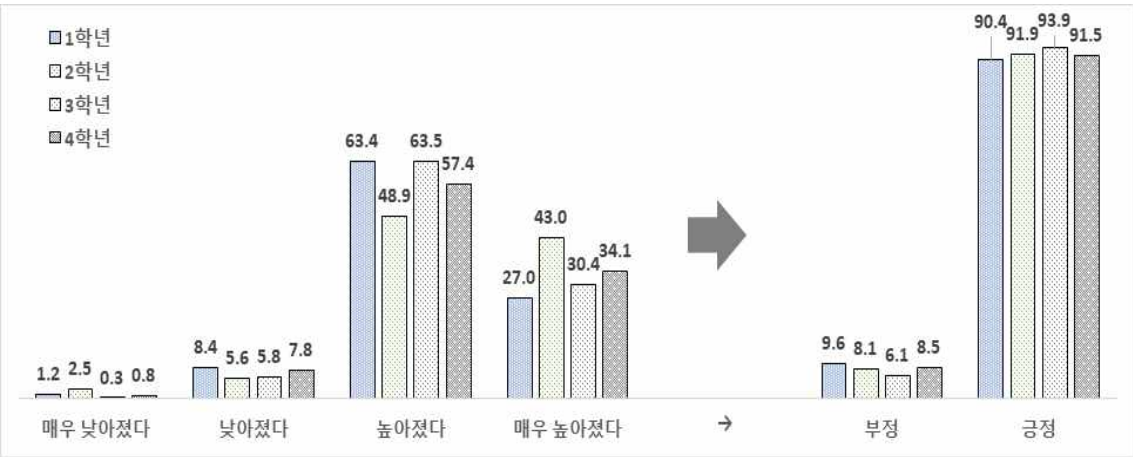
3) 학년별 통일 특강 설문조사 분석 결과⁶⁾

①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학년별 통일 특강 참여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높아졌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비율(높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가 ‘부정 비율(낮아졌다 + 매우 낮아졌다)’ 보다 매우 높음. 평균점수는 1학년이 3.16점, 2학년 3.32점, 3학년 3.24점, 4학년 3.25점임

[표 3-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전체	매우 낮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매우 높아졌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2	8.4	63.4	27.0	→	9.6	90.4	3.16
2학년	100.0	2.5	5.6	48.9	43.0		8.1	91.9	3.32
3학년	100.0	0.3	5.8	63.5	30.4		6.1	93.9	3.24
4학년	100.0	0.8	7.8	57.4	34.1		8.5	91.5	3.25



[그림 3-79] 학년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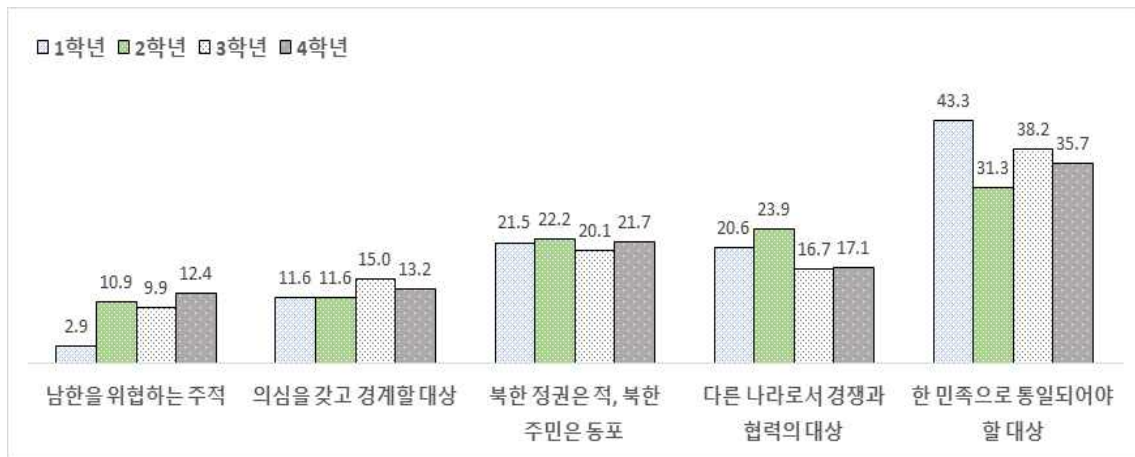
②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가장 높음. 이어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6) 대학원 응답자는 빈도수가 적어 교차 분석에서 제외함

[표 3-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구분	전체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학년	100.0	2.9	11.6	21.5	20.6	43.3
2학년	100.0	10.9	11.6	22.2	23.9	31.3
3학년	100.0	9.9	15.0	20.1	16.7	38.2
4학년	100.0	12.4	13.2	21.7	17.1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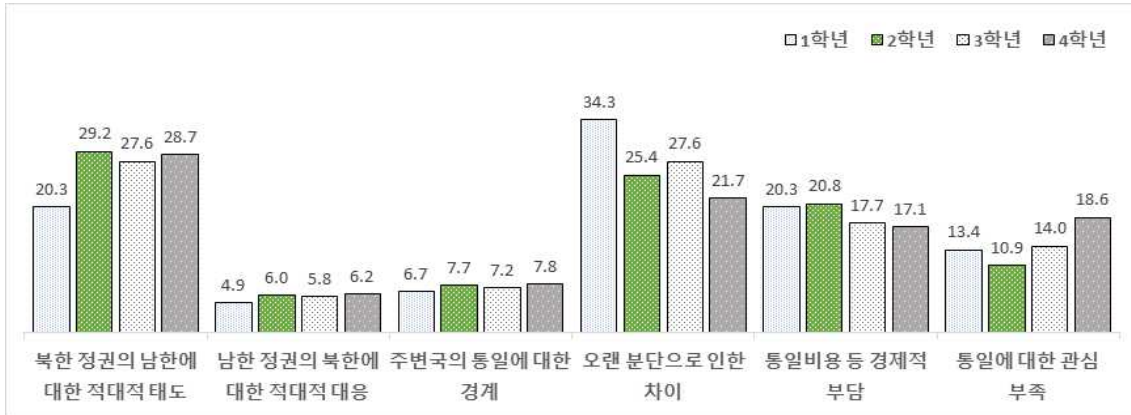
[그림 3-80] 학년별 북한에 대한 이미지

③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를 살펴보면, 1학년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34.3%로 가장 높음. 2학년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29.2%, 3학년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가 각각 27.6%, 4학년은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28.7%로 가장 높음

[표 3-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구분	전체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응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1학년	100.0	20.3	4.9	6.7	34.3	20.3	13.4
2학년	100.0	29.2	6.0	7.7	25.4	20.8	10.9
3학년	100.0	27.6	5.8	7.2	27.6	17.7	14.0
4학년	100.0	28.7	6.2	7.8	21.7	17.1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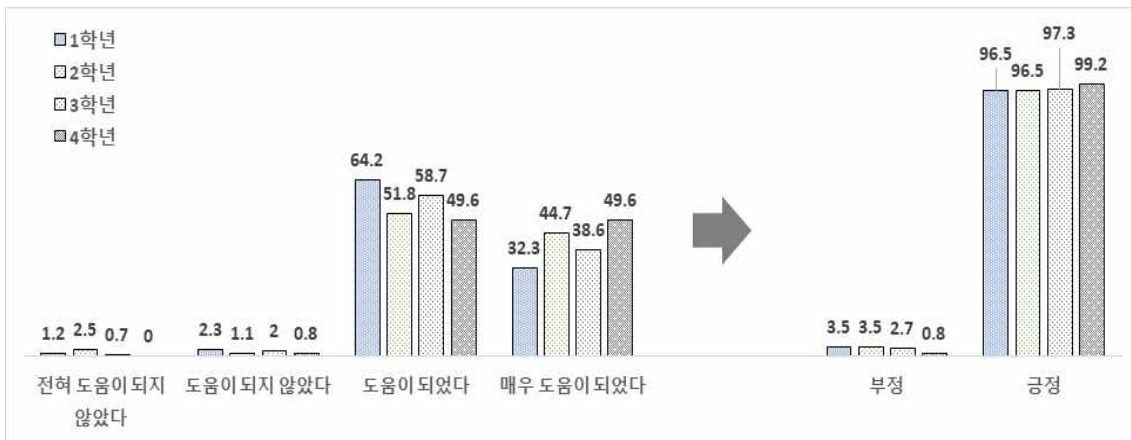
[그림 3-81] 학년별 통일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

④ 학년별 통일 특강 만족도

-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정도를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1학기과 마찬가지로 학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이 학생들의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2	2.3	64.2	32.3	3.5	96.5	3.28
2학년	100.0	2.5	1.1	51.8	44.7	3.5	96.5	3.39
3학년	100.0	0.7	2.0	58.7	38.6	2.7	97.3	3.35
4학년	100.0	0.0	0.8	49.6	49.6	0.8	99.2	3.49



[그림 3-82] 학년별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을 살펴보면,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4학년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8.1로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이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이는 1 학기와 마찬가지로 학년과 관계없이 통일 특강이 학생들의 통일과 북한 사회 관련 정보 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2	1.5	60.5	36.9	→	2.6	97.4	3.33
2학년	100.0	1.4	1.1	50.4	47.2		2.5	97.5	3.43
3학년	100.0	0.7	1.7	52.6	45.1		2.4	97.6	3.42
4학년	100.0	0.0	2.3	39.5	58.1		2.3	97.7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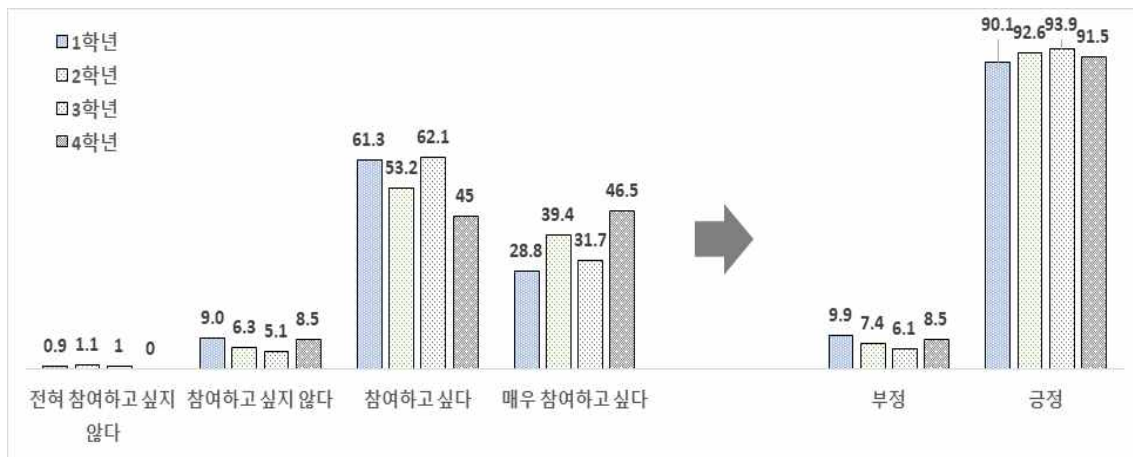


[그림 3-83] 학년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에서 ‘참여하고 싶다’가 가장 높음. 4학년은 ‘매우 참여하고 싶다’가 46.5%로 가장 높음. 그리고 전 학년에서 ‘긍정 비율(참여하고 싶다 + 매우 참여하고 싶다)’이 ‘부정 비율(참여하고 싶지 않다 +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다 매우 높음. 이는 1 학기와 마찬가지로 학년과 관계없이 참여자들 대부분이 통일 특강 재참여 의사가 있음을 시사함

[표 3-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구분	전체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9	9.0	61.3	28.8	→	9.9	90.1	3.18
2학년	100.0	1.1	6.3	53.2	39.4		7.4	92.6	3.31
3학년	100.0	1.0	5.1	62.1	31.7		6.1	93.9	3.25
4학년	100.0	0.0	8.5	45.0	46.5		8.5	91.5	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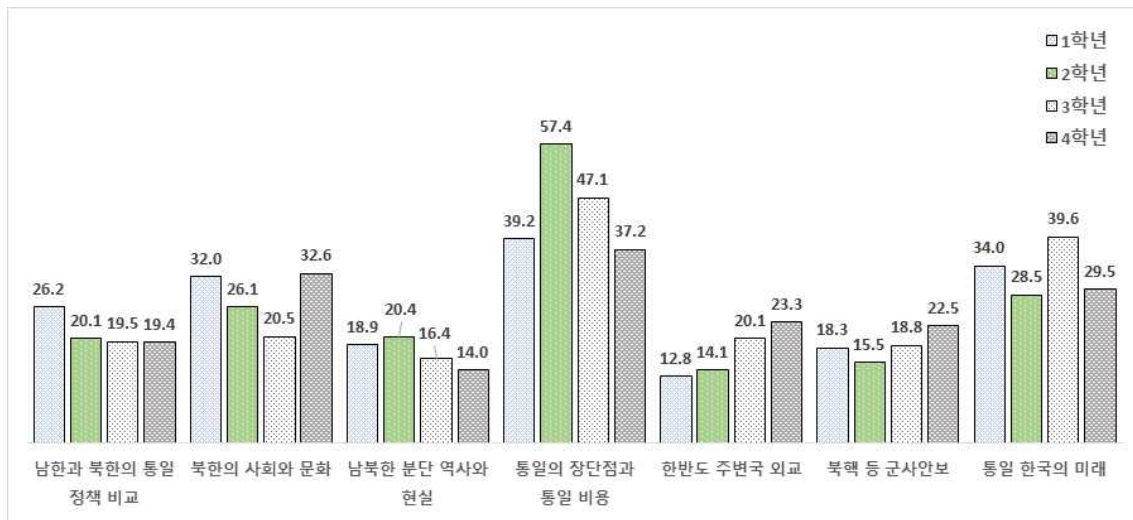
[그림 3-84] 학년별 향후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나 학습에 참여할 의향

⑤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 성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를 100% 초과 비율로 분석한 결과, 전 학년에서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이 가장 높음. 이어 ‘통일 한국의 미래’, ‘북한의 사회와 문화’가 다른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구분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북한의 사회와 문화	남북한 분단 역사와 현실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한반도 주변국 외교	북핵 등 군사안보	통일 한국의 미래
1학년	26.2	32.0	18.9	39.2	12.8	18.3	34.0
2학년	20.1	26.1	20.4	57.4	14.1	15.5	28.5
3학년	19.5	20.5	16.4	47.1	20.1	18.8	39.6
4학년	19.4	32.6	14.0	37.2	23.3	22.5	29.5



[그림 3-85] 학년별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중복응답)

4. 2학기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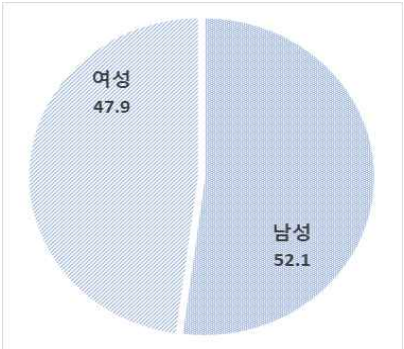
1) 일반 분석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2.1%, 여성이 47.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음

[표 3-86]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
남성	135	52.1
여성	124	47.9
전체	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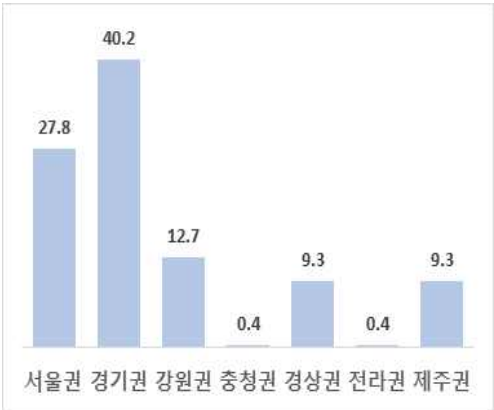


[그림 3-86] 응답자의 성별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경기권이 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권 27.8%, 강원권 12.7%, 경상권, 제주권 각각 9.3% 순임

[표 3-87] 응답자의 거주지역

구분	빈도(명)	%
서울권	72	27.8
경기권	104	40.2
강원권	33	12.7
충청권	1	0.4
경상권	24	9.3
전라권	1	0.4
제주권	24	9.3
전체	259	100.0



[그림 3-87] 응답자의 거주지역

-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은 사범대가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과학대 23.6%, 인문대 17.8%, 경상대 12.0% 순임

[표 3-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구분	빈도(명)	%
인문대	46	17.8
사회과학대	61	23.6
경상대	31	12.0
자연대	12	4.6
공과대	11	4.2
농과대	1	0.4
예술대	8	3.1
의약간호대	15	5.8
사범대	74	28.6
전체	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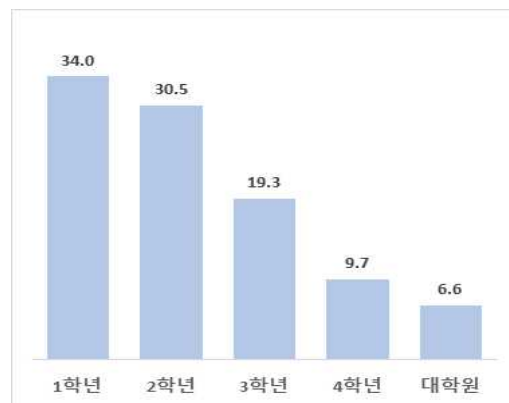


[그림 3-88] 응답자의 소속 단과대학

-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이 34.0%로 가장 높았고, 이어 2학년 30.5%, 3학년 19.3%, 4학년 9.7% 순임. 1학년과 2학년의 비율이 6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89] 응답자의 학년

구분	빈도(명)	%
1학년	88	34.0
2학년	79	30.5
3학년	50	19.3
4학년	25	9.7
대학원	17	6.6
전체	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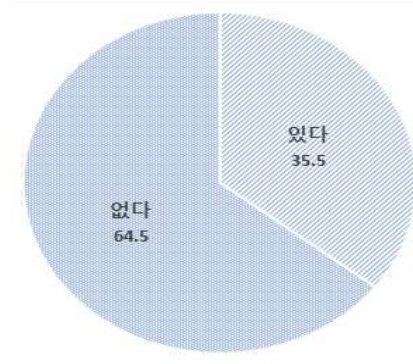
[그림 3-89] 응답자의 학년

②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

- “귀하는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에 참여(수강)한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있다’ 35.5%, ‘없다’ 64.5%로 1학기과 달리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 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함

[표 3-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구분	빈도(명)	%
있다	92	35.5
없다	167	64.5
전체	2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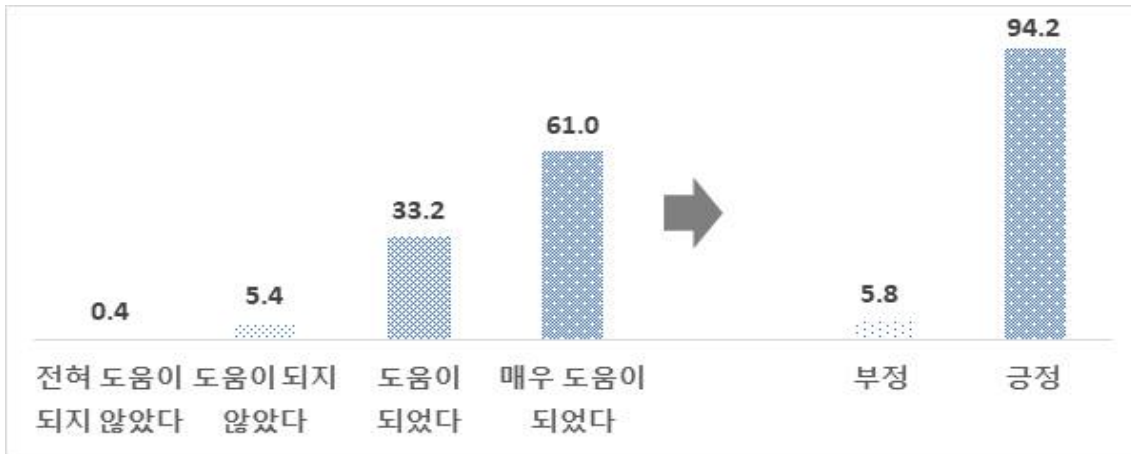
[그림 3-90] 통일 및 북한관련 강의 수강 경험

③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이번 현장학습이 귀하의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1.0%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비율이 94.2%로 ‘부정 비율(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5.8% 보다 매우 높음. 1학기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대부분이 현장학습이 통일 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표 3-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통일문제와 북한 이해 도움정도	259 (100.0)	1 (0.4)	14 (5.4)	86 (33.2)	158 (61.0)	15 (5.8)	244 (94.2)	3.55



[그림 3-91]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④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장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적절했다’가 73.7%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의 비율이 96.5%로 ‘부정 비율(적절하지 않았다 +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3.5% 보다 매우 높음. 1학기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의 장소가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매우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3-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구분	전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부정	긍정	평균
장소의 적절성	259 (100.0)	0 (0.0)	9 (3.5)	59 (22.8)	191 (73.7)	9 (3.5)	250 (96.5)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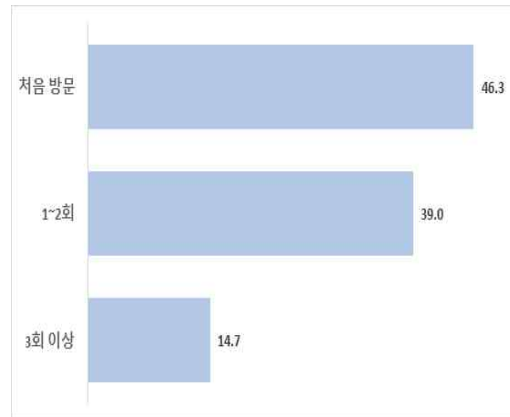
[그림 3-92]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⑤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 “통일, 북한 관련 장소를 앞서 방문했던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 방문’이 46.3%로 가장 많았고, 이어 ‘1~2회 방문’이 39.0%, ‘3회 이상’이 14.7% 순임. 현장 학습의 경우 이전에 현장 학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재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

[표 3-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구분	빈도(명)	%
처음 방문	120	46.3
1~2회	101	39.0
3회 이상	38	14.7
전체	259	100



[그림 3-93] 통일·북한 관련 장소 방문 경험

⑥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66.4%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 비율(추천하고 싶다 + 매우 추천하고 싶다)’의 비율이 95.0%로 ‘부정 비율(추천할 생각 없다 +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5.0% 보다 매우 높음. 1학기과 마찬가지로 현장 체험 학습의 높은 만족도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3-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추천의향	259 (100.0)	1 (0.4)	12 (4.6)	74 (28.6)	172 (66.4)	13 (5.0)	246 (95.0)	3.61



[그림 3-94]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⑦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을 중복응답 합 100%초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현장 체험 학습’이 7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34.0%, ‘전문가 대면 특강’ 25.5%, ‘영화 혹은 드라마’ 15.8% 순임.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선호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매우 높음. 이는 현장 체험 학습에 대한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3-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빈도(명)	%
사이버 강의	24	9.3
현장 체험 학습	206	79.5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88	34.0
전문가 대면 특강	66	25.5
대학 내 동아리 활동	25	9.7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논문)	6	2.3
영화 혹은 드라마	41	15.8



[그림 3-95]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2) 성별 현장체험학습 설문 분석 결과

①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성별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60.0%, 62.1%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도움이 되었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은 92.6%로 여성의 ‘긍정 비율’ 96.0% 보다 약간 낮음. 1학과 마찬가지로 성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표 3-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0	7.4	32.6	60.0		7.4	92.6	3.53
여성	100.0	0.8	3.2	33.9	62.1		4.0	96.0	3.57



[그림 3-96] 성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②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성별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적절했다’가 68.9%, 79.0%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적절했다 + 매우 적절했다)’은 93.3%로 여성의 ‘긍정 비율’ 100.0% 보다 약간 낮음. 1학과와 마찬가지로 성별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체험학습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했을 때 방문한 장소가 매우 적절했다고 인식함

[표 3-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0	6.7	24.4	68.9	→	6.7	93.3	3.62
여성	100.0	0.0	0.0	21.0	79.0		0.0	100.0	3.79



[그림 3-97] 성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③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성별 현장체험학습 추천의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59.3%, 74.2%로 가장 높음. 남성의 ‘긍정 비율(추천하고 싶다 + 매우 추천하고 싶다)’은 91.1%로 여성의 ‘긍정 비율’ 99.2% 보다 낮음. 성별 차이는 있었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다른 학생에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추천할 의향이 높음

[표 3-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남성	100.0	0.7	8.1	31.9	59.3	→	8.9	91.1	3.50
여성	100.0	0.0	0.8	25.0	74.2		0.8	99.2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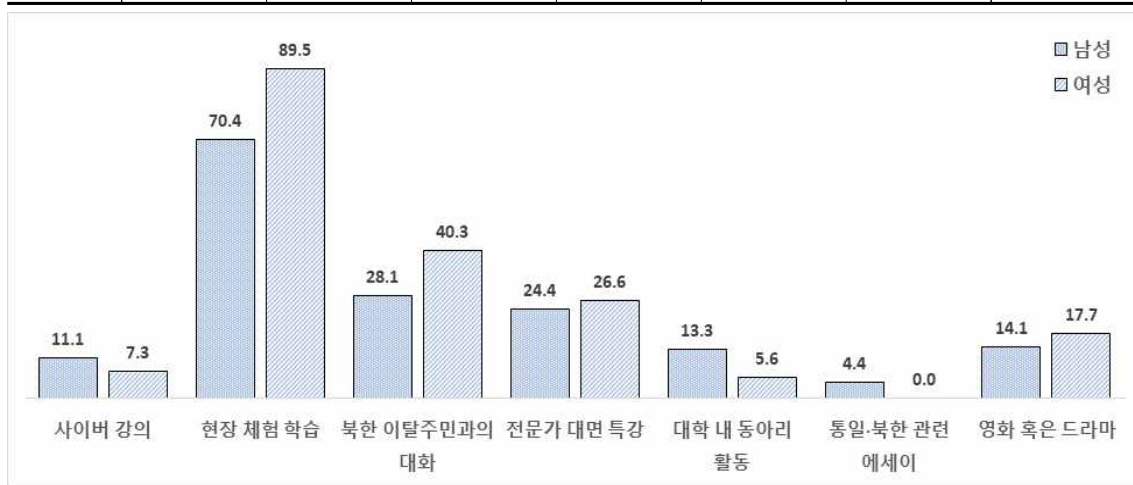
[그림 3-98] 성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④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성별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현장 체험 학습’이 70.4%, 89.5%로 가장 높음. ‘현장 체험 학습’의 남성과 여성 모두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을 선호함

[표 3-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사이버 강의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	대학 내 동아리 활동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	영화 혹은 드라마
남성	11.1	70.4	28.1	24.4	13.3	4.4	14.1
여성	7.3	89.5	40.3	26.6	5.6	0.0	17.7



[그림 3-99] 성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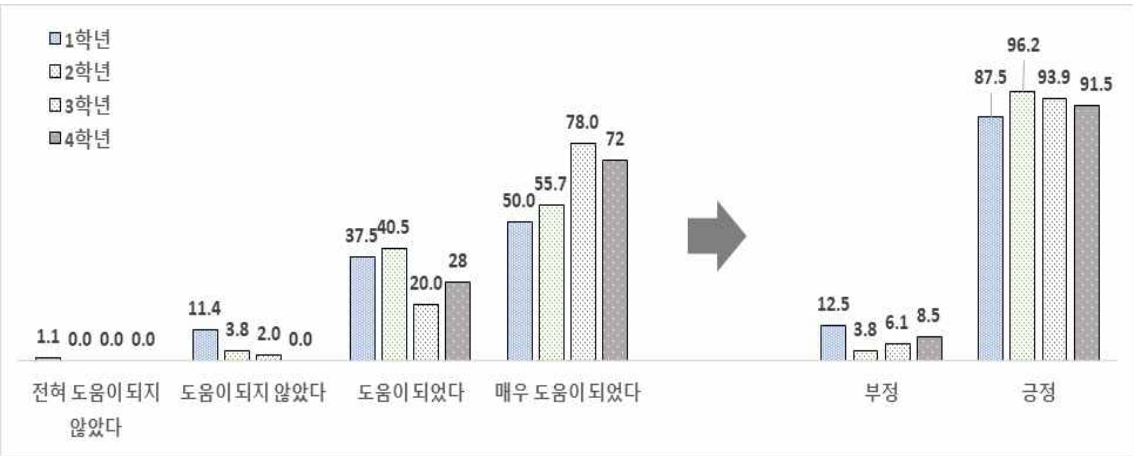
3)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설문조사 분석 결과

①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이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3학년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학년 3.72점, 2학년 3.52점, 1학년 3.36점 순임

[표 3-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1	11.4	37.5	50.0	→	12.5	87.5	3.36
2학년	100.0	0.0	3.8	40.5	55.7		3.8	96.2	3.52
3학년	100.0	0.0	2.0	20.0	78.0		2.0	98.0	3.76
4학년	100.0	0.0	0.0	28.0	72.0		0.0	100.0	3.72



[그림 3-100] 학년별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에 대한 인식

②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매우 적절했다’가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4학년이 3.8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학년 3.78점, 2학년 3.71점, 1학년 3.58점 순임

[표 3-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구분	전체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하지 않았다	적절했다	매우 적절했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0.0	5.7	30.7	63.6	5.7	94.3	3.58
2학년	100.0	0.0	2.5	24.1	73.4	2.5	97.5	3.71
3학년	100.0	0.0	4.0	14.0	82.0	4.0	96.0	3.78
4학년	100.0	0.0	0.0	12.0	88.0	0.0	100.0	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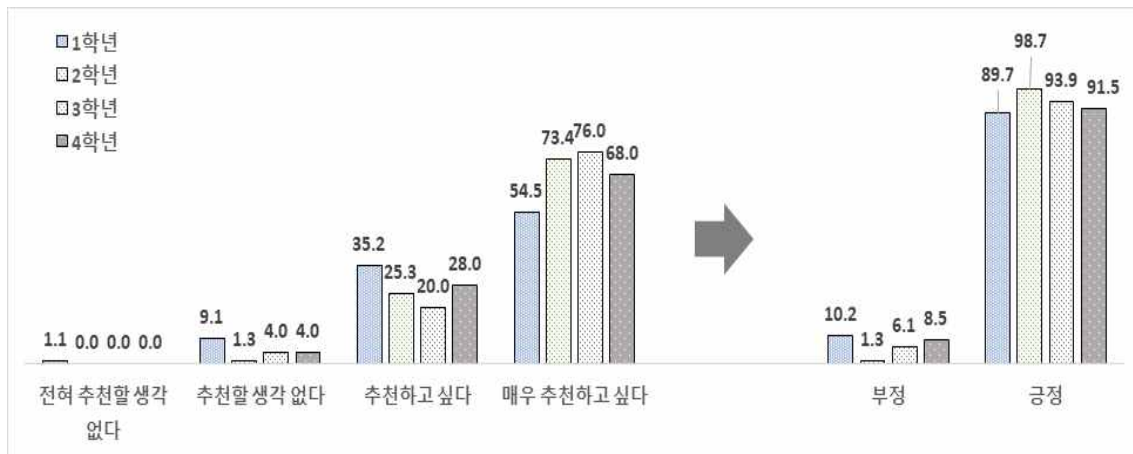
[그림 3-101] 학년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③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추천의향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매우 추천하고 싶다’가 가장 높음. 평균점수는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학년 3.64점, 1학년 3.43점 순임

[표 3-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구분	전체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할 생각 없다	추천하고 싶다	매우 추천하고 싶다	부정	긍정	평균
1학년	100.0	1.1	9.1	35.2	54.5	10.2	89.8	3.43
2학년	100.0	0.0	1.3	25.3	73.4	1.3	98.7	3.72
3학년	100.0	0.0	4.0	20.0	76.0	4.0	96.0	3.72
4학년	100.0	0.0	4.0	28.0	68.0	4.0	96.0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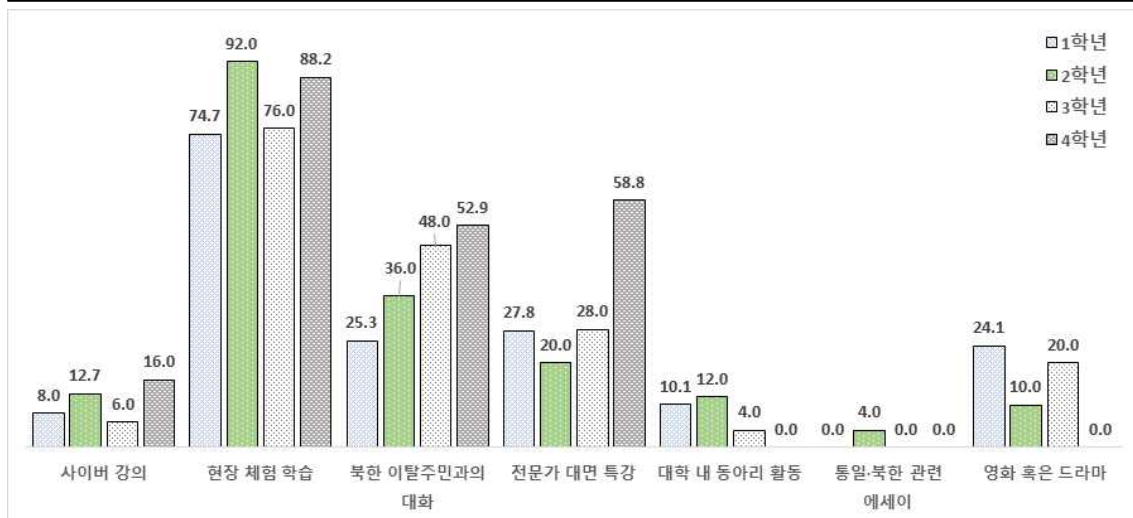
[그림 3-102] 학년별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의향

④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식을 살펴보면, 전 학년에서 ‘현장 체험 학습’이 가장 높음. 현장 체험 학습 이외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와 ‘전문가 대면 특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표 3-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구분	사이버 강의	현장 체험 학습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	대학 내 동아리 활동	통일·북한 관련 에세이	영화 혹은 드라마
1학년	8.0	74.7	25.3	27.8	10.1	0.0	24.1
2학년	12.7	92.0	36.0	20.0	12.0	4.0	10.0
3학년	6.0	76.0	48.0	28.0	4.0	0.0	20.0
4학년	16.0	88.2	52.9	58.8	0.0	0.0	0.0



[그림 3-103] 학년별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중복응답)

4장 결론

1. 주요 사항 정리
2. 제언

4장 결론

1. 대학생 통일강좌 및 통일특강 사업 설문분석 결과 요약

1) 통일강좌 사업

- 통일강좌 사업의 경우 사전 설문분석과 사후 설문분석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1학기 및 2학기 모두 공통적으로 참여 학생들 대부분이 이전에 통일 교육 및 북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없음. 통일 교육 및 북한 관련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일 수록 평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정부 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음. 이번 사전/사후 분석에 있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남
-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남북한 문제 및 통일에 대한 관심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 통일 강좌 이후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증가함. 그리고 강의 수강을 통한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의 효용성을 크게 느낌
- 이러한 강좌 이후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평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해 새로운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라고 볼 수 있음.
-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통일 강좌 참여에 따른 높은 만족도와 효용감을 보였으며, 이는 본 사업이 설정한 사업성과인 ‘통일의식 향상’을 보여주는 결과임
- 통일강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등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특히,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 두드러진 변화를 보임

- 통일강좌를 수강하기 이전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나, 통일 강좌를 수강한 후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짐. 이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강좌를 수강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은 앞선 이미지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사전과 사후 모두 가장 높게 나옴. 이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재인식 속에서도 북한 정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들을 남북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함을 보여줌. 다만, 통일 강좌 수강을 통해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통일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등이 증가하여, 남북통일을 위한 여건과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
-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해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은 ‘북한 정권 변화’가 여전히 사전, 사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지속적인 남북대화’, ‘통일에 대한 관심’ 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함. 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희망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은 사전과 사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참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통일·북한 교육 내용은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북한의 사회와 문화’, ‘통일 한국의 미래’임. 향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이처럼 통일강좌 사업은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효용감을 바탕으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나타남. 그리고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단순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통일 및 북한을 재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재구성하여 ‘통일 의식 향상’으로 이어짐. 이 같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통일강좌 사업은 본 사업이 추구한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 모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2) 통일 특강 사업

- 특강 사업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 ‘만족도 조사’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특강 만족도는 ‘통일과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증진’, ‘통일 및 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재참여 의사’로 측정함. 1학기 및 2학기 모두 3가지 항목의 만족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음. 이는 통일 및 북한 특강 사업의 성격상 교육수요자에 맞춘 교육 내용 구성,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됨. 그러므로 향후 통일 강좌, 특강 사업의 교육 내용 및 콘텐츠 구성에 있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참여형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함
- 참여 학생들의 특강 사업 참여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인식개선으로 이어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경우 높아졌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강 사업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재인식함
-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통일 및 북한 강좌 사전 설문조사 결과에 비춰봤을 때, 특강 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즉, 특강 사업 참여를 통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정보 획득은 북한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함
- 희망하는 통일·북한 내용은 통일 및 북한 강좌와 유사하게, 특강 사업에서도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 비용’, ‘북한의 사회와 문화’, ‘통일 한국의 미래’가 참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 내용으로 나타남
- 특강 사업의 교육수요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콘텐츠를 통한 교육 실시는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짐. 그리고 참여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는 단순히 주관적인 만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특강 사업은 통일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또한 참여 학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 습득은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짐. 이처럼 특강사업 또한 강좌 사업과 마찬가지로 참여 학생들의 ‘통일 의식 향상’에 기여하며, 이는 이 통일교육 사업이 추구한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 모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3) 현장체험학습 사업

-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현장체험학습 사업에 제한은 있었으나, 제한된 상황 속에서 소규모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함.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통일 및 북한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사업으로 앞선 사업들에 비해 참여 학생들의 자율성이 높음.
- 참여 학생들의 높은 자율성과 보다 생동감 있는 지식 전달 및 습득은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짐. 참여 만족도는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정도’, ‘방문한 장소의 적절성’, ‘현장 학습 프로그램 추천 의향’으로 구성됨. 1학과 2학과 모두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 이는 강의실 안의 정형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 학생들이 직접 통일 및 북한 관련 장소를 방문하여, 생동감 있는 정보를 스스로 습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교육수요자가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참여형 통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중요함
- 현장체험 학습 참여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통일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 즉, 현장체험 학습도 강좌 사업, 특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통일 의식 향상에 기여함
-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 교육 방식은 ‘현장체험 학습’이 1학과 2학과 모두 가장 높음. 이는 참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기 때문임.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재참여 의사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현장체험학습 외 선호하는 통일 교육 방식은 ‘북한 이주민과의 대화’, ‘전문가 대면 특강’, ‘영화 혹은 드라마’임. 향후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러한 참여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중요함
-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 그리고 생동감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그리고 높은 만족도는 사업에 대한 재참여 의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짐. 다른 통일 교육사업과 동일하게 현장체험 학습 사업은 참여 학생들의 ‘통일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이 통일교육 사업이 추구한 목표와 성과, 측정지표 모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2.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 학생들의 통일 인식은 통일 강좌 및 특강, 현장체험을 통해 교육 이후 전반적으로 변화를 나타내 교육의 효과가 확인되었음
-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 별로 학생들의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 개발에서 학생들의 수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심화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성, 셋째, 교육의 효과가 확인되었기에 학생들에게 더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북한 관련 정보와 통일 이후 예측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정보 관련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이 적대대상에서 통일의 대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효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설문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음.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의 확충이 필요할 것임

부 록

부록 1. 설문지

1-1. 통일 강좌/특강 사전 설문지

2020년 통일북한 강좌 사전 설문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통일·북한 강좌 수강생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사전 인식'을 조사하여, 더 나은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추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응답자 특성]

1. 거주 지역

- ① 서울권 ② 경기권 ③ 강원권 ④ 충청권 ⑤ 경상권 ⑥ 전라권 ⑦ 제주권

2. 소속 단과대학

- ① 인문대 ② 사회과학 ③ 경상대 ④ 자연대 ⑤ 공과대 ⑥ 농과대
⑦ 예술대 ⑧ 의약간호대 ⑨ 사범대 ⑩ 법과대 ⑪ 생활과학대 ⑫ 기타()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5. 귀하는 이전에 대학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

6. 귀하는 평소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나요?

전혀 관심 없다.

↔

매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	---	---	---

7. 귀하는 평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	---	---	---

8. 귀하는 평소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전혀 알지 못한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	---	---

9. 귀하는 평소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①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②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③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④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⑤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0. 귀하는 평소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②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③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④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⑤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⑥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⑦ 기타()

11. 귀하는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① 북한 정권 변화	②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③ 지속적인 남북 대화	④ 주변국 지지
⑤ 튼튼한 안보 구축	⑥ 민간 교류 협력	⑦ 통일에 대한 관심	⑧ 통일 비용 준비

12.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요? (2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①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② 북한의 사회와 문화

③ 남북한 분단역사와 현실

④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

⑤ 한반도 주변국 외교

⑥ 북핵 등 군사안보

⑦ 통일 한국의 미래

⑧ 기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2. 통일 강좌 사후 설문지

2020년 통일·북한 강좌 사후 설문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통일·북한 강좌 수강생들의 '통일 및 북한 특강 인식'을 조사하여, 더 나은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수강생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추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 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응답자 특성]

1. 거주 지역

- ① 서울권 ② 경기권 ③ 강원권 ④ 충청권 ⑤ 경상권 ⑥ 전라권 ⑦ 제주권

2. 소속 단과대학

- ① 인문대 ② 사회과학 ③ 경상대 ④ 자연대 ⑤ 공과대 ⑥ 농과대
⑦ 예술대 ⑧ 의약간호대 ⑨ 사범대 ⑩ 법과대 ⑪ 생활과학대 ⑫ 기타()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5. 귀하는 이전에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를 수강한 적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통일·북한 강의 만족도]

6. 귀하는 수강 이후 통일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하였나요?

매우 낮아졌다.

 \longleftrightarrow

매우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	---	---	---

7.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매우 낮아졌다.

 \longleftrightarrow

매우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	---	---	---

8. 귀하에게 이 강좌는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longleftrightarrow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	---	---	---

[통일·북한에 대한 인식]

9. 수강 이후 귀하는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②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 ③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④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 ⑤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10. 귀하는 남북한 통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②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③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④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⑤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⑥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⑦ 기타()

11. 귀하는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① 북한 정권 변화	② 남한 정권/정치권 변화	③ 지속적인 남북 대화	④ 주변국 지지
⑤ 튼튼한 안보 구축	⑥ 민간 교류 협력	⑦ 통일에 대한 관심	⑧ 통일 비용 준비

12.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요? (2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 ①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② 북한의 사회와 문화 ③ 남북한 분단역사와 현실
 ④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 ⑤ 한반도 주변국 외교 ⑥ 북핵 등 군사안보
 ⑦ 통일 한국의 미래 ⑧ 기타()

13. 본 강의에서 '좋았거나 인상깊었던 점' 혹은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3. 통일 특강 사후 설문지

2020년 통일 특강 사후 설문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통일 특강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추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응답자 특성]

1. 거주 지역

- ① 서울권 ② 경기권 ③ 강원권 ④ 충청권 ⑤ 경상권 ⑥ 전라권 ⑦ 제주권

2. 소속 단과대학

- ① 인문대 ② 사회과학 ③ 경상대 ④ 자연대 ⑤ 공과대 ⑥ 농과대
⑦ 예술대 ⑧ 의약간호대 ⑨ 사범대 ⑩ 법과대 ⑪ 생활과학대 ⑫ 기타()

3.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4.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

5. 귀하는 수강 이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매우 낮아졌다.

↔

매우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	---	---	---

6. 귀하는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하나요?

- ① 남한을 위협하는 주적 ② 의심을 갖고 경계할 대상
③ 북한 정권은 적, 북한 주민은 동포 ④ 다른 나라로서 경쟁과 협력의 대상
⑤ 한 민족으로 통일되어야 할 대상

7. 귀하는 통일 관련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북한 정권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② 남한 정권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
③ 주변국의 통일에 대한 경계 ④ 오랜 분단으로 인한 차이
⑤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 ⑥ 통일에 대한 관심 부족
⑦ 기타()

[통일 특강 만족도]

8.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과 북한 사회의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longleftrightarrow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	---	---	---

9. 귀하에게 이 강의는 통일·북한 관련 지식과 정보획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longleftrightarrow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	---	---	---

10. 귀하는 이 강의를 통해 통일·북한 관련 강의(학습)에 더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longleftrightarrow

적극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	---	---	---

11. 앞으로 어떤 분야의 통일·북한 교육을 받고 싶은가요? (2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세요.)

- ① 남한·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② 북한의 사회와 문화 ③ 남북한 분단역사와 현실
④ 통일의 장단점과 통일비용 ⑤ 한반도 주변국 외교 ⑥ 북핵 등 군사안보
⑦ 통일 한국의 미래 ⑧ 기타()

12. 본 강의에서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 혹은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4. 통일 현장학습 사후 설문지

2020년 통일 현장 학습 설문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설문은 통일 특강 현장 학습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은 추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응답자 특성 문항]

1. 거주 지역

- ① 서울권 ② 경기권 ③ 강원권 ④ 충청권 ⑤ 경상권 ⑥ 전라권 ⑦ 제주권

2. 소속 단과대학

- ① 인문대 ② 사회과학 ③ 경상대 ④ 자연대 ⑤ 공과대 ⑥ 농과대
⑦ 예술대 ⑧ 의약간호대 ⑨ 사범대 ⑩ 법과대 ⑪ 생활과학대 ⑫ 기타()

3.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대학원

5. 귀하는 이전에 대학에서 통일 및 북한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현장 학습 평가]

6. 이번 현장학습이 귀하의 통일문제와 북한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	---	---	---

7. 현장 학습 프로그램에서 방문한 장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

매우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	---	---	---

8. 통일·북한 관련 장소를 앞서 방문했던 경험이 있나요?

① 처음 방문

② 1~2회

③ 3회 이상

* 통일·북한관련 장소: 휴전선, 비무장지대, 판문점(JSA), 통일전망대, 안보교육현장(땅굴), 북한이탈주민 교육장소 및 생활시설 등

9.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할 의향이 있나요?

전혀 추천할 생각 없다.

↔

적극 추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	---	---	---

10. 가장 효과적인 대학 통일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가지를 골라 답해 주세요.)

① 사이버 강의

② 현장 체험 학습

③ 북한 이탈주민과의 대화

④ 전문가 대면 특강

⑤ 대학 내 동아리 활동

⑥ 통일·북한관련 에세이(논문)

⑦ 영화 혹은 드라마

⑧ 기타()

☞ 개인적으로 현장 학습에서 '좋았거나 인상 깊었던 점'이나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2. 대학별 설문조사 참여자 수

부록 2-1. 1학기 대학별 통일강좌 사전/사후 참여자 수

구분	사전		사후	
	N(명)	%	N(명)	%
가천대	79	7.5	74	7.4
경희대	72	6.8	69	6.9
공주대	33	3.1	33	3.3
대구대	63	6.0	63	6.3
대전대	123	11.7	121	12.1
동서대	29	2.8	29	2.9
동아대	20	1.9	20	2.0
세종대	185	17.6	165	16.6
숙명여대	250	23.7	226	22.7
연세대(서울)	25	2.4	24	2.4
진주교대	60	5.7	60	6.0
한림대	45	4.3	40	4.0
한라대	70	6.6	72	7.2
전 체	1054	100.0	996	100.0

부록 2-2. 2학기 대학별 통일강좌 사전/사후 참여자 수

구분	사전		사후	
	N(명)	%	N(명)	%
가천대	29	2.2	29	2.6
경상대	59	4.5	44	4.0
경희대	43	3.3	42	3.8
계명대	105	8.0	87	7.8
공주대	51	3.9	51	4.6
대구대	58	4.4	59	5.3
대전대	93	7.1	86	7.8
동서대	26	2.0	27	2.4
동아대	31	2.4	27	2.4
배재대	53	4.0	57	5.1
부산외대	33	2.5	21	1.9
세종대	441	33.6	301	27.1
연세대	25	1.9	25	2.3
중원대	65	5.0	59	5.3
진주교대	46	3.5	58	5.2
충남대	21	1.6	20	1.8
한림대	26	2.0	26	2.3
한신대	50	3.8	40	3.6
한양대	57	4.3	50	4.5
전 체	1,312	100.0	1,109	100.0

부록 2-3. 대학별 특강사업 참여자 수

대학	1학기		대학	2학기	
	N(명)	%		N(명)	%
공주교대	114	6.7	경동대	96	9.1
국민대	284	16.7	동국대	32	3.0
			연세대(미래)	41	3.9
삼육대	103	6.0	영남대	217	20.5
연세대(미래)	103	6.0	을지대	129	12.2
원광대	178	10.4	이화여대	107	10.1
			인천대	43	4.1
을지대	432	25.4	제주대	32	3.0
창원대	208	12.2	중부대	182	17.2
			창원대	62	5.9
청주대	243	14.3	청주대	82	7.8
춘천교대	39	2.3	춘천교대	35	3.3
전 체	1,704	100.0	전 체	1,058	100.0

부록 2-4. 대학별 현장체험학습 사업 참여자 수

대학	1학기		대학	2학기	
	N(명)	%		N(명)	%
공주교대	14	13.9	경동대	30	11.6
			동국대	26	10.0
삼육대	30	29.7	연세대(미래)	41	15.8
			을지대	33	12.7
연세대(미래)	27	26.7	인천대	34	13.1
			제주대	27	10.4
원광대	9	8.9	중부대	19	7.3
			창원대	21	8.1
창원대	21	20.8	춘천교대	28	10.8
전 체	101	100.0	전 체	259	100.0



(사)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814호